

漢 城 新 報

<제 4 권 : 1896년(명치 29년) 9월 ~ 12월>

1896년(명치 29)

9월 :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0월 :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1월 : 1, 3,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2월 :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1897년(명치 30)

1월 : 5,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2월 : 1, 4, 6, 10, 13, 15

<NO 2 마이크로필름본(1896년-1897년)>

으로가서、古器搜見을크쳐고、조본금
을鑄樂方야、사물을、이금국에보너

고, 탐사케 떠나, 여러 歷史的 參考에, 유
요하고 그를 發掘한 것이라, 지나간 칠

월애, 윤돈에서, 衆人에 皆 觀望케는,
이금국고미단, 이번애 淸風하든거식

덕, 데 일쫓하거든 「흐마」 (취) (原書)

대한히 달고, 孫山府文法家가訂正

한거슨, 이 글은 古代紙에 쓰든 香墨語로

하루는 신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

오십년전
이라더라

詞藻

第四等

他竊七夕

茶洞

李亨種

金氣動，星河影淡水精流，天孫今日相邂逅。
客子一年最感秋，借問多情滄海月，也應分

故鄉樓、
第五等

忽驚客舍起秋風、更看明河橫碧空、萍水浮
南北、遊、是攜佳會古今同、遙憶故園穿鐵燭、

設作蕭瑟匪腹翁、一樹梧桐半輪月、懸懸堪入薄中、

第六等
他鄉七夕
楊東巖
運城喜作故人遊，七夕佳辰又此樓。流火是

落客夢、玉簫何處喚仙舟。銀河月、隱橫千尺，
金井風飄葉一秋。牛女今宵應惜別，臥聽更

第七等
地鄉七夕
恒賜
李俊白

滄溟萬里一孤鶩，此夕遂來情可憐。滿目江
同故地，感懷藉酒又今年。枕戈尚有家庭夢，

意相牽、

新開紙一張價	一錢三分
一朔間先給	一兩二錢五分

三朔間	先給	三兩五錢
六朔間	先給	六兩七錢七分
地方購買者		每月每銀七錢五

이 요 條數及回數로 좃차서

슬덜 밝고 此廣音 國도션 근
 밝스 로음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寶祚萬歲を祝す

國太公の御對顔

其一（告文、祭文に關して）

勅 宮内府大臣署理 尹定求

其二（奉迎に關して）

玆殿移安の時は當に 廣運宮大門外に

勅 宮内府大臣署理 尹定求

今番の服制は謹んで
英廟御定の補編

勅 宮内府大臣署理 尹定求

一 大君主「公除」後、事を視るの服は

(生布を用う)布裏翼善冠(笠)も亦た布と
以て褻む)布裏烏犀帶、白皮靴、祝居の服
は布衣、布笠、布帶、卒哭(後、事を視るの
服は白布、翼善冠、烏犀帶、白皮靴、揄(後
祝居の服は白布衣、白布笠、白布帶
一王太子「祥」より「再葬」前に至るまでは

●眞照 然聖稱奉曰

眞靈移奉 四日辰時（午前六時より八時）

養殿多奉
四日兩時
（午前十時より正午）

殿移奉の日、時右の如く御治定おらせられた。

運宮修繕工事と多數の工夫と

露店を取毀つ
來る四日

●奉外部原公使を訪問

全盤公交及以同夫人作出

觀察使再置の上奏、
内務

城府民の請願に對し一旦之れが願書を却下ししも爾後更らに見る所あり一兩日並同府觀使許置の事の上奏せりと云ふのみあり

中西警部開城に出張せんとす 開城地方は近來我日本商民の行商するもの尠からざる所彼の警察使隨位置の事に就き民心頗る激

●獨立新聞之館公使

余輩は數週前に於て露國政府はケニヤニ
毎日讀書作立

其代役者の罪障に巧みふると賀登十んばめ

國の誠實する朋友たる事は氏を知る者の必

みれば太君主殿下の熊鷹公使館より移御せ

ト氏たゞざるべき事余輩の勸言を憚らざる
れたり其の故

ことを望むと云ふもの全く此世人の感情と

上の限引を片腰丈けで喰止め得んどの事なる
非ざれば一切

のめを稱するものあれを同氏は頃日來其の全羅道の各沿岸

青部と種物を生じ難し居たりとの事あれば、
其の歸郷は多分之れが療養に爲めなるべし。
● 趙東調氏 從三品趙東調氏は去る廿八日、
● 趙東調氏 趙東調氏に任ぜられたり。
● 臨時宮内府官吏、王太子紀宮太夫閑談結
● 中務院議員尹地榮、法部參事官洪鍾福、學部
● 韓人の亂暴

史記卷一百一十五
史記卷一百一十五
史記卷一百一十五

▲米價低下落 當地米價之日々低落の模様あるが昨日も亦一石に付二十錢方を引下たり

●韓人の亂暴 去月二十八日の事々々どか

● 釜山通信
(廿七日發)

▲米價低下落 當地米價之日々低落の模様あるが昨日も亦一石に付二十錢方を引下たり

●韓人の亂暴 去月二十八日の事々々どか

しき取引をなかりし
石油、燐寸、木綿、新穀米、何れも依然として
沈滞の姿相場、又各別の暴動を

仁川港商況
(承前)

しき取引をなかりし
石油、燐寸、木綿、新穀米、何れも依然として
沈滞の姿相場、又各別の暴動を

却りて隘路に苦しむに至る蓋這般の状況に就いては已でに具申する所ありたるを以て之れを略す

(完)

▲未開港との貿易

却りて隘路に苦しむに至る蓋這般の状況に就いては已でに具申する所ありたるを以て之れを略す

(完)

◆ 金

却りて隘路に苦しむに至る蓋這般の状況に就いては已でに具申する所ありたるを以て之れを略す

(完)

治二十九年八月

Figure 2. A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experimental desig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The control group received a standard training program,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 modified training program. The results of the training program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併之入海講求學問

併之入海講求學問

隔日發刊

三不부다 令令入

하네, 참잇길다

야잇노라코, 티답호얏다더라
심리카호

○清國改革之阻害者 淸國에 之 阻害를
阻害하는 것은 腐敗泥^{부패니}라고, 북경^{북경} 만치
「대미스」^{대미스} 新聞^{신문}에 이르러 이르러 이
이

학비히 호고 작호 學徒 誦其書 變 찬신
에 사의가 초범 여 아름다운 글
귀가 극히 만아서 왕왕이 사름에
입에 휘자 하더라

운죄가, 팔조구에, 이실때에, 가사
가, 켜장하여, 미양, 손을잔치하고,

다, 식칼리, 펼쳐놓으, 자리만드니,
장석이, 철명이, 그집에 가서, 자리만

들기만, 일삼으니, 그 호걸 실어운 것
과, 그 부자 시려운 거설, 가이알너라

또 고로 달애 버드르나, 관연(寬延)
중에, 비한(誹謗)지유, 가온덕, 위인
난자가, 일즉이, 십쳐, 그가 원예, 복

거를 할 시 문작가, 말년에, 고요하고
그지를 지을 시, 흰조히로, 천장을

발나사니, 분으로, 바른것과, 다름
이을난지라, 그후에, 집이, 파괴함
장식으로, 향여곡, 다시, 슈보를할

이거시, 변변치 아니후, 장식은 못후.

“숨네, 다른 사람이, 갈오디, 웃지
말이, 나하니, 그장식이, 갈오디,
조니, 달구니, 보아나니, 조니

도, 다른 곳 소산이요, 풀도 다른 것이
아, 그 조의와, 그 풀이 밭변널, 저

한 것도 있고, 오십 년을, 지내 난 것도
있어서, 지야 란 공과, 유구 국과, 조

이제, 오십년, 지닐거시, 다시그사
음이난지라, 흥몰며, 희의국에서

나년백사보냐, 니런고로, 슈보흐
가, 쉬지아니흐다차호라, 무죄가

말년에 낙관(落井)함마 아갓런년
 시라 그승을 석의, 가도가 풍유하
 만금, 저물을 들너서 기을, 특갓

지하여, 한데에, 만사람에, 이목을돌
난지라, 또한가이, 부고심푸며,

그름에 미쳐, 다행치고, 너가 스사
로, 으더, 너가, 스사로, 쓰니, 능이,

도고, 능이, 헛처, 성의, 가를, 쾌호
사람을, 니가, 장차, 파향, 일쥬, 주왕

曰事也辨香一炷錢黃金事之也

紀文傳
(續)

●御對顔을 아나하시더라

국태공전하는
대군주 폐하 만수절을 축하하기, 일전에, 경은으로, 가슴사, 천하 하하고, 御對顔을 오실라 하라고, 전호에, 그 지는 앓거니와, 시방은 바에

●各國使臣之謁見

지작일 만수절에는, 각국 소신을 謁見하시다, 등리가, 앓섯스므로 豫定하시각, 오후두시에, 각국 소신은, 아라사공관내에, 폐하가 계

●日本總理大臣交迭

일본국 총리대신 伊藤博文은, 의원면 본관하고, 중류원의 장 齋藤隆伯이, 님시각 총리대신을 겸하였더라

●金炳始氏
●李公使過橫濱
駐米朝鮮公使李範善氏, 是, 속관하고, 外外國船支那號, 自, 자난스르날 오후여섯시에, 橫濱으로, 드러가더니, 대단히 恐怖하

도모지, 하루를 아나하시므로, 謁見하시니, 하영사, 그 잇는 날 앓참에, 그 박로 謁見하야 가고, 그날은 오

●叙任及辭令
▲任奎章院直學士 從二品趙東潤(奏任三等)

▲命分秘書院丞 王太子妃宮太夫人 趙淑珍, 中樞院議官尹達榮, 奉常司長鄭寅, 三品趙秉

▲命分秘書院丞 農商工部參書官趙秉健, 學部院議官李憲賢, 農商工部參書官趙秉健, 學部

▲命分秘書院丞 農商工部參書官徐廷祿, 九品成健, 八品金奎東, 九品品李忠模, 九

▲命分秘書院丞 農商工部參書官趙秉健, 學部院議官李憲賢, 農商工部參書官趙秉健, 學部

▲命分秘書院丞 農商工部參書官趙秉健, 學部院議官李憲賢, 農商工部參書官趙秉健, 學部

▲命分秘書院丞 農商工部參書官趙秉健, 學部院議官李憲賢, 農商工部參書官趙秉健, 學部

일일에, 인천감리서에서, 식물을 앓는디, 바로, 土田을, 살히 하얏다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匪徒更起
제작일, 홍주군슈보 고니에, 청풍등지에, 비도가 다시 일

冷。白雲觀中畫且深。幻梯橫斷雲生脚。上現
覆宮下龍宮。斧斤不入山胡古。幾時屏面影
重。岩潭嵌壁龍虎出。仙童是茂高於松。一景一
畫千萬畫。眩人思逸使官還。對此忽憶西游事。
曾記山驛與水鄉。北極長城南頂嶺。三百四城一
劍湧。空馮天山一坐月。長衣黃海萬里種。然
而未見如此景。留裙絕勝誰敢攻。如今空爲失
意客。漫漁詩筒疑鼓擊。學仁未得樂山耳。樂
水時恥忘憂窮。原知山姓須入山。爲火食仙豈
不工。華嚴瀑畔是其地。藏諸名山氣凌虹。如
何袖袖菊花酒。復又杜草帶寒狂。嗚呼君華嚴
瀑之歎一曲。奎人萬戲巧數句。古來名山屬名

秋風山下路。孤客此徘徊。双塔亭雲坐。暗泉
抱水回。寒松千古月。廢殿一庭苔。我耳何須
洗。欲清城上埃。

香山宿碧雲寺

林樹連裾雲滿牕。夢殘寒覺不堪聽。一聲鐘磬
香山雨。積翠染雲松月青。

社告

今回 다시 四方諸君의 名篇佳句를 募集 하되
七言律로 作은 題는 新秋雜感이요 期
限은 陽曆十日까지에 送句 하야 주시옵
는 條句는 其翌日 부터 紙上에 登載 하야 一事句
되신 에게는 二期所設을 寄附分屬 하오니
그리하고 送句 하야 주시물 아니라옵

但送句諸君은其詳箋端에別號와在名住址
을分明히적어두시고「等句되신은이
는一番만本社로나와서、잘分庫케住處
를그르치시옵
書體楷書

九月一日

漢城新報社編輯部

社告

今回本社新報地方購發諸君에便利함을
經縮하야路商門으로郵選送達하는是請
하오니農工部衙門에서認可되얏스
미郵選線沿道에諸君은新報價一兩一兩二錢

新聞紙價票	一錢三分
新聞紙一張價	一兩二錢五分
一朔間 先給	三兩五錢
三朔間 先給	六兩七錢五分
六朔間 先給	每月郵遞稅七錢五分
地方購讀者	
廣告價	
한줄을한번내는거시三錢式	
이오條數及回數로쭈차서갑	
슬덜말하고此廣告價도선금으	
로받스옵	

漢城新報社編輯部

新開紙價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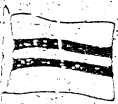
紙張一張價	一張三分
期間 先給	一兩二錢五分
期間 先給	三兩五錢
期間 先給	六兩七錢五分
每月郵送稅七錢五分	

이 요 條數及回數로 좃차서 갑
슬덜 받고 此廣告價도 선금으
로 받스옵

三百二十 日寧邊郡守鄒周默氏を訪ひ右の顛末を談した

國に誕生し耶穌基督氏と名づく其莫大の理

計 三四、 二三、四分之二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廣告

●玄海丸 九月八日出帆(六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薩摩丸 九月八日出帆(七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肥後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長門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兵庫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豐島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顯益號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蒼龍號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海龍號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廣告

●筑後川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信濃川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木曾川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隅田川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仁川荷客取扱所 廣告

●正重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安來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京城 莊司回漕店

●京仁間和船取扱所

●仁川本町 慶田組

●大林回漕店

●大林回漕店ニテハ是迄同前船取扱居候處

●今因前記回漕店ノ開ニ連絡ナ付テ從今ニ比シテ

●仕候間諸君ノ御受領ニハ幸甚願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一等 壹圓

●二等 七十錢

●三等 五十錢

●外二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東京館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御取扱は親切之旨とす

朝鮮物産依託販賣 并ニ諸雜貨買次業

岡澤鏢吉 商店

鈴木錠藏 商店

慶田出張店

慶田組

慶田出張店

昌興會社

販賣 大業 入藏

樂吉

商店 錠藏

商店

販賣

張店

組

賣

張店

組

賣

賣

會社

パレイ ト 朝鮮 國 一 手 販 賣 各種 眼鏡 店 支 店 泥 峴 店 商 辻 洞 貞

本會正風集 兼題名月 豐秋園瑞穂宗匠樂撰

第六會正風集 兼題名月 豐秋園瑞穂宗匠樂撰

荷蘭 着 廣 告 品 瑞西製 最新 子スルスミルク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瑞西製 最新 子スルスミルク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特別廉價販賣 キリンビール アサヒ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露葡萄酒 生葡萄酒 平野礦泉水 白砂糖數品

成尾安五郎 免轉住廣告 鍼術灸治按摩 治療所

久田安生堂 柳行李 針硯函 馬具一式 鈴木大阪堂

發行所 漢城新報社

漢城新報

刊發日隔

雜報

●口調查規則勅令第六十一號

제일조 전국지, 호주의, 인구로, 상

세히, 편적하야, 인민으로, 하여

금, 국가의, 보호하야, 내일을,

군정케함

제이조 심호을, 연합하야, 일등을

작고, 혁명하야, 문산나, 유하

고, 혁위가, 단정하, 인으로, 통수

를정하야, 일등지, 민인을, 냉술하

제삼조 호적과, 등표, 하성오서

와각부국에서, 이월하, 해성오서

로, 슈취슈정하야, 이월하, 한

성부의, 각하도, 관찰부에송치하

면, 한성부난상하, 니부에,

정남하, 각도관찰부에서, 사

월하, 니부에정남하, 니부에

서오월하, 호적과, 등표, 편적

하야, 상 주케함

제사조 인민중의, 원호를은의하

야, 주적하, 원적하, 인구를

고의, 누탈하, 인민의, 권

니를, 하유치아나할아나라, 법

들의, 조하야, 징벌함

제오조 본규칙을, 고, 위하, 기

대한을, 위하하, 인민을,

회장관이, 처벌하, 유무관하,

한성관공과, 회관찰하, 니부의

전보하야, 징벌하, 한성관공과

각관찰하, 니부하, 남중

을슈하야, 징계함

제육조 호적, 등표, 호적, 식양을,

정정하, 세하, 니부하, 신이,

슈하야, 부령으로함

제칠조 본령은, 반포하, 불하

하함

●侍御員 구니부, 포탈제십호시

종, 원시오사인을, 이하, 인으로, 지

정함

●口調查規則勅令第六十一號

제일조 전국지, 호주의, 인구로, 상

세히, 편적하야, 인민으로, 하여

금, 국가의, 보호하야, 내일을,

군정케함

제이조 심호을, 연합하야, 일등을

작고, 혁명하야, 문산나, 유하

고, 혁위가, 단정하, 인으로, 통수

를정하야, 일등지, 민인을, 냉술하

제삼조 호적과, 등표, 하성오서

와각부국에서, 이월하, 해성오서

로, 슈취슈정하야, 이월하, 한

성부의, 각하도, 관찰부에송치하

면, 한성부난상하, 니부에,

정남하, 각도관찰부에서, 사

월하, 니부에정남하, 니부에

서오월하, 호적과, 등표, 편적

하야, 상 주케함

제사조 인민중의, 원호를은의하

야, 주적하, 원적하, 인구를

고의, 누탈하, 인민의, 권

니를, 하유치아나할아나라, 법

들의, 조하야, 징벌함

제오조 본규칙을, 고, 위하, 기

대한을, 위하하, 인민을,

회장관이, 처벌하, 유무관하,

한성관공과, 회관찰하, 니부의

전보하야, 징벌하, 한성관공과

각관찰하, 니부하, 남중

을슈하야, 징계함

제육조 호적, 등표, 호적, 식양을,

정정하, 세하, 니부하, 신이,

슈하야, 부령으로함

제칠조 본령은, 반포하, 불하

하함

●侍御員 구니부, 포탈제십호시

종, 원시오사인을, 이하, 인으로, 지

정함

정함

●口調查規則勅令第六十一號

제일조 전국지, 호주의, 인구로, 상

세히, 편적하야, 인민으로, 하여

금, 국가의, 보호하야, 내일을,

군정케함

제이조 심호을, 연합하야, 일등을

작고, 혁명하야, 문산나, 유하

고, 혁위가, 단정하, 인으로, 통수

를정하야, 일등지, 민인을, 냉술하

제삼조 호적과, 등표, 하성오서

와각부국에서, 이월하, 해성오서

로, 슈취슈정하야, 이월하, 한

성부의, 각하도, 관찰부에송치하

면, 한성부난상하, 니부에,

정남하, 각도관찰부에서, 사

월하, 니부에정남하, 니부에

서오월하, 호적과, 등표, 편적

하야, 상 주케함

제사조 인민중의, 원호를은의하

야, 주적하, 원적하, 인구를

고의, 누탈하, 인민의, 권

니를, 하유치아나할아나라, 법

들의, 조하야, 징벌함

제오조 본규칙을, 고, 위하, 기

대한을, 위하하, 인민을,

회장관이, 처벌하, 유무관하,

한성관공과, 회관찰하, 니부의

전보하야, 징벌하, 한성관공과

각관찰하, 니부하, 남중

을슈하야, 징계함

제육조 호적, 등표, 호적, 식양을,

정정하, 세하, 니부하, 신이,

슈하야, 부령으로함

제칠조 본령은, 반포하, 불하

하함

●侍御員 구니부, 포탈제십호시

종, 원시오사인을, 이하, 인으로, 지

정함

정함

이수한	동아일보	집광, 미	도르보	동아일보	일선노의	마시고,	안녕하세	이름, 추	이명환씨	영원하	이수한	서, 충돈	파형정	처에 塵埃	음이, 筆紙	이수한	이명환	하행자	시原因	하행자	最増高을	이나논지	어야 못	자고 箱論	을지연전	자신살	가차로	가차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며, 그 전설, 최후안소성, 소옥의, 사랑, 지 아니한지라, 그부, 천, 부응이가, 심씨에, 눈치떨고, 마아에, 좇치안나히여, 심부인다려, 입안, 안나히여시나, 자식은, 맛찬가자라, 야모썬류, 너그출과, 다름이, 읍시한거시, 읍은이라, 하고누누이 일으니, 부인이, 그말릴, 읍은야으로, 듯지아니하고, 점점, 모자의 읍셔, 소옥을, 미워한지라, 그근심하며, 소옥을, 더욱불상이여기니, 심부인이, 제마음에, 부응가, 되씨소성소옥은, 세상의, 읍난거스로 알고, 제소식, 삼남, 미난, 도라보지, 아니한줄노알어, 장슬러할분지, 아니라소옥을, 보기도, 실여한지라, 심씨가, 본티승형이, 몸실고, 소견이, 험치하히여, 소옥이럴, 하할마암이있셔, 계교를, 생각하나, 부응이가, 심씨에, 소견과, 형실을, 아난고로, 소옥을, 잠사도, 께티셔나지, 못하게하고, 밥을먹으니, 잠을자나, 밤것방의, 다리고있셔, 학업과, 형실을, 극진니가르쳐, 점점자라미, 참영응자품이요, 문장, 방탈이라, 남은촉찬아니하나니, 읍시나심씨난양양지심이있셔, 주야로, 본그티종하히여, 먼단거도, 살노가지아니하히여하더라, 잇셔의, 소옥이, 삼배세되미, 그부친, 부응아가, 혼처를구하되소옥이, 려편의하고로, 그비필이, 세상의, 읍난가갓히여, 스면으로, 널리구하죽, 근처의, 장씨라하난사람이잇셔되, 일흔여출현이라, 출현이가, 나이만토록, 아드런읍고, 하설얼두엇스되, 자식이, 비범하고, 승형이, 지술하고, 썬덜이잇셔, 짐짓요조속녀라, 일것더라, 부응이가그소문을듯고, 기거하히여, 이파를, 보되여, 동촌을하죽, 장씨

출현이가, 쌍과부응의, 아들소육의
가, 향하니, 나르고, 호칭이, 구전함,
소문을, 듣고혼인지날, 마암이있던
, 지음에, 유혼이, 으난지, 라, 즉, 시, 허락
, 혼족, 의, 과, 가, 도, 라, 와, 셔, 혼인, 허락
, 혼, 말을, 전하니, 과, 부, 응, 이, 가, 이, 말을
, 듣고, 민, 우, 조, 의, 호, 여, 즉, 시, 조, 혼, 날, 을
, 같이, 여, 혼, 인, 을, 지, 니, 러, 같, 신, 그, 부
, 친, 이, 소, 육, 을, 다, 리, 고, 노, 복, 바, 를, 위
의, 를, 가, 조, 와, 가, 나, 귀, 경, 하, 난, 사, 를, 다
리, 그, 남, 제, 의, 과, 상, 과, 덕, 도, 를, 보, 고,
, 흥, 선, 니, 아, 니, 여, 기, 난, 지, 음, 난, 뒤, 홀, 노
, 심, 씨, 난, 시, 미, 가, 뒤, 발, 하, 여, 가, 난, 모
, 양, 을, 본, 데, 도, 아, 니, 하, 며, 혼, 구, 등, 절, 도
, 아, 른, 데, 도, 아, 니, 하, 며, 제, 자, 식, 삼, 남
, 미, 를, 어, 루, 만, 지, 며, 부, 응, 을, 원, 망, 만
, 하, 더, 라, 이, 날, 장, 씨, 집, 에, 가, 셔, 호, 인, 을
, 지, 날, 서, 신, 부, 와, 신, 낭, 이, 교, 비, 셔, 의,
나, 와, 본, 족, 정, 직, 원, 인, 에, 녹, 슈, 로, 다,
, 뒤, 아, 니, 출, 란, 하, 리, 요, 이, 날, 밤, 의, 신
부, 와, 신, 낭, 이, 천, 정, 지, 약, 을, 맺, 고, 곤, 하
여, 신, 부, 와, 신, 낭, 이, 각, 각, 이, 불, 을, 덥
고, 자, 다, 가, 신, 부, 가, 호,련, 이, 잠, 을, 들
뒤, 여, 씨, 나, 무, 신, 인, 씨, 가, 나, 난, 것, 같
고, 무, 신, 남, 씨, 가, 나, 난, 것, 같, 거, 날, 들
뒤, 이, 러, 나, 미, 완

社告

今回本社開設地方諸賢諸君에 便利함을
經給하야 諸衙門으로 郵遞送達하 爲請
하얏더니 農務工部衙門에서 認可 되얏스
미 爲此 提議道에 諸君은 郵報價一期 一兩二錢
五厘와 郵遞稅七錢五分을 本社에 先給으로
보되시면 日에 보되읍

郵報紙價票	
新報紙一張價	一錢三分
一期開 先給	一兩二錢五分
二期開 先給	三兩五錢
六期開 先給	六兩七錢五分
地方諸賢者	每月郵遞稅七錢五分

廣告價
한글을 刊本내는 거시 三錢式
이 五錢式及回數로 出차셔 刊
슬 刊 발고 此廣告價도 送金으로
보발스읍

殯殿

비종약간인, 문무관, 태복

부, 창, 봉마

여수군

△
三
市
記

雜報

사위비위, 문무관, 상복보

예청, 후진(의장)병, 천위제오위대

(의), 호소로兼行했다라 이리, 靈臺가, 경

유척, 대군유패하는 천, 乘御하

리이, 사, 왕대조와 侍臣을 다 리사, 동

중, 무, 공대문으로 출어하사 巡幸하옵사

찰관, 靈御를, 中宗으로, 봉안하사, 빈전

안간, 이봉이, 아 주를 了하얏더라

●移幸 靈臺

▲빈전, 이봉시에, 술에 지궁관은, 좌

의정이입고, 식지궁관은, 우의정이

거행하올터이온데, 관제를, 리경

지당, 하와스오니, 하이위지, 을지

근상, 주봉지총호스, 겸행

▲구월삼일, 진, 전, 이봉시, 빈전

이안시, 궁덕신주부신, 진거

▲百官入參, 음역, 趙元이 심복일

이심척일, 각제전에, 빈관, 입출

▲陣形, 屈從兵之隊形即爲編陣은, 일

본과, 서양병법에, 도선술책대의, 병

법을參酌하야, 석여내, 形像이라더

라

▲號令, 천위병교련은, 일본스관

이, 그릇치든거시므로, 저작일에

디장이가, 호령하느거시, 아 주일본

말을쓰더라

▲例軍, 온, 도선병정, 기에 등에

서, 데일되게도록, 잘부르미, 군디

의 步法이, 맞나느듯하더라

▲摘務, 구월삼일, 신령사위군병

략지부, 건호제

▲老翁三人痛哭, 빈전이안때, 광동

방, 濟人商店德興號앞에서, 帑帑노응이,

세명이, 양단부지, 하고, 肅穆하야

哀悼하느형상이, 보느사람을하야금

충술, 감동갸더라

▲靈車婦人, 광화문전, 각아문의문

간이며, 또종누, 광동방, 미동등의의細

시通路에, 兩쪽상고집은이며, 창에

隙, 을달고, 兩반의 賈婦人이나 少年이

나, 기타 婦女子가, 잘웃고, 粉粧을 잘

하야, 粧을 구경하야, 이섯더라

▲學生拜謁, 잔전, 빈전參贊대, 영

어 학교기타 학생은, 학부문전에 整齊

하야 整齊를 하디, 영영학은, 다 양복

을입혀 服制가, 한가지로하야, 그 교

스가 引率하 고이섯더라

▲再昨日求見軍, 잔전, 빈전이 多量

하시느거슬, 구경크저고, 각지방에

서, 을나온 老弱男女는 破만코, 오후에

빈전이안때는, 광화문에서, 警備

근처까지 路傍에, 사람이 구름모이는

것크치, 면십만명이, 되얏을지, 아

는슈업섯더라

▲家上求見軍, 저작일을參贊대 구경

들이, 兩쪽집우회, 을나안자서, 구경

하야잇느모양의, 타국사람, 이라도

鳳臺에 不敬하늘, 官廳하얏스되, 엇

제그린지, 술거름은, 벌로히 制止

느모양의, 업섯더라

▲即死及魚傷者, 廢殿大臺가, 광동방

을지나 右折하야, 미동으로, 가시안

디, 길이야 주, 막쳐서, 몹시 混亂하야

大臺가, 급작지남어 지려는데, 臺上重

이 닦쳐상하 사람이, 여섯명이고, 그

안에서, 세시느, 미오상하고, 하나

느, 죽었스리라하며, 또 구경군이

하나가, 술다리 근처에서, 다른구경

군들의게 壓死하얏고, 또, 종루에서,

侍奉人이 득든말이, 穹窿을내여뛰어

서, 나히절문사름하명파, 마부하명

이, 닦쳐서 상하엿다더라, 또, 宣慰

에느, 그날死者가, 여섯시 잇다기도

하음

▲地方無賴漢, 항일리로, 각처지방

에서, 못된놈들이, 문안으로, 드

러와서, 저작일에, 잔전, 빈전이

봉대에, 정부 露路高을이며, 외국인의

게, 暴行을하러고 恣意하야 잇다느, 소

문이잇섯스므로, 그당노자들은, 口

히 罵詈하야잇섯다므로, 아모알도,

업섯느일으느, 다형하일이더라

●廢通宮修理工事, 圻宮, 슈리하난

일은, 지금, 목슈, 빈명이정녀하기

로, 일을삼아서, 담과벽을거의그반

을괴성하엿다느, 오죽, 서편으로,

아죽취공치못하 고각문열, 구조하

느, 괴성하 고, 아죽, 근죽하지못하

엿사며 잔노남아 죽취서가음사나,

아마도목슈를기다려서, 슈일후나,

되듯하더라

●女學龍遷難, 한금, 현학구난, 함

경도, 명천, 거하느스름으로, 작런

승원에, 입본, 동경에, 학도로천하

여, 드러, 갖다가졸업호, 후에, 본국

명령을, 조조, 고국, 도성에, 나와, 유

하더니, 그동성, 하룡이, 형의, 나온

소사를, 듯고, 서을노, 오다가, 삼

방에서, 슈, 빈명이, 그하룡의, 노

저와, 마를, 달취, 하고저의진동,

에가두어, 두니, 그스름의, 불행은,

또한, 면망, 하도다

●校計可憐, 잔전스라, 하는사람이

검성에, 류한지, 수년에, 험, 줄이,

만흔지라, 작런칠월분은, 동부동사

는, 과부, 한시를, 유난하여, 상관하

고, 그계집의지물을다벙서서저만,

쓰고, 그계집은한편을, 주지안이

니그계집이, 중창유으려, 독게되미

석마동하, 모의, 집에, 의탁하니, 서

구, 세사람중에, 그스름모와, 오리

비는, 저저우의, 비러먹고, 과부난

목을리조죽고자, 한다, 하니, 이일

리, 참, 과련현가, 참, 그러현진디,

진스의괴계를, 법으로, 처치, 하겟

더라

詞藻

黃海即目 米溪 山吉 盛養

盤繞纒霧四無邊。極目茫茫渾入煙。風動鰐波

滿海。水連碧落繞浮天。曾題何恨乘無聊。

即咏纖歌扣有絃。之子憂時不憂綰。悠然載夢

覺驚前。

由漢波航赴餘姚有風夜泊四頃

萬里秋天一個客。孤帆夜近蘆花泊。接應船斷

滿洲風。乾雲飛舟江月白。

由姚江赴紹興舟中

雪劍悠然事遠遊。一朝是馬一朝舟。寒風隔霧

風前岸。過雁凌雲月下洲。河腹水鄉多出骨。

蘆頭絮落欲無姿。秋來難奈千里思。非客爭知

客裡愁。

讀秦書

幽人君兮私人國。投之武備何姑息。誰教之者

竟不救。八道天地空荊棘。不須辛苦築長城。

彼れ屠人等... 其の如き例々俾しきと求むるや先づ船人... 平常の使... 以て結社訓練するもの此れと海軍の始めと... はさんど欲... なるや大... 強勁を致すと得べし伏し願ふは 陛下... するあり庶... 附して愚見を察し亟かに諸大臣に命じて閣議... 自から事... を開いて措置せしめし所屏祈懇の至りに任... するあり謹んで冒昧以聞す

●官軍賊を破る 此程江原道の匪徒數百名... 平康の南龍寺に據り墨を染めて防守の用意を... 之れを待... 爲し居る際官軍突襲きて之を破り賊の死傷數... 共を以て其... 其の本意... 知らず又四名を生擒したりと

●南州郡守の報告 慶尚道南州郡守の地に... 於て匪徒二名と出征官兵の手に捕縛し直に終... 身苦役の刑を宣告せし旨南州郡守より軍部へ... 報告し來りしやの説あり又又同郡守より内部... への具申中に目下同地方の獄裡に繋がれ居る... 囚徒四十一名あるも給すべき食品等又又衣... 服も乏しく饑餓且夕に迫らんとす中央主務の官... 衙より至急衣食品の送給あらんを望むとの請... 求もありしやの聲を聞けり

●匪徒猖獗 江原道原州附近の一村落へ匪... 徒三十名亂入して來たりて良民の財貨を掠奪し... 市民一名を捕へて砲殺し三百五十圓の金額と... 同村落より奪ひ去れり又又同地方へ目下出張中... の軍部吏員より軍部へ報告ありし由

●開城府廳大に巡檢の數を増す 開城地方... 以上の報知に依れば同府廳には近來大に巡檢... の數を増したる由其原因は例の觀察使廳の位... 置變更に關し民情の不穩するも豐饒に海賊の... 起りしと同地に宮内府の命を以て二萬餘斤の... 人蔘を製造するに付之を保護するに在らん

●海賊の巨魁捕はる 開城より程遠からざ... る豐頭店浦に此程海賊起り掠奪を志にし殺... 物を積みたる船舶杯の難に遇ふもの幾艘なる... を知らず開城府廳より巡檢十數名と兵士數... 十名を急派して賊を討し巨魁黃祐鼎と捕獲し... たる由

●人蔘密賣者捕はる 開城地方にて人蔘を... んがれば密賣したる者二人を捕縛し數日前警務廳へ引... 致したり聞く所に依れば警務廳にて之以後昔... 通人民に於て人蔘の密賣を行ふ者嚴重に... 處分する方針を以て今度該地方に俄に巡檢... の數を増したるも單に之れが爲めなりと云ふ

●廉耻地を拂ふ 忠清道の人張某官を買は... んと欲し二萬兩を出し北壯洞居李某に與ふ... 李自ら其三分一を取り餘は之を兩處に轉贈を... 一は則ち觀劇居李某、一は則ち某語通事某等... り後の李某悉く己に與へざるを憤り則ち李と... 相争ひ其聲門外に徹し行人歩を止め觀る者市... 代如し、事は一日日に在り

●郡守の善政を頌す 昨四日全州錦山郡民... 全相三以下四十八人の名を以て左の八條を列... 舉して同郡守徐敬雨氏の善政を頌美したる投... 書を本社に寄せ來れり氏は徐敬雨氏の實弟な... りと云ふ

一 革枝收斂、永杜後弊、
二 利殖公餘、補戶稅錢、
三 規財倒廢、優施學費、

萬餘人の
英、伊兩
萬五千若

四 商賈顧慮、士農動業、
五 上納無滯、下民安堵、
六 片言折獄、無非罪訟、
七 賑卹賑災、使安就農、
八 傷者蘇之、弱者救之、
九、民の信服を得る此に至れば只て成湯を效... とし武王を漢とせし

●孤兒母氏の執事 中韓某洞の翁婦... 李氏去月南都誠訓坊華洞某の家々嫁す再昨... 日午後二時頃先夫の生年某突然訪ひ來り其... 母氏に痛哭して曰く平日兄の孝養足らざるが... 爲め乎何故に師を以て兄を棄て以て此處に... 嫁さしかと即ち携ふる所の劍を抜き母の衣を... 攫んで曰く之れを以て母公を刺し兄も亦た... 死せんと母其無禮を憤はり相與に爭論し居... る際巡檢來りて其子を捉らへ警務廳署に引致... した

●下愚は教めべからず
今を距る兩三年前全羅道光州に鄭志良と云へ... る一士族あり家世々地方の高官に任せられ頗... る名望あり志良性魯鈍にして學識乏已れの姓... 名だも記する能はず然れども華門士族の裔を... るを以て某士族の婦女と娶るを得婦美にして... 賢、舅姑の供、郎君に奉至れり盡くせり志良の... 愚なる事細大をく自ら之を決定する能はず... 一に其妻を聞かば過なきを辱妻其夫爲を... かきと知るも尚能く至誠を以て之を助く一日... 其夫に謂て曰く今や我家所有の田地甚だ少く... して家難頗る多く生計日に困窮す郎君願くは... 上京して尊叔を訪ひ以て仕官に周旋を請へ尊... 叔今承旨の職に在り必す郎君の爲めに盡くす... 所あらんと志良乃ち妻を言の如くし果して愛... 州郡守に任せらるるを得妻を携へて任地に赴... 一日下僚數名相伴て郡守の邸に來り事と... 具して命を乞ふ志良曰く來任日淺くして路遠... 尚未だ癒へず諸公明日再び來れと下僚直ちに... 退出す志良其妻に計りて曰く下僚の具する所... 官衙養牛病死の件あり其他此くの如く又た新... の如く如何か之れは答へべきと妻答ふらば此... の如く答へば則ち足れと曰く斃牛の皮は割... ぎて官廳に納め其角は接ぎて同工に授け、
其肉は割ぎて收養ふ與ふべしと、其他此くの... 如く又た斯くの如く答へば則ち可なりと翌日... 下僚又來り再び前日の事を具し以て其命を... 乞ふ志良一々辭に應じて之れに答ふ而して其... 答ふる所悉く其妻の教の如くす下僚皆郡守... の明敏に驚き固郷相傳へ喧々其賢を稱す志良... 頗る得意あり後又た一日痛哭來り訴ふる者あり... 曰く某地居某君母と爭論し怒りて頭を打ち... 母は則ち即死せり如何にせば以て讎に報ゆる... を得んと志良其妻に問はす即時答へて曰く汝... 母頭を打たれて殺さる其不幸憫むべし宜しく... 其皮を割ぎて官廳に納れ其角を接ぎて同... 工に授け、其肉を割ぎて隣人に與ふべしと

●下愚は教めべからず
今を距る兩三年前全羅道光州に鄭志良と云へ... る一士族あり家世々地方の高官に任せられ頗... る名望あり志良性魯鈍にして學識乏已れの姓... 名だも記する能はず然れども華門士族の裔を... るを以て某士族の婦女と娶るを得婦美にして... 賢、舅姑の供、郎君に奉至れり盡くせり志良の... 愚なる事細大をく自ら之を決定する能はず... 一に其妻を聞かば過なきを辱妻其夫爲を... かきと知るも尚能く至誠を以て之を助く一日... 其夫に謂て曰く今や我家所有の田地甚だ少く... して家難頗る多く生計日に困窮す郎君願くは... 上京して尊叔を訪ひ以て仕官に周旋を請へ尊... 叔今承旨の職に在り必す郎君の爲めに盡くす... 所あらんと志良乃ち妻を言の如くし果して愛... 州郡守に任せらるるを得妻を携へて任地に赴... 一日下僚數名相伴て郡守の邸に來り事と... 具して命を乞ふ志良曰く來任日淺くして路遠... 尚未だ癒へず諸公明日再び來れと下僚直ちに... 退出す志良其妻に計りて曰く下僚の具する所... 官衙養牛病死の件あり其他此くの如く又た新... の如く如何か之れは答へべきと妻答ふらば此... の如く答へば則ち足れと曰く斃牛の皮は割... ぎて官廳に納め其角は接ぎて同工に授け、
其肉は割ぎて收養ふ與ふべしと、其他此くの... 如く又た斯くの如く答へば則ち可なりと翌日... 下僚又來り再び前日の事を具し以て其命を... 乞ふ志良一々辭に應じて之れに答ふ而して其... 答ふる所悉く其妻の教の如くす下僚皆郡守... の明敏に驚き固郷相傳へ喧々其賢を稱す志良... 頗る得意あり後又た一日痛哭來り訴ふる者あり... 曰く某地居某君母と爭論し怒りて頭を打ち... 母は則ち即死せり如何にせば以て讎に報ゆる... を得んと志良其妻に問はす即時答へて曰く汝... 母頭を打たれて殺さる其不幸憫むべし宜しく... 其皮を割ぎて官廳に納れ其角を接ぎて同... 工に授け、其肉を割ぎて隣人に與ふべしと

●下愚は教めべからず
今を距る兩三年前全羅道光州に鄭志良と云へ... る一士族あり家世々地方の高官に任せられ頗... る名望あり志良性魯鈍にして學識乏已れの姓... 名だも記する能はず然れども華門士族の裔を... るを以て某士族の婦女と娶るを得婦美にして... 賢、舅姑の供、郎君に奉至れり盡くせり志良の... 愚なる事細大をく自ら之を決定する能はず... 一に其妻を聞かば過なきを辱妻其夫爲を... かきと知るも尚能く至誠を以て之を助く一日... 其夫に謂て曰く今や我家所有の田地甚だ少く... して家難頗る多く生計日に困窮す郎君願くは... 上京して尊叔を訪ひ以て仕官に周旋を請へ尊... 叔今承旨の職に在り必す郎君の爲めに盡くす... 所あらんと志良乃ち妻を言の如くし果して愛... 州郡守に任せらるるを得妻を携へて任地に赴... 一日下僚數名相伴て郡守の邸に來り事と... 具して命を乞ふ志良曰く來任日淺くして路遠... 尚未だ癒へず諸公明日再び來れと下僚直ちに... 退出す志良其妻に計りて曰く下僚の具する所... 官衙養牛病死の件あり其他此くの如く又た新... の如く如何か之れは答へべきと妻答ふらば此... の如く答へば則ち足れと曰く斃牛の皮は割... ぎて官廳に納め其角は接ぎて同工に授け、
其肉は割ぎて收養ふ與ふべしと、其他此くの... 如く又た斯くの如く答へば則ち可なりと翌日... 下僚又來り再び前日の事を具し以て其命を... 乞ふ志良一々辭に應じて之れに答ふ而して其... 答ふる所悉く其妻の教の如くす下僚皆郡守... の明敏に驚き固郷相傳へ喧々其賢を稱す志良... 頗る得意あり後又た一日痛哭來り訴ふる者あり... 曰く某地居某君母と爭論し怒りて頭を打ち... 母は則ち即死せり如何にせば以て讎に報ゆる... を得んと志良其妻に問はす即時答へて曰く汝... 母頭を打たれて殺さる其不幸憫むべし宜しく... 其皮を割ぎて官廳に納れ其角を接ぎて同... 工に授け、其肉を割ぎて隣人に與ふべしと

●下愚は教めべからず
今を距る兩三年前全羅道光州に鄭志良と云へ... る一士族あり家世々地方の高官に任せられ頗... る名望あり志良性魯鈍にして學識乏已れの姓... 名だも記する能はず然れども華門士族の裔を... るを以て某士族の婦女と娶るを得婦美にして... 賢、舅姑の供、郎君に奉至れり盡くせり志良の... 愚なる事細大をく自ら之を決定する能はず... 一に其妻を聞かば過なきを辱妻其夫爲を... かきと知るも尚能く至誠を以て之を助く一日... 其夫に謂て曰く今や我家所有の田地甚だ少く... して家難頗る多く生計日に困窮す郎君願くは... 上京して尊叔を訪ひ以て仕官に周旋を請へ尊... 叔今承旨の職に在り必す郎君の爲めに盡くす... 所あらんと志良乃ち妻を言の如くし果して愛... 州郡守に任せらるるを得妻を携へて任地に赴... 一日下僚數名相伴て郡守の邸に來り事と... 具して命を乞ふ志良曰く來任日淺くして路遠... 尚未だ癒へず諸公明日再び來れと下僚直ちに... 退出す志良其妻に計りて曰く下僚の具する所... 官衙養牛病死の件あり其他此くの如く又た新... の如く如何か之れは答へべきと妻答ふらば此... の如く答へば則ち足れと曰く斃牛の皮は割... ぎて官廳に納め其角は接ぎて同工に授け、
其肉は割ぎて收養ふ與ふべしと、其他此くの... 如く又た斯くの如く答へば則ち可なりと翌日... 下僚又來り再び前日の事を具し以て其命を... 乞ふ志良一々辭に應じて之れに答ふ而して其... 答ふる所悉く其妻の教の如くす下僚皆郡守... の明敏に驚き固郷相傳へ喧々其賢を稱す志良... 頗る得意あり後又た一日痛哭來り訴ふる者あり... 曰く某地居某君母と爭論し怒りて頭を打ち... 母は則ち即死せり如何にせば以て讎に報ゆる... を得んと志良其妻に問はす即時答へて曰く汝... 母頭を打たれて殺さる其不幸憫むべし宜しく... 其皮を割ぎて官廳に納れ其角を接ぎて同... 工に授け、其肉を割ぎて隣人に與ふべしと

●下愚は教めべからず
今を距る兩三年前全羅道光州に鄭志良と云へ... る一士族あり家世々地方の高官に任せられ頗... る名望あり志良性魯鈍にして學識乏已れの姓... 名だも記する能はず然れども華門士族の裔を... るを以て某士族の婦女と娶るを得婦美にして... 賢、舅姑の供、郎君に奉至れり盡くせり志良の... 愚なる事細大をく自ら之を決定する能はず... 一に其妻を聞かば過なきを辱妻其夫爲を... かきと知るも尚能く至誠を以て之を助く一日... 其夫に謂て曰く今や我家所有の田地甚だ少く... して家難頗る多く生計日に困窮す郎君願くは... 上京して尊叔を訪ひ以て仕官に周旋を請へ尊... 叔今承旨の職に在り必す郎君の爲めに盡くす... 所あらんと志良乃ち妻を言の如くし果して愛... 州郡守に任せらるるを得妻を携へて任地に赴... 一日下僚數名相伴て郡守の邸に來り事と... 具して命を乞ふ志良曰く來任日淺くして路遠... 尚未だ癒へず諸公明日再び來れと下僚直ちに... 退出す志良其妻に計りて曰く下僚の具する所... 官衙養牛病死の件あり其他此くの如く又た新... の如く如何か之れは答へべきと妻答ふらば此... の如く答へば則ち足れと曰く斃牛の皮は割... ぎて官廳に納め其角は接ぎて同工に授け、
其肉は割ぎて收養ふ與ふべしと、其他此くの... 如く又た斯くの如く答へば則ち可なりと翌日... 下僚又來り再び前日の事を具し以て其命を... 乞ふ志良一々辭に應じて之れに答ふ而して其... 答ふる所悉く其妻の教の如くす下僚皆郡守... の明敏に驚き固郷相傳へ喧々其賢を稱す志良... 頗る得意あり後又た一日痛哭來り訴ふる者あり... 曰く某地居某君母と爭論し怒りて頭を打ち... 母は則ち即死せり如何にせば以て讎に報ゆる... を得んと志良其妻に問はす即時答へて曰く汝... 母頭を打たれて殺さる其不幸憫むべし宜しく... 其皮を割ぎて官廳に納れ其角を接ぎて同... 工に授け、其肉を割ぎて隣人に與ふべしと

●下愚は教めべからず
今を距る兩三年前全羅道光州に鄭志良と云へ... る一士族あり家世々地方の高官に任せられ頗... る名望あり志良性魯鈍にして學識乏已れの姓... 名だも記する能はず然れども華門士族の裔を... るを以て某士族の婦女と娶るを得婦美にして... 賢、舅姑の供、郎君に奉至れり盡くせり志良の... 愚なる事細大をく自ら之を決定する能はず... 一に其妻を聞かば過なきを辱妻其夫爲を... かきと知るも尚能く至誠を以て之を助く一日... 其夫に謂て曰く今や我家所有の田地甚だ少く... して家難頗る多く生計日に困窮す郎君願くは... 上京して尊叔を訪ひ以て仕官に周旋を請へ尊... 叔今承旨の職に在り必す郎君の爲めに盡くす... 所あらんと志良乃ち妻を言の如くし果して愛... 州郡守に任せらるるを得妻を携へて任地に赴... 一日下僚數名相伴て郡守の邸に來り事と... 具して命を乞ふ志良曰く來任日淺くして路遠... 尚未だ癒へず諸公明日再び來れと下僚直ちに... 退出す志良其妻に計りて曰く下僚の具する所... 官衙養牛病死の件あり其他此くの如く又た新... の如く如何か之れは答へべきと妻答ふらば此... の如く答へば則ち足れと曰く斃牛の皮は割... ぎて官廳に納め其角は接ぎて同工に授け、
其肉は割ぎて收養ふ與ふべしと、其他此くの... 如く又た斯くの如く答へば則ち可なりと翌日... 下僚又來り再び前日の事を具し以て其命を... 乞ふ志良一々辭に應じて之れに答ふ而して其... 答ふる所悉く其妻の教の如くす下僚皆郡守... の明敏に驚き固郷相傳へ喧々其賢を稱す志良... 頗る得意あり後又た一日痛哭來り訴ふる者あり... 曰く某地居某君母と爭論し怒りて頭を打ち... 母は則ち即死せり如何にせば以て讎に報ゆる... を得んと志良其妻に問はす即時答へて曰く汝... 母頭を打たれて殺さる其不幸憫むべし宜しく... 其皮を割ぎて官廳に納れ其角を接ぎて同... 工に授け、其肉を割ぎて隣人に與ふべしと

●下愚は教めべからず
今を距る兩三年前全羅道光州に鄭志良と云へ... る一士族あり家世々地方の高官に任せられ頗... る名望あり志良性魯鈍にして學識乏已れの姓... 名だも記する能はず然れども華門士族の裔を... るを以て某士族の婦女と娶るを得婦美にして... 賢、舅姑の供、郎君に奉至れり盡くせり志良の... 愚なる事細大をく自ら之を決定する能はず... 一に其妻を聞かば過なきを辱妻其夫爲を... かきと知るも尚能く至誠を以て之を助く一日... 其夫に謂て曰く今や我家所有の田地甚だ少く... して家難頗る多く生計日に困窮す郎君願くは... 上京して尊叔を訪ひ以て仕官に周旋を請へ尊... 叔今承旨の職に在り必す郎君の爲めに盡くす... 所あらんと志良乃ち妻を言の如くし果して愛... 州郡守に任せらるるを得妻を携へて任地に赴... 一日下僚數名相伴て郡守の邸に來り事と... 具して命を乞ふ志良曰く來任日淺くして路遠... 尚未だ癒へず諸公明日再び來れと下僚直ちに... 退出す志良其妻に計りて曰く下僚の具する所... 官衙養牛病死の件あり其他此くの如く又た新... の如く如何か之れは答へべきと妻答ふらば此... の如く答へば則ち足れと曰く斃牛の皮は割... ぎて官廳に納め其角は接ぎて同工に授け、
其肉は割ぎて收養ふ與ふべしと、其他此くの... 如く又た斯くの如く答へば則ち可なりと翌日... 下僚又來り再び前日の事を具し以て其命を... 乞ふ志良一々辭に應じて之れに答ふ而して其... 答ふる所悉く其妻の教の如くす下僚皆郡守... の明敏に驚き固郷相傳へ喧々其賢を稱す志良... 頗る得意あり後又た一日痛哭來り訴ふる者あり... 曰く某地居某君母と爭論し怒りて頭を打ち... 母は則ち即死せり如何にせば以て讎に報ゆる... を得んと志良其妻に問はす即時答へて曰く汝... 母頭を打たれて殺さる其不幸憫むべし宜しく... 其皮を割ぎて官廳に納れ其角を接ぎて同... 工に授け、其肉を割ぎて隣人に與ふべしと

●下愚は教めべからず
今を距る兩三年前全羅道光州に鄭志良と云へ... る一士族あり家世々地方の高官に任せられ頗... る名望あり志良性魯鈍にして學識乏已れの姓... 名だも記する能はず然れども華門士族の裔を... るを以て某士族の婦女と娶るを得婦美にして... 賢、舅姑の供、郎君に奉至れり盡くせり志良の... 愚なる事細大をく自ら之を決定する能はず... 一に其妻を聞かば過なきを辱妻其夫爲を... かきと知るも尚能く至誠を以て之を助く一日... 其夫に謂て曰く今や我家所有の田地甚だ少く... して家難頗る多く生計日に困窮す郎君願くは... 上京して尊叔を訪ひ以て仕官に周旋を請へ尊... 叔今承旨の職に在り必す郎君の爲めに盡くす... 所あらんと志良乃ち妻を言の如くし果して愛... 州郡守に任せらるるを得妻を携へて任地に赴... 一日下僚數名相伴て郡守の邸に來り事と... 具して命を乞ふ志良曰く來任日淺くして路遠... 尚未だ癒へず諸公明日再び來れと下僚直ちに... 退出す志良其妻に計りて曰く下僚の具する所... 官衙養牛病死の件あり其他此くの如く又た新... の如く如何か之れは答へべきと妻答ふらば此... の如く答へば則ち足れと曰く斃牛の皮は割... ぎて官廳に納め其角は接ぎて同工に授け、
其肉は割ぎて收養ふ與ふべしと、其他此くの... 如く又た斯くの如く答へば則ち可なりと翌日... 下僚又來り再び前日の事を具し以て其命を... 乞ふ志良一々辭に應じて之れに答ふ而して其... 答ふる所悉く其妻の教の如くす下僚皆郡守... の明敏に驚き固郷相傳へ喧々其賢を稱す志良... 頗る得意あり後又た一日痛哭來り訴ふる者あり... 曰く某地居某君母と爭論し怒りて頭を打ち... 母は則ち即死せり如何にせば以て讎に報ゆる... を得んと志良其妻に問はす即時答へて曰く汝... 母頭を打たれて殺さる其不幸憫むべし宜しく... 其皮を割ぎて官廳に納れ其角を接ぎて同... 工に授け、其肉を割ぎて隣人に與ふべしと

●下愚は教めべからず
今を距る兩三年前全羅道光州に鄭志良と云へ... る一士族あり家世々地方の高官に任せられ頗... る名望あり志良性魯鈍にして學識乏已れの姓... 名だも記する能はず然れども華門士族の裔を... るを以て某士族の婦女と娶るを得婦美にして... 賢、舅姑の供、郎君に奉至れり盡くせり志良の... 愚なる事細大をく自ら之を決定する能はず... 一に其妻を聞かば過なきを辱妻其夫爲を... かきと知るも尚能く至誠を以て之を助く一日... 其夫に謂て曰く今や我家所有の田地甚だ少く... して家難頗る多く生計日に困窮す郎君願くは... 上京して尊叔を訪ひ以て仕官に周旋を請へ尊... 叔今承旨の職に在り必す郎君の爲めに盡くす... 所あらんと志良乃ち妻を言の如くし果して愛... 州郡守に任せらるるを得妻を携へて任地に赴... 一日下僚數名相伴て郡守の邸に來り事と... 具して命を乞ふ志良曰く來任日淺くして路遠... 尚未だ癒へず諸公明日再び來れと下僚直ちに... 退出す志良其妻に計りて曰く下僚の具する所... 官衙養牛病死の件あり其他此くの如く又た新... の如く如何か之れは答へべきと妻答ふらば此... の如く答へば則ち足れと曰く斃牛の皮は割... ぎて官廳に納め其角は接ぎて同工に授け、
其肉は割ぎて收養ふ與ふべしと、其他此くの... 如く又た斯くの如く答へば則ち可なりと翌日... 下僚又來り再び前日の事を具し以て其命を... 乞ふ志良一々辭に應じて之れに答ふ而して其... 答ふる所悉く其妻の教の如くす下僚皆郡守... の明敏に驚き固郷相傳へ喧々其賢を稱す志良... 頗る得意あり後又た一日痛哭來り訴ふる者あり... 曰く某地居某君母と爭論し怒りて頭を打ち... 母は則ち即死せり如何にせば以て讎に報ゆる... を得んと志良其妻に問はす即時答へて曰く汝... 母頭を打たれて殺さる其不幸憫むべし宜しく... 其皮を割ぎて官廳に納れ其角を接ぎて同... 工に授け、其肉を割ぎて隣人に與ふべしと

新ふる者... 然るものみ聞く者相傳へ笑ふ... て以て狂と爲す
●脚氣病... 當地は他の府郡地に比... して脚氣患者至りて多き方ありし本年之... 例年に無き多數の同患者と發生し此疾は泥鰌... のみにて目下五十人程も煩ひ居り一は病心... して昨日遂に死亡したりと云ふ原因之言ふ... ても例の長傳の結果たるべしと、社にも... 過般二人の同患者を生じ内一人は一命已に... 危く見へたかしも、醫師の懇切なる治療に... 依、今は漸く痊愈を期しに至り

●秋園遊人
(下)
物問へは家入ふし稻の秋 仁川 素水
月の出てうら切に兔蹄の輪 泥鰌 其水
鰻口の中より出たり蟬の壳 仁川 初心
立秋や昨日は變る瀧の音 台下 小松
啄木鳥の啁々聲あり秋の雨 浪華 江南
無造作の節も揃ふて盆踊り 初心
初秋の色上何やら野面山面 仁川 南陽
何時の間う秋の訪見桐一葉 全
手を拍て濟門田よも鳴子鼓 全 氣散史
掃く中に又た颯けり萩の花 其水
亡き旅の臨終忍し魂祭り 貉洞 桃月

時事之感
亡き旅の臨終忍し魂祭り 貉洞 桃月

特別廣告

三陸 海關 救恤金報告
茲に募集せし三陸海關救恤金は現金取盡りの... 爲に意外の日子を要せま、漸く一昨日に至り... 集金済みとなりしを以て直に其送達方を常領... 事館に願出で領事館より外務省を経て各避難... 地方廳に發送せらるることとなり又義捐金... の分配は發起者に於て左の如く定めたり
一 金貳百八拾貳圓五拾五錢 總募集額
内
金百六拾九圓五拾參錢 巖手縣へ送付
金八拾六圓七拾六錢 宮城縣へ送付
金貳拾六圓貳拾六錢 青森縣へ送付
各地より外務省に宛したる現金の送付は第五... 十八銀行當地支店に於て無手数料にて取扱方... 承諾ありたり是れ吾人の其厚意を謝する所な... り

各避難地方廳より追て右義捐金領收の報告あり... たる時は直に漢紙新報紙上に掲載すべし
明治廿九年九月六日

發起者
和田常一
中村再造
松田行藏
漢城新報社

漢城新報社

漢城新報社

漢城新報社

漢城新報社

日本郵船株式會社
廣 告
日本郵船株式會社
廣 告

●薩摩丸 九月八日午前四時出帆
九月八日午後四時出帆
九月八日午後八時出帆
九月八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八日午後二時出帆
九月八日午後五時出帆
九月八日午後八時出帆
九月八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八日午後二時出帆
九月八日午後五時出帆
九月八日午後八時出帆
九月八日午後十一時出帆

●肥後丸 九月九日午後四時出帆
九月九日午後七時出帆
九月九日午後十時出帆
九月九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九日午後二時出帆
九月九日午後五時出帆
九月九日午後八時出帆
九月九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九日午後二時出帆
九月九日午後五時出帆
九月九日午後八時出帆
九月九日午後十一時出帆

●長門丸 九月十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日午後十一時出帆

●兵庫丸 九月十一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一日午後十一時出帆

●豐島丸 九月十二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二日午後十一時出帆

●玄海丸 九月十三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三日午後十一時出帆

●顯益號 九月十四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四日午後十一時出帆

●蒼龍號 九月十五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五日午後十一時出帆

●海龍號 九月十六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六日午後十一時出帆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廣 告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廣 告

●信濃川丸 九月十七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七日午後十一時出帆

●筑後川丸 九月十八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八日午後十一時出帆

●木曾川丸 九月十九日午後四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七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十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二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五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八時出帆
九月十九日午後十一時出帆

●隅田川丸 九月二十日午後四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七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十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二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五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八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二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五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八時出帆
九月二十日午後十一時出帆

●仁川荷客取扱所
廣 告
仁川荷客取扱所
廣 告

●正重丸 九月廿一日午後四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七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十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二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五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八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二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五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八時出帆
九月廿一日午後十一時出帆

●安來丸 九月廿二日午後四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七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十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二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五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八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十一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二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五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八時出帆
九月廿二日午後十一時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廣 告
京城 莊司回漕店
廣 告

●京仁間和船取扱所
廣 告
京仁間和船取扱所
廣 告

●大林回漕店
廣 告
大林回漕店
廣 告

●明治二十九年九月
廣 告
明治二十九年九月
廣 告

御取扱は親切と言ふ
●東京館
●御取扱は親切と言ふ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御旅神戶屋

正風集
●正風集
●正風集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豐秋園瑞穂宗匠樂器

漢城新報

刊發日隔

雜報

● 雜報

此留府卒之多月... 建陽元年九月六日奉

勅 宮內府大臣 李 載 純

內閣總辦大臣 尹 容 善

軍部大臣 李 允 用

戶口調查規則(內部令第八號)

제일관 호적

제일조 호적지난디 부로서, 그식 양을, 신제하야, 각, 관찰소부에, 반상하면, 관찰소부에 서난, 각부 목군에, 반상하고, 각부목군에서, 논각면집강에 계하고, 면집강은, 니존위에 계하고, 니존위난, 각하 호주에게, 전급함

제이조 호적은, 제일별표시양을, 의하야, 각기호가, 그지정함, 명목으로, 각란디에, 서전호디, 호적지, 양본연함, 일장지면에, 동양으로, 전서하야, 하관, 관청에, 정남하면, 하관청에서, 기인금장 호주에, 양본연함, 분할하야, 우편은, 하관청에, 존안하고, 좌편은, 하호주에게, 반급함(別表 省略)

제삼조 호주에, 부모형제 자손이, 라도, 각호에, 분거하야, 호적이, 별유하사난, 하적디에, 전입지 아니하야, 인구가, 첩지치안니케 하디, 일호주가, 원호디, 성적하엿 난디, 라호에, 별거하야, 별거하 난, 호적을, 신성하사난, 하적 디에, 원적모지방을, 한의별청에, 주며하야, 고열에, 편이케함 제사조 인민중에, 무가구의하야, 원적을, 별적처못하고, 족처지구 간에, 호디에, 피거하거나, 후설 신만, 피거하야도, 구에참임함

야, 인구루락하미, 음피함

제오조 분호하난, 호가유하면, 원 적을, 하관관청의, 조빙하고, 본 적함

제육조 이거하난호가, 유하면, 전 거지소관, 관청에, 보고고, 현주 하관관청에, 구적을, 조빙하야, 리적함

단본등디에서, 제그호가, 제그호 에, 니거하난, 시도, 하관, 관청의, 보명하야, 리적케함

제칠조 호적을, 유실하거나, 후피 소하사난, 하관, 관청에, 설명하야, 다시성적케함

제팔조 호주가, 신고하난, 사난, 원적을, 하관, 관청에, 조빙하고, 그자손형제간에, 신디하난, 호주 승명으로, 다시리적함

제구조 가족을, 신고하거나, 중축 하거나, 후퇴파하거나, 후소표하거나, 인구가, 신고하거나, 신고하 나사난, 하관, 관청에, 보명하야, 리적함

제십조 제오조분적과, 제육, 제 칠, 제팔, 제구, 조지적은, 유시 하야, 주정호디, 니십일을, 유치 함

제십일조 각부목군에서, 호적성 급후에, 일본을, 등서하야, 관 찰부에, 송치하면, 관찰부에서난, 각읍소관호, 호적은, 하부에, 존 안하고, 일본을, 등서하야, 니부 에, 정남함

단호성부에 서난, 오서구역디호 적을, 하부에, 존안하고, 일본을, 등서하야, 니부에, 정남함

제이관 작등

제십이조 통표난, 등유가, 하등디, 각호주의, 호적을, 조사하야 제

니별표를, 의하야, 그지정하면, 유 디르, 전서함(別表省略)

제십삼조 작등하다가, 영호가유 하야, 오호에 미만하디, 본리모 등하와, 부속하고, 오호, 상은, 미성등이라, 총하야, 본라전등, 등유에, 지회를, 등케함

단본조, 영호하난, 하리에, 가호중 축을, 하야, 심수에, 만하거나, 일등을, 전함

제십사조 등유가, 통표를, 수정하 야, 일본은, 하등디에, 존안하고, 일본은, 리존위에, 송치하면, 리조위가, 하디, 제통표를, 슈 취하야, 처자를, 편성하야, 본리 에, 존안하고, 일본을, 등서하야, 면집강, 의제송치하면, 면집강 이, 하면디, 각이제통표를, 슈취 하야, 처자를, 편야, 본면에, 존안 고, 일본을, 등서하야, 가하부, 목군청에, 정남하면, 각부목군청 에서, 하지방디에, 각면디, 제통 표슈취하야, 처자를, 편성하야, 본관청에, 존안하고, 일본을, 등서 하야, 하도, 관찰부에, 송치하면, 관찰부에서, 하도디, 각부목군, 제 통표를, 슈취하야, 처자를, 편성하 야, 관, 찰부에 존안하고, 일본은, 등서하야, 니부에, 정남함

제십오조 제이조, 호적신성하난, 시와, 제오조, 분적하난, 시와, 제 육제칠, 제팔, 제구조, 호적지정하 나사난, 호주난, 등유에, 제, 등유 나, 지존위에, 제, 리존위난면집강 에, 면집강은, 하관, 관청에, 주 청함

단호성, 오서구역에, 호주가 등유에, 등유난, 하방디, 순검 교변소에, 교변소에 서난, 하성부에, 작등함

제이관 작등

제이관 작등

제십육조

제이관 작등

제이관 작등

제이관 작등

제이관 작등

제이관 작등

제이관 작등

제이관 작등

제삼관 호피

제삼독조 미호에, 허지명파, 제대
를제리호와, 호주승명, 즉업을, 상
제대지야, 호피을문수에 제부
호피식양은, 제삼별표의, 여 호별
表(略)

제삼칠조 이거호난시난, 호피을,
기부호피, 호주에, 승명파, 즉업
만, 기정호고, 제대를제리호난, 구
호야, 호호의, 위쳐을, 변환치, 들
개호
단본를제리에서, 이거하야도, 본조
를, 의호

郭御史傳

郭御史傳 郭御史傳 郭御史傳

일기우동을, 탄성호였난지라, 괴골
이, 장디호고, 소리음장호며, 보기
의, 참비범호, 아히, 아니여날, 장씨
의가, 제상에을, 난걸노, 알썬아
나라, 광씨가로, 말호여도, 고목청
화더라, 그씨부응이가, 도망호며, 전
전걸식호미, 셔시를, 생각호고, 신제
가, 고단호며, 항상눈물노, 세월을,
보디다가, 나이점점마느미, 의탁할
곳지을서, 산간에드러가, 삭발위
승, 할라호고, 한암자를, 차자서도
러가니, 한노승이, 상자삼인을, 다리
고, 빙팔염주를, 목의글고, 손의불
경을, 들고, 단정이, 안졌거날, 부응
이가, 노승을, 차자보고, 그노승에
제, 상자되기를, 청한디, 노승이, 더
답호되, 저가튼손인미, 무삼일노,
중이되라호사요, 불가이라, 하난거
시, 제상의, 잡념이을고, 산문을, 썬
나지아니호년거사, 중이라, 일것거
날, 속객이호지, 불도의, 의향을,
두서라호시호한디, 부응이가, 절, 호
고, 갈아사디, 내가본디, 눈주사름
으로, 가세가, 영처호고, 흘낏자식또
음서서, 자연신제, 고단호며, 의탁
할곳지, 업스미, 존문의와서, 삭발
위승호며, 제상사를, 모로고잇사, 가
죽으랴호나, 복원존사난, 나가튼,

속귀을, 드립싸마시고, 어엿비, 여
기소홀서디, 그노승이, 부득히여, 삭
발호야, 상자를사루니, 그노승의, 나
히발의, 제요, 부응의, 나이, 오십삼제
라, 삭발호후의, 신제난, 편하나, 미
양그장씨의, 소을을, 생각호고, 스러
호더라, 이씨장씨가에서, 그아히을
장중보옥갓치, 기르미, 그아히의,
일호을, 중은이, 라호고자호, 평진이
라호나, 그아히, 나히사오제되미, 소
견과, 지각이, 어문도, 맞지못호나, 라
장씨가, 선성을, 두고, 공부를, 함쳐,
가르치니, 문일지심호며, 사처삼경
과, 자고엿되을, 무덜을, 지호며, 부
서들고, 글씨을, 씌죽, 용사비등을, 지
라, 보난스람마다, 칭찬아니호나, 나
음쳐서, 원근의, 소문니, 나자호며
다말호기를, 이아히호호며, 광씨의
잡니다시, 니러나리라호더라, 일일
은, 그모친이, 중은이, 을다리고후원
의을, 나가서, 춘악을, 귀경호미, 양주
난, 의의호여, 안상의, 덜퍼잇고, 화
응은, 재지호여, 지당에, 불거난자라
보난바, 다자연삼사, 살난호여, 셔사
을, 생각호나, 눈물리웃기설, 적시거
날, 씨운이가, 몇디안져서, 그모친
이, 비참호며, 눈물흘니난, 모양을
보고, 그모친더러, 호년말이, 소자
가지금, 모친스러호시난거설, 비오
니, 화공호와, 말슴엿잡기난, 어럽사
오나, 감히못삽나니, 그무신, 연고
은지, 알고자호나이다, 소자가, 미거
하야, 모친봉양을, 잘못호압고, 아
죽어리와, 실하의, 영화를, 회오지못
호고, 모친제, 애족지을, 홀모로오나
모친이, 글노호며, 비감이, 어기시난
것, 갖사오니, 소자의, 마음의, 불초막
심, 을, 들호호오이다호디, 그모친이, 눈
물, 을, 쓰시며, 호년말리, 나가세상에
나서, 실가지나을, 모로고, 구고의,
얼굴노, 비압지못호고, 살아솔디, 음
난인성인고로, 여러번죽으랴고, 호
엿다니, 호날라, 광씨의, 집을, 굴어
살피서, 종소를, 현처지아니하서,

니릴, 영처호며, 호년말, 본번치, 못호
나, 비가, 불은, 구로, 전명을, 본번치
니호고, 호년말, 기다렸디나,
의의, 노년, 다쳐, 지극디, 호년말
호여씨나, 호년말, 셔스랄, 생각호
정신니, 악독호고, 가슴이, 뻘뻘호
여, 자연비감호, 생각아나서, 눈물호
르난줄, 모로게, 웃기설, 적시여지,
웃지니, 을, 호호, 스러호리호호디
중은이가, 그제야, 이라나, 다사절
호고, 유러안져, 그모친제, 열쳐호
디, 제상의, 공충마물노, 부모을, 알
제던, 호물인며, 성이, 웃지부모을, 모
로이, 요원컨디, 모친은, 자셔이, 부친
이, 아니, 제신, 일을, 말슴호셔셔, 소
자의, 의심나난, 마음을, 광을, 계호여
주소서호디, 그모친니, 중은에, 말
를, 듣고, 다시, 더욱스러, 호며, 눈물
을, 금쳐못호며, 이윽하안, 젓거날
중은이가, 또, 호를, 호년말이, 모
친은, 파도와, 스러마시고, 소자를
위호여, 전일스를, 낫낫치, 말슴호
소서호디, 그모친이, 그제야, 호인시
의지디단, 말을, 자셔이호니, 중은이
가, 이말을, 듣고, 그모친제, 호년말이,
부모에, 원수를, 감지못호고, 조부모
의, 사성존망을, 모로니, 웃지스람이
라이르리호, 나가지금은, 나이어리
고, 소견나나, 지못호며, 모친실수를,
떠나지못호호니, 다음에, 집을, 떠나
린, 호를, 편답호여, 나에, 조부를, 차지
리라호더라, 세월이, 어려류호며, 중은
에나히, 심제되미, 학문니, 더하호
다시디, 비을, 거시을, 떠나, 일일, 호
드르니, 그골자사에, 제, 허평과, 비
이난, 광문이, 날여, 왔거날, 중은이가
그모친제, 고호여, 갈오디, 남자가, 세
상의, 나미, 학업을, 심쳐, 쳤거날, 남군
을, 중은으로, 성가난, 거시호, 들지
난, 부모를, 영와로, 봉양호호, 일호
을, 중은의, 을, 호년거시을, 호호, 이
번, 거의, 을, 나가서, 광을, 호년
라호죽고, 모친니, 갈아디, 너의, 말
이, 광언이, 을, 나미, 환

雜報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李齊善氏言事疏

○吳王所著 御其移孝

○吳王所著 御其移孝

아마니 병아, 평복하니, 일리부로

야왔다더라. 듯는바에는, 경무청의

로박스음

鹿林 醉樓

이요 緣數及回數로 좃차서
슬덜 밝고 此廣告價도 선 급
로 밝스음

● ● ●

슬덜 밧고
로 밧스음

1

슬덜 밧고 此廣告價도 셤 금
로 밧스음

程辭表を上り直に聞き居けられたり



●金銀錢氏 宮内府特進官金銀錢氏も亦た此程辭表を上り聞き届けられたり 去る六日王太子

●臨時宮内府官更を解く 去る六日王太子紀宮大夫関泳崎氏以下分秘書院丞二名、分侍從院侍從十二名、分秘書院郎六名、分侍從院侍從十二名の職を解かる

●金銀別派委員 去る八日金銀別派委員は金城金銀別派委員を、李明性氏は甲山金銀別派委員と命ぜられたり

●詔責一束 開城府尹尹南植、釜山都中吳振泳の二氏之任官後赴任期日を過ぎて發程せしとの稟を以て、内閣主事安股鼎氏は慶尚北道觀察使の疏批を官報に發送するに方り「道觀察使の下「勿辭」の二字を誤書して出越し

●九條改 又た商工から遊食日を送る者城中數千を以て數へ此れ等概ひね糊口に苦しむ巡檢たこととを願ふ者甚だ多しと限りあるの巡檢又限りあるの求りに應ずるを得ん

●郡守を買はんと欲す 全羅道咸平郡李某の家は巨富を以て名あり近日老父死し其子猶は喪中に在り其錢六十兩を齎らして入京し某權門に媚び以て咸平郡守と爲らんと欲す知らず事成るや否や

●郵便物の遺失 去月十六、十七の兩日元山郵便司より漢城郵便司に向け送せし郵便物は平康郡梨木亭にて暴徒に盗まれ遺失夫李時永兄弟に斃れ元山郵便物六通、咸平郵便物二通、鏡城郵便物一通を奪取せられたりと

●前月中の漢城郵便物數 八月中漢城郵便司に於いて取扱ひたる郵便物の數は集信の分六千五百八十三通、配達の分三千九百四十一通、他郵便司より到着の分三千七百八十七通、合計二萬〇五百四十七通にして之を前月に比するに三千二百九十九通を増せり

●仁川雜事 仁川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釜山雜事 釜山府尹李在世氏は去る五日の夜新任披露の宴を開き我原領事代理、熊谷總兵大佐、山縣大尉、福井軍吏、仁川稅關長、英國領事其他數名の紳士紳商を案内し餘程の盛會なりし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廣告

肥後丸 九月十日出帆(九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保

長門丸 九月十日入港(即日出帆) 釜山、下、神戶行 保

豐島丸 九月十三日入港(十四日出帆) 釜山、下、神戶行 保

玄海丸 九月廿三日入港廿四日出帆 芝罘、天津行 保

薩摩丸 十月五日入港 六日出帆 馬關、香港行 保

兵庫丸 九月一日出帆(前日入港) 長崎、釜山、元山、浦項、行 保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坂商船會社 瀛船仁川廣告

信濃川丸 九月九日入港(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保

筑後川丸 九月八日入港(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保

木曾川丸 九月八日入港(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保

隅田川丸 九月八日入港(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保

大坂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龍仁瀛船龍山出帆廣告

正重丸 九月十日 午前六時出帆

安來丸 九月十一日 午前六時半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京仁間和船取扱所

仁川本町 慶田組

大林回漕店

大林回漕店ニテハ...

仕候間倍舊ノ御愛顧場...

御取扱は親切を旨とす 旅東京館

御旅神戶屋 朝鮮仁川各國居留地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田原旅館 支配人網代四郎三郎

店主 辻 榮次郎

廣告 時下發售ノ候...

銃 西洋新式銃 日本村田式銃

正風集 兼題名月 豐秋園瑞穂宗匠

金銀各種眼鏡 賣販手 洞貞

新到荷蘭 船來ビスケット 梨、桃、梅、杏、罐詰

漢城新報

刊發日隔

雜報

●山政要聞 구원팔일에, 동대부대

신, 니지순, 주호다

창등, 동상, 사초슈가일사를, 음력,

팔월삼일묘사로, 추락한

주하, 온지라지전

능상소초, 슈가시, 설도감, 거형지

래도, 유정업고, 인 특지하와, 중

경의정대신, 진가합동지래도, 유하

오니, 금번죽, 하이위지, 하을선지,

문상

주봉

지정특진진거우 주호다

전능

정현왕후, 능상공장, 퇴위처, 슈가

합일사를, 유정업은죽, 음력, 팔월

삼사일묘사가, 니하다, 하오니, 이

차일사로, 거형합을의로, 근상 주

봉, 지

●조선총독관공일본 觀後, 일본

육군아문에서, 구마작국의鐵工會社

로, 구하앗는諸總總對犯, 일전에 到着

하야, 동경總兵工廠안에서, 다부며자

렛스미, 대산육군대신은, 渡邊總督官

을다리고, 殿同檢觀을앗다는데, 다시

할간에, 그속사표를總總對犯을하야,

그한력을, 시현을하하하라다라

●妻人之義 日, 국일본, 협회의에서,

일본노동부의, 次所(漢)은재양을

뜻있, 저거번의, 구출금, 팔천원을,

부쳐여, 주고, 지금또일만, 구천, 팔

백팔십원, 팔십오전 (영회회칙의

습습습방일지)를, 부쳐여, 주었는

究(를지, 하야, 재반스물, 일본의,

관계자이니, 저피아의의교정을, 주하

게함이라, 이제, 회협회에서, 일본

히소, 재양을, 불상이며거서, 이가

은, 거금의을, 거집, 여, 진출, 니,

그뜻선가위, 참부립도다, 우리는

불가불, 그고의를, 크게스레할니

라, 이제근찰을운돈, 모신문을, 보

니, 일호되, 일본노동부, 지진과, 및

히소지안이, 가장극히, 참혹한지라

죽은자이, 이만찰천명이요, 상한

자가, 슈천명이라, 우리영국사들이

란자는, 일지, 이가치, 비상한, 참

화는, 못보았시니, 참가위, 천형으로

다, 우리는, 멀리일본니지하, 민인

의, 산고호형상을, 생각할죽, 연가

공정의, 견딜슈, 음느지라, 우리가

지차마, 슈슈방관하라고하고이에

철월이십일의, 일본상업의, 최하

니와, 기타, 우호인인을, 일본회

로찬등, 하야, 그게음돈부청의, 집

회하에, 영국귀현스와, 신상들이,

연설지과다하되, 모다일본, 나하하

민인을, 구출하자고, 말하며, 저피

아국이, 서로, 교정을, 두렵게, 하자

하니, 두는자들이다하슈를, 들에서

찬양하고, 인하야, 이만찰천명의

여원의, 거입을, 부쳐여, 주었는

다라

●釜山開成學校 거번부터學期試驗

을하야잇는同校는, 지다간二日에, 그

수업중지를後與하앗는데, 그날, 그

修業證書를, 받는데도, 심오명, 다

●德帝發疾 지난날조표일와무더

릿다에서, 작은괴별에, 동국황제

의체를(第二)편해하계은사드, 일전부

더咽喉病으로, 편치아니하옵시다

디, 이병은동국황帝호래해라크는

하가, 아르시든咽喉病하고, 후, 또

트신다하더라

●伊國內閣 지스는, 아왕에, 그전

보대로, 다지하앗기니와, 老政家인

스공지, 에노스다(씨가, 의부대신을

하고「베루」씨가육군대신을하

신임육군대신을하야는豫算重費를

일어이천삼백만원을增加케

앗다라, 이번豫算에, 이국황제조전

하가, 극히, 선력을하시고, 또동전

하느, 육군일을明通하야게스므로

라곳처「씨가 육군을거하하는일을,

시원처안케알은사고, 또하, 전하느

伯林(독국서을)에서, 한국하시고,

총리대신「루지니」란사음을하하야

도국황제폐하도, 우리伊國육군의

현일을, 시원처안케아르시더라

말을하오 다다라

詞藻

題畫分題 導手整行

米溪居士 山吉 露晞

葉落林樾一樓平。空江秋水無聲。蘆花起在

蒹葭岸。知是前灣漁艇行。

又 鐵鎖不和水放平。滿岸春風柔綠深。忽有漁翁

移短棹。美人一笑露花行。

又 晴天如水水同平。波伏蒲間秋乃聲。舟比白鷗

高一點。遠帆不動近帆行。

又 斜照龍花江水平。漁歌可處一聲聲。旆長怕觸

蘆花亂。酒醒不傍藕絲牽。

涼夕有所思 西風 山人

歌樓舞殿秋開。望望西風月影來。紅粧綠蓋

眠不得。相思人在碧雲臺。

●正誤 本月六日第貳百七拾九號詞藻欄內

自註在卷經江舟中題下秋來蘆花千里思之下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100

● 興金觀世何擇
발부주스 나흥죽

미사가 미증의 두 품식 더하니 되겨

출취여원이다라

かば亭宗親は其の孤兒の不
我が家に引き取られて養子と
付けて生みだすにや。此の時
日代流のハ水の流るゝよう
向は早も阿蘭の

田にかへ二三歳の童子を飼ひ、冬に父老
 を養ふたれば源年は十日之異進角皇子
 と産みたる實の親にはみち長次郎と名付

かし金某の子あり汝二國の時不幸に食て死
前汝引張張いて剣死に誰れと尋汝は英年者
しければ予は不憫の餘り汝を我家に引取り

貧乏世帯に不如意願する者中、**貧乏正妻**は、**事**に**代**に**教育**等も存心あるが、**啓蒙**し、**知識**は呉れずと云ふける。其の子は如何と思ふ人ナ

ん雁く滑首むきて黙然たるのみ所すは藝習を
經ると其の二期より家出せしむる是命を奉る

更に分らず以來八月年の長好の星君を幸ふと
本年七月の盛日の事親王は何もの相見もあら

く鎌倉に行きし時一美少年の奇麗なる相と衣
服を着し通り過ぐる者あり源宗熟く見
と視方に八年前に家出せし養子貴室の弟と

の末だ失せやらす其の眉間に在りし捺墨を
 点の黒痣さる其の發心で粉が下方の

委されは源宗之實へす走り寄りて其の手を執り御身之我れを知らざらんかと言ひしに少年は勃然として顔色を變へ何處の人も無禮極く

あと言ひささ遅れる其の手と振り解せぬ源宗
は愈々胸せう上げ女は八年前に家出せし南山
洞の貴童にはあらずやと言ひ又も寄り來た

うて懷き付かんとするを少年は再び之を振り
拂ひたるまゝ何處にもなく防白波を直ぐ去り

つてありし事情を物語り悔やに涙を袖校りと
三三

●通津の義人 京畿道通津郡に成俊とあるものあり古侠客の義を慕ひ好んで人の患難に赴く義士恃んで炊を要する所の幾百人あると

知らず、事郡守に聞こへ、郡守之を觀察府に上
申す、觀察府將に之に賜賚して以て末俗を勵
むるを以てと云々

●麻洞の火事　一昨夜九時頃麻洞の金某の家より出火し家具家財を併せて悉皆焼盡せ

を引倒し火道を絶ちたるを以て幸に大事に至

らして已みたり
俳壇 正風會寄稿(續)

○三拾傑 (上)
無造作、折ち跡ある木槿哉 仁川 初心
眞砂路の苔心地よし 巖の秋 全 南陽

執行くや水の流れと歸の色　全　素水
 釜の音も添へ寂あり虫の聲　驛　橘月
 為羽にのぼる夏のはつた　素水

鹿鳴くや傾さうゝる峯の月
石碑の文字も寂れて虫の聲に用
桃月

夕々ほろろ細きたつきの名車 源義 其本
左の面吟と故哲の運座の崩せ主
置き土産するも捨つるゝ斯道の

教は侍るを擧り此邊より据へ置
 侍へりぬ
 飛ひ込んで月の輪崩せ無哉
 素水

………の世代の置き土産あり様の晩

全

大林回酒店ニテハ是レ迄同盟船ヲ取扱居候處
今因書記兩店ノ間ニ連絡ヲ付ケ從來ニ比シテ
覺悟ノ著段ヲ爲シ顧客ノ御便利ヲ主トシ營業
倍候間格奮メ御愛顧僞ヘニ幸懸願候

明治二十九年八月

第館從來營業罷在候處各位ノ御座敷ヲ
 變ノ日ニ月ニ繁榮仕候段奉差謝儀等テ
 今般客室其他百事改良ヲ施シ御待遇ハ
 申スニ及バズ御料理等モ衛生上注意ニ
 注意ヲ加ヘ就中浴場ノ如キハ一層當テ
 注意又タ宿泊科ニ至ツテハ精々低廉ヲ
 旨トシ概テ左ノ三等ニ區分スト云ヘモ
 尚ホ如何様トモ御相談仕候間何卒舊ニ
 倍シ差儀御投宿ノ程奉願上候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金拾貳圓 迄

但室内御熟覽ノ上御相談ニ應ズ

大阪市西區北堀工通四丁目
可申候間多少ニ拘ハラズ御用向アラ
ンコチ乞フ

加 庄野嘉久藏

一字山
治城
新
茶

御玉露製 一斤金壹圓五拾錢ユ、五圓迄
御煎茶 一斤金拾六錢ユ、壹圓迄
御薄茶 極細。廣葉。上別儀。

此三體御入用ノ節ハ御申越シ次第早邊
挽上ケ御注文ニ應テ申候
石新荷着仕マ候間大方ノ諸彦倍舊ノ御愛求テ
英フ

茶店
河村至誠堂

帝國醫科大學模範藥局
 甲斐國 合資會社謹啓
 統村甲斐堂藥局
 農商發賣
 陸軍御用
 登録商標
 牌賞銅受領
 牌賞
 DAI NIPPON
 會覽博新國日
 會覽博牙班西
 會覽博天國萬牙班西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第一甲斐産

이포도주란 술이 사름 위성(심영을 호위하
술인 줄은 모든 대방가의 원덜아 깎히 아는

도알것시라이제일甲斐葡萄酒는가장그빚
 성에효험잇는것시신통하니사름아만닐
 되랴못게장복하면그혈에순환되되
 가온전하며혈분부족한것슬보하골슈에
 쓰러상괘하고비위가조곤장하야식량
 기가정녕하니이럼으로써슈고를과도이
 안전서형보를적게하던사름이그평성에
 이니상에이第一甲斐葡萄酒를먹으면이우히
 흑장을을하면그공이크게나기가의심업
 지병에쓰니그또는병을이으리적노라
 第一은 환달병과 혈분부족후병과
 第二은 요통지절통에공효가특이하고
 소(小兒)의드사증과 과절
 장부에병이서정신부족한
 第三은 뇌병과 음회병과 부종과
 으로폐병노막과 장부노막
 아니하오이다

朝鮮國京城 洋酒都賣

祝村甲斐産葡萄酒
合資會社釀造 第一甲斐産葡萄酒



1
斐產
菊
酒ノ特効

ル好飲料タルハ諸大醫皆之ヲ許サ、メナシ然レモ其
人人体ヲ害スルハ言テ矣ス第一甲斐產葡萄酒ハ特ニ酒貴
行効アル實ニ神ノ如シ人若シ常ニ此第一甲斐產葡萄酒
スルニ於テハ血液ノ循環ヲ善クシ機能ノ調理ヲ得セシメ
精神爽快ニ胃モ亦強健ナルヲ得テ消化力ヲ助クル爲
メ覺ニルヲ妙ナリ即チ過度ノ運動ヲ爲ス人若クハ座敷運
ハテ役スル人ノ如キ居常此第一甲斐產葡萄酒ヲ少量宛用
ヘルヲ疑ナシ又第一甲斐產葡萄酒ヲ醫用トスルヲ專ラ左

寶
京
城
洋
酒
店
限
本
商
行

甲斐産 葡萄 酒に特效

(심명을 호위할) 하느게가 하업지못홀도흔
 달아기히아는바이니만날그술빛존박랑이
 리요도로여히가잇슬것슬말하자아니하여
 췌는가장그빛는지료예정성을드려서그위
 니사람이만날제갑비산포도주를상히마시
 에순환며되기가도흐며괴름(邊能)에도리하
 (슬보하글슈에영위(榮衛)를도으며정신이
 장하야서식량이늘고정신이스스로쾌활하
 슈고를과도이하던사람이느날마드거즈에
 롬이느평상에근골을슈고로이하던사람덜
 을먹으면이우히여러가지병에심히맛당하니
 나기가의심업고또의원덜이수술을여러가

이리적노라
은부족호병과 중후복소과병 美吉利翁과

음효가득이하고
사종과 괴질과
적혈니질과
하혈증과

정신부족한 공호귀 이하 고
부종과 번열증과 비명열과

장부노막(瘡瘻)등병에 공효가 모다 적지

洋酒都賣 限本 商行
鑄洞 (뽕작골) 一手販賣

廣 告
 着 荷 銃
 二 元 西
 日本村田式
 連 込 新 式
 銃 銃 銃
 品
 屬 附 銃
 會 商 泉 和
 帽 西 長 護
 洋 服 各 種
 子 履 履

特
正
風
集

兼題名月
正句
風調

豐秋園瑞穗宗匠樂撰

九月十五日 ● 撰定全月
十六日 翌日 漢城新報ニ
掲載詠草ニハ 居處雅號
及ヒ通稱ノ明記ヲ乞フ

投込所
漢城野嶺
社裡橋設
正風會

漢城野景
社裡舊設

露披御着到荷新

東京 風月 カル、ス煎餅
● 舶來ビスケツト
● 瓶入洋菓子數種
● 梨、桃、梅、杏、罐詰
● 堅魚でんぶ
● 小鳥大和煮

● 鮮魚佃者
● 海苔大和者
外二
● 松茸
● 竹の子
● 豆
● 福神漬
● 佃羅
● 赤牌
● 辛子
● 京城泥鰍
● 龜
● 屋

一石
油廣
告
大販賣

今般弊店ニ多數荷當相成リ候間多少ニ限ラセ
御請求ノ程偏ヘニ奉願上候也

各位

廣告

成尾安五郎

一石油 大賤賣

오니 多少間에來하야 주시물천만

各位 慶田組 慶田出張店

發行所 漢城新報社

인간지라 그릇스름되려 무루니, 참
가호되 팔능존히라 할더라, 슈막을차자, 할

(5)

가 더니, 이윽기었다가, 나와서, 전
장이 부르신다 하거늘, 종운이 그제
를고, 단절이 안절거날, 종운이, 안
절하야가, 두번절하고, 안조니, 그노
이며, 일홍 무어시며, 무슨일노이
것절차왔나 나호되, 종운이다시
구러안져, 엿짜오되, 소동이본되,
판쥬사의사읍고승은과이오일홍은
종운이오, 나이심세은되, 이번판
모러가담하다가, 주막에드러의
가, 몸자가며, 차함압기의, 車の轂入
지은변은나, 의승과

은 족이 잇시리오 진승상이 그 부
 신이라 하난 말리, 여야를 비록 집
 사름을 유리오 오고, 널리 구한 지
 다의 씨 줄은 인의 여러 날 가다가, 할로
 단, 날이 저물러, 길출일을 호곳에 이
 니다, 여념 많코 인물이 변화호지라
 가온디, 큰집나인이 잇거날, 그
 로 차자드러가니, 그 주인이 통
 늘쓰고, 인것난디, 그 버르드과
 쥔인디, 위염이 엄숙하더라
 온그노인양하절고안자녀
 두려갈일대, 배어디잇

첫겨과도, 물변우일이삼오일복다

그날 월요일 아침, 디상날이 되야 시

○狂雨幸不傷花蕾
동티 안두다리목

৩৫৫

선남처녀와, 그 스나이가, 그 폐집다
러, 돈을 조금 달나 하거날, 그 폐집이
고난말이, 그 스나이가, 이웃 폐집다
러, 돈 달나 하나 하거날, 그 스나이가
스내트집으로, 폐집을 처거날, 폐
집이, 맞지 아니하고, 파지나 다라
로 처거날, 서로 안료구다가, 그 열
집포를 리었거날, 그 우물에, 두리다
빠지니, 그곳에 구경하던 사람이, 금
피건져이니, 둘다 죽은지라, 약을 먹고

여도 스지 못하여, 그 잇는 날 식별, 저
스던 곳으로 천척을 차차, 스람을 보
니고, 그 송자은 빙소를 하여 주고, 그
동디 스름더리, 불상이 여겨, 하년 말
이, 스라셔난, 집을 각기 하더니, 죽
어서난, 홍궁 그로 드러 간다 하더니,
파연 그 말이 을도다, 이 스람의 의가,
흔재 번에 죽어 시니, 아지 못거라, 이
두 스람이, 화천에 도라 가면, 염나국
왕이 웃더 케 관 열호년지, 알 슈음더
라

● 報恩以報 (承前)

니성 원부 뒤, 상디 테읍 하다가, 서로
위로 하며, 날을 보나더니, 슈일을 지
닌 후 홀연, 문밖에서, 스람이, 찾거
늘, 나가 본즉, 포포, 니원종이라, 쓴
성명을, 보이며 왈, 포장 솟도게서, 잡
혔스니, 가자 하거늘, 니성원이, 평
화하여, 홀불부신하나, 홀일업서,
포포를 쓴라서, 팔영으로 드러가, 두

목군관청슈포교을보고 올며고알
네가 무슴죄잇셔 잡혀난지 나
본니 빈한한사름으로 조식도업시
조소지도록 네의상의하여 초심
을취여 성의한스름이라 평성
에 일호 남파상관이 업스른일촌이
다아난네니 초심을취여 파라먹은
전지 알길이업난지라 부라건디
박키일이라 두목군관이 그말을듯
고 스름의동생을 슬피미 업스도
죽은고고 작화호 스름이 아난지
흔지라 디답하야글이디 나도 스도
밀지를바다 거청한일이죽 파연
디평을모로거너와 팔연부설이잇
거여 전이라한전원일의거여이

각하고 보라하고 하니
스만량하고 생각하되 업으니
두귀동 의일을 생각하고 전후
말을 잇나채일이며말며
혼인 밧게 호말이 업스니
아주 어야 오닐생의를
노쳐를 굶기지 아니하되
우물군관이 점두하고
라가 니성원잡아
티, 포장이, 분부하되,
적슈간으로
되리고, 죽시, 물고
을 나라하고

(未完)

詞藻

宣德火爐記

千峯 昌胤

予在京城。寓於南山之下。一日得火爐一。火爐來。頗古雅。問其價。曰三百兩。予遂購之。爐形如鼎。三足而兩耳。口徑五寸八分。柄爲圓環。試指以彈之。鈴音鏗鏘如鼓金。底鐫曰大明宣德年製。蓋四百七十年以前物也。但予平生不甚歡古器。隨之遂廢。如此爐者。亦不自知其真贋也。然天下之事。其變幻難齊者多矣。奚獨此一火爐乎哉。公退之餘。汲水於南山溪石間。懸鑪於爐上。靜坐冥悟。與友古人。坐而煖之。鑪水熱。津津然。沸湯然。乃浸茗而啜之。胸膈神爽。頓忘終日之勞。是豈宣德火爐之德德非耶。鹿峰記。

文帶談諧。出之以輕談之筆。乃爾足人觀賞。

社
告

今因本社新報ニ地方懸讀諸君에 便科한을
 經緯^二야^一省路衙門一三郵遞送達^二하^一를
 하얏다니 慶南工部衙門에서 許可되얏스
 므로 郵遞邊沿道에 諸君은 新報價一兩一兩二錢
 五厘과 郵遞稅七錢五分을 本社에 先給으로
 보되시면 日毎에 보되옵

新開紙價表	一號三分	二號五分	三號五分	六期及七號五分	每月再遞收七錢五分
新開紙一號價	一號三分	二號五分	三號五分	六期及七號五分	每月再遞收七錢五分
一號價	一號三分	二號五分	三號五分	六期及七號五分	每月再遞收七錢五分
二號價	一號三分	二號五分	三號五分	六期及七號五分	每月再遞收七錢五分
三號價	一號三分	二號五分	三號五分	六期及七號五分	每月再遞收七錢五分
六期及七號價	一號三分	二號五分	三號五分	六期及七號五分	每月再遞收七錢五分
地方購讀者	一號三分	二號五分	三號五分	六期及七號五分	每月再遞收七錢五分
廣告價	一號三分	二號五分	三號五分	六期及七號五分	每月再遞收七錢五分

右新羅國の生財は、其の後秀を撰採せんとの
意見を上奏し御裁可を得たりと云ふ

●藝妓再燃 忠清道興州地方にも此程茶藝
定再燃し同保守を授けし其他猖獗至らざる所

矢人蓋の如きからん。其の由を考ふる方に難し
りたり。又別報には一兩日中に仁川着の筈ある
筑後川丸の如きは淀川出水の爲め川口に碇泊
したるまゝ一昨日頃までは荷揚げを爲すを得
ず。又引所の如きも出水の爲め一時引と

第十三條 爲主にして萬一資本入金日限に入
金せざるときは猶意金として追募金十分の
一を徴收せ又二個月を経て尚入金せざる者
あるときは其株券を放棄して其估價より追

四五里の間に
北村有名の

右より一所に掛り來れと叫びつゝ往來り人
狂ひかゝり居る中其はれれ血縁の船まで
圍されれば石にて其の頭を碎かれ或はス
キにて其腰路を打たれ遂に死に突き倒され
にじり其相は破られて衣に裂かれ九死の
一に生れ得る者も少くはた

自來自得
狂雨幸
藍傷け
東大門内二箇三兵

丁金平素の家に去る八田某の主人の在らざるを窺ひは数名の盜賊侵入し家財を掠め居る中十一歳の女兒の内房の戸隔に震ひ怖れて隠れ居たると發見し忽ち其々美事なるに心動きたるまゝ何の用給も流しれ男直ちに取つて抱へ抱かに猛兇の羊の子を攫ふし如き有様にてアハヤ見るに忍びぬ無縁の殺聲に及ばんとせ

し餘端邊堀の巡視其家内の騒がしき物音するを怪み入り來りしかば盜賊等は打驚き其の垣を飛び越へて雲や霞と何れへか逃ぎ去つた矣と初めの花の蓋の娘は幸に無難を得たりと

無情。處は何處か知らず町の館某と云へは昨年四月比る騒かに某家の女を誘ひして妾と爲し共に其の面識ある金某の家より留しけるに釋さくして金某酒代食代の謝からず日々其の主人に言促せられて悶々辱しめを受けるも妹の面も水も顔様より女最と之と心若しく思ひ其の身に佩べら一切

飾物と賣り拂ふて其の負債と返却。つかはしに無情にも韓某は慰むる。其の妾を棄て置くに何れへ行きしか。陪鄰更らに分らず棄てらるべき方も無きさ。身を賣りて南大門外某の娼妓と爲りしが一昨朝の事むか。同門内の一年半振りは圖らずも其の夫に出會

無事で居られしか逢ひたうつだよ見たうつ
と嬉れ泣きに泣き出ししがみ付かんとす
韓某は之れを突き倒し己れ淫賢婦と云て
下がり我れに顔合はすることの顔面皮は
さきながら何處ともなく立ち去る様を姿
みは打ち見やうア、憎けや鬼が蛇かに魅
れしかと人目を彈かば泣き沈みしよま

官吏、其家族及び雇人にて男一百二人、
 に於て八十九人を設て、石の外、地在郷
 人、之を前月に比すれば、戸數に於て六戸。
 九十一人、女六百五十九人、合計一千六百
 留本邦人の戸數は、六百二十戸、人口は男九
 留本邦人や戸口。最近の調査に依る、
 所の見る目も、哀は淺からじと。

十人。一種滞在の者男八十二人、女十二人。外人に歸はれ居る者英人、女二名、濟男一人、女二人。獨人に男一人、女一人、に女一人、米人に男一人、女一人あり。合計すれば内地居留の總人員は一千八百六十六人にして内男一千七百十八人、女七百八十人あり。

如新計
出產數は男七人、女三人。死也者は男三
去月内に於ける常地我佐宮民
家跡願
去る十日三角山後的一角崩
て私膏院近地に墜落し同地居留の清人等
色を失はれたるもの来る日大半は如きは行
無

輸出 金六萬三千五百兩
輸入 金九千七百五十兩
輸出 金六萬三千五百兩
輸入 金九千七百五十兩

▲貸出全額と前月の対照をれば
十九錢
(圓位以下省略)
別頁本年八月末 客銀八月末

別月別	本年八月甲	客年八月甲
▲右増減に對し輸出重要品の増減を 現すとす。	(圓位以下省略)	
出朝洋産	六二、五六一	六〇、三九一
上調洋産	一六、八三六	二六、七〇一
計	六六、三五四	八七、〇九二
計外洋産	一〇、八一	二〇、六二七
入日本産	一〇、八一	

市	三、四、五〇	一、七、八、四、二
路	三、二〇	三、七、七、六
紗	二、一〇	三、六
綢	一、九〇	
寸	一、四、五、五	一、四、五、五
油	一、八、五、九	一、八、五、九

絹	四七〇	六九三
糸	一〇七九	一五八六
▲輸出重要品にては		
別月	本年六月中	客年八月中
別月	六一〇〇〇	八七三二

(圓位以下省略)

豆	六〇	四三六
皮	九八四	一〇四
骨	四二六	……
餅	……	……
○三三愛	……	……

鬼灯や鑊^{くわく}の輪^{りん}廻^{くわい}笑^{わら}ふ舌の上^{かたはら} 絡^{かか}洞^{どう} 焼^や月^{げつ}
 酸漿^{さんじやう}や此^この兒^こ二八^{にぱち}の春^{はる}之^の無^な
 鬼灯や聚^{あは}世^よの憂^{うれ}之^の知^しぬ振^ふ 仁^に川^{がは} 半^{はん}島^{しま}
 ○拾^{しつ} 哲^{てつ}
 豆^{まめ}殻^{がら}の捨て^{すて}處^{ところ}多^{おほ}し今^{いま}日^ひの月^{つき} 浪^{なみ}華^{はな} 江^え崎^{さき}
 燈^{あかり}に附^つぬ鳥^{とり}多^{おほ}し有^あり月^{つき}今^{いま}雪^{ゆき} 仁^に川^{がは} 氣^き散^{さん}家^か
 石^{いし}月^{つき}や物^{もの}は焼^やめ^め之^の尽^はる^は色^{いろ} 全^{ぜん} 加^か遊^{ゆう}

[illegible]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廣告

豐島丸 九月十八日入港 (十九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肥後丸 九月廿二日入港 (廿四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玄海丸 九月廿三日入港 (廿四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薩摩丸 十月五日入港 (六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兵庫丸 九月廿五日入港 (廿六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長門丸 九月廿七日入港 (廿八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坂商船株式會社 仁川支店

信濃川丸 九月廿八日入港 (廿九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筑後川丸 九月廿九日入港 (三十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木曾川丸 九月三十日入港 (十月一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隅田川丸 九月三十日入港 (十月一日出)
釜山、神戶、井上、三浦

大坂商船株式會社 仁川荷客取扱所

龍仁瀛船龍山出帆廣告

正重丸 九月十四日 午前七時出帆

安來丸 九月十五日 午前七時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京仁間和船取扱所

大林回漕店

慶田組

明治二十九年八月

廣告

村上唯吉
右今般... 廣告

辻商店

辻支店

新茶

御玉製

御煎茶

御薄茶

御上茶

御下茶

御中茶

御上等

御下宿

御室

御金

御金

御金

御金

御金

御金

御金

御金

御金

廣告

瑞西製

最新

一箱

一打

一個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廣告

瑞西製

最新

一箱

一打

一個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藏

十 十
五 錢 錢 錢 圓

旅
館

凡

拾錢 拾錢

錢

分店

口産ニシテ其
所ニアラズ

テ購テ試用シ

製造所

各位

客位慶田

●鮮魚佃煮
●海苔大和煮
●松茸
●竹の子
●福神漬
●栗餅
●辛子
●豆
●加賀
●栗
●栗
●栗

京城泥鰌

龜屋

天位漢城新報三ヶ月分
場位全二ヶ月分人位全
一ヶ月分五聖貳組拾哲
壹組各次會無人花依衆

向高増賃

兼題名月句讀正風

豐秋園瑞穗宗匠樂撰

投込所

九月十五日●癸卯定全月
十六日翌日漢城新報ニ
掲載詠草ニハ居處雅望
及ビ通稱ノ明記ヲ乞フ

花壹組（拾句）金拾錢
壹組五錢詠草二添二

鏡眼種各銀金 ● ト | レイパ
 賣 販 手 一 國 鮮 朝
 店支辻 岨泥 ● 店商辻 洞貞

●パイレーツ捲煙草ノ儀今般東京輸入元木
村商店ト密約ヲ結ビ朝鮮國ニ於ケル一手
販賣ヲ相當ニ非常ノ勉強ヲ以テ賣賣ス
候間様々關注文ノ程奉冀望候
寅*此捲煙店販賣ノ捲煙草
●フレンドス。リフナモンド。スリーカスル。ス
トレイトカント。ハチデュー。カメオ。カエラ
ナ。ルギア。エインブレス。カロリナ。ビーン
ド。スキトカボラ。キングフツシャ。
●金銀各種ノ眼鏡ハ何レモ精巧ノ品コシタ
今般新着來着仕候ニ付御愛求ノ程奉願
上候
●此捲煙店本業ノ雜貨澤山新着仕候ニ付
併セテ御愛求奉願候

廣
告

卵
子
拳

ラ
ン
プ

鏡
臺

針
刺

特許
碓
函
イ

右今般荷着仕日候

販賣致シ候間舊ニ倍シ

風味最佳品位高尙紙捲雙吸口付十本入
 ビーコック 金四錢
 朝鮮一手販賣 京城派藏 龜 屋

[illegible]

鈴木大坂堂

發行所 總匯城新報

하임의 藥을 用한 藥은 大抵 藥料 中에 藥性이 有
 성이 不純하고 毒氣의 나쁜 것, 藥力의 약
 서서, 全體에 無功하여, 身體에 害를 주나 그사
 라, 오늘날 藥師의 責任은 輕くない지 모르
 도라가 하리라. 그 責任을 擔當하는 藥
 마암으로 보아, 藥學의 發展은 藥劑學을 두
 면으로써는 不충족, 중추신경系, 의리
 가 일반사를 考할라. 그 藥理學은 藥科,
 다사한 모 말도 못하고, 일 후인약을
 국권이 막고 나오거날, 그 조제 또한
 문밖에서와, 差別하고 드러가 다시
 글을 푸더라, 종운이나 와도로 저자
 兪방의 의서, 前賢의 遺著, 달이 환
 그리, 승상이, 나와 종운을 보고 할 연
 말이, 민족의 근되기를 잊고 잘 잡던

다 하거나 중은 이 아니라 절하고, 잘
 작소이다 하고, 또 나가 올고 하니 승
 상이 갈아 뒤 오달너 다려할 말이 있
 난고로, 말기 하니, 오달너 슬며시
 하고 밥을 잘 뒤 접하고, 다시 그 부
 계 드러가서, 중은에 말을 하되, 그 부
 인 드러 중은을 불러 보고, 여의문
 을 부락하자 하니, 그 부인이, 스승의
 말을, 여러 여러 가지 하라 하니, 스승의
 밧게 나와, 중은을 보고, 하년말이,
 나가 너을 본즉, 지조의 학식이, 세
 의 드문지라, 나가 두 계, 여의문 두
 었더니, 덕행과 스승이, 중의 법의
 질리, 될 만 한지라, 또 네 나하, 너
 아외 동년인즉, 될 노하고 금, 여의문
 부락 하니, 네 마암은, 오스더 한 중
 은이 엿자오되, 스승이 모반이오되,

실함을 떠나지 말서 철필연이라
다시 소식을 모르고 또 혼인 바람은
인간대스라 저혼자 천단하
스오이다하니 승상이 갈아히 그도
그러나 여괴서 눈주가 여러번 나
라니 왕이 극하여려운지라 한번가
면 다시 도오기도 아려울뿐이니라
노부가 천단하에 한수를 알루다리
도 망발히 하난죽과도의 양치말
고 회일을유고 보전연문을 철택말
고 노부에 바라던거절 저바리지말
나하니 줄은이 스양꽃무고 잇세
니 승상이 종을 불러리고 부인페드
러가서 뵈오니 종은나절하고 자리
개나온가 안잔단 부인네아려나
를 맛고 종은을 본즉 귀신상살화
귀맛은지라 말암한줄은진호
상더러한말린승안연호
승신을아
부인
마음

● 懷德自任 경상도 덕구씨의 한 사람
몸이 잇스되 흉한 기로 성의를 속
다니 제자가 만년 글갈아 치기를
심히 엄하게 하고 여러 제자 다리
글일세 독설하는 예도 문들중 아리
치기로 열람더니 금년 봄에 다모에
아들 하나 글을 배호되 놀기만 조
외하고 소원만 하고 투미하여 글을
잘 못이니 할지 삼월간에 이아히
가도 천정으로 죽은즉 그아하니
허전모세라 그부모가 자식에 정
을 잊지 못하여 장천그성성을 원망
하고 선성인 남곳의 을 간즉 그선성이
물조치 아니하게 하니 그선성의
마암에 조금도 의의 줄아나하더니
일일은 그아하아가 선성인 반곳
에 자람 만니 모안난뒤 인스후 그아
를 죽은 말을 하고 소락 잘이며 크게
싸오니 일좌방 당황하더니 그선성의
아들이 그아이를 만나니 그아이를
이름을 두고 사모를 들고 뺨을 치
고 미친사람과 같이 지는
니 그 좌종산 사람이니 신재 말슈호되
동지 아니하고 노귀도 동양

술잡으로 들어 가서, 논리로, 말로 다자, 아방이가, 오하려, 말을 엮지
로, 하야, 그 스름덜을, 셈을 치니, 그
뒤스름이 싸흠을, 말이고, 장가로
더부러 회회하고, 인하야, 아방아를
웃쳐 보니 자못 하더라
花價千金 삼청동거하는 홍승지가
의서, 종을 일고, 간곳을 물나더니
그 근처에, 스는 장가라, 하는 자가
뵈여다가 제민부홍가의 집에, 갔다
잡숨기고, 밤이면, 장가가, 낙왕하
다가, 홍승지가에서, 두스름은 하야
홍가의 집에 가서, 종을 찾고, 뵈여
반들을, 뒤라흐족, 홍가의 제집이 칼
쓰기들, 제오리비, 장가가 뵈여왔다
호거늘, 홍승지집의서, 홍가의 제집
을, 잡어 강우복서로, 보이며, 전갈
하가를, 이 제집이, 낙종역여닌 장가
의누이라, 장가를, 잡아만치라, 홍
고종년도, 또보이며, 말하기를, 이
년도 반바가, 하야, 불일슈업스니,
장가를, 보여주고, 업전의 박양을,
주저 보니고 비부는 제집을, 어디 주
어달나 하엿다더라

● 報恩以筆 (承前)

두목이, 남아하와, 다시알의되, 포
 형법의가, 아무리, 비밀한일이라도
 두목과관이, 모른는일이, 업스오니
 이 죄인은, 목숨죄로, 물고를, 을나
 라하시느지, 저서이, 부부, 하옵사라
 하니, 포장을, 나도모로되, 우의서,
 밀자를, 나리스, 잡아, 물고하라, 하
 신일이라, 두목이되, 알, 무릇, 아모
 죄이든지, 스또개서, 죄명중, 모로
 시고죽이느거시, 동의, 할스려, 아니
 옴고, 또, 소인이, 니모의, 호소하는
 말을, 듣조은죽, 여쳐며, 추하오며, 그
 동정이, 빈빈무죄, 한듯하오니, 스또
 거서, 저서, 니, 동측양사, 물보라, 이
 다, 포장이, 고이히니, 니모를, 불
 나드린라하와, 무른죽, 언스동정이
 두목의말과, 조곰도, 다르지, 아니
 거날, 심중에, 의아하와, 스관령
 으로, 가도라하코, 곳, 에, 켈하와, 상
 전에, 알의되, 하코하신, 니모를, 잡
 아왔스오나, 물고하라, 하옵신, 천불
 할, 저서이, 아옵고, 거행하라, 하옵
 느니, 다, 상이, 알, 청공스원세지, 가, 니
 모성명을, 전하보디며, 말하거기를

忠清道洪
李秉武氏
朝鮮同地方

約三百名
せしが一
方兵暴徒
せんが爲
るものに
殺げ一ヶ
方隊は其
日出征の
ありとの
完用氏は
屈けらば
任何任、
之義、何
新案章而
朴定陽氏
ありた、
亦聴き、
云ふ氏は
便に前任
之が聴き
親氏之一
判事、
ひに聴き
穆氏は大
陽氏、
又と其商
又と其取
取し其幣
各會社、
種、
し又金、
保護、
各種証書、
第三十四、
其他財産、
記載する

事業の外、左に掲げの條件は勿論、其他諸般の營業に關涉するを得ず
第一 不動産及銀行、諸會社の株券、
第二 本銀行の主（株主）に對して貸金、
第三、直接間接と論せず諸子會社の株主たる事は勿論工業に關係ある事に干渉するを得ず
第四、本支所及分派所を開設する爲に必要あるもの、外は一切他の不動産の所有主たる事を得ず
第二十四條、朝鮮銀行に於て内蔵する商業票は全く連署を以て授受し印税規則に依て印紙を貼付し資産確實する者二人以上の連署を要す但し還報期限百日内に在るか或は銀行總會の決議と特別約束ある者は署名人は一人にても内蔵す
第二十五條、内蔵請求人にして其票金額を相當する物品又は商品に質押証券を典當する時は此れを一人分の署名捺印と看做し内蔵と許す可し
第二十六條、政府發行票の制限は出、期限と割減額と時々度支部大臣に稟議し高員會議に決定す
第二十七條、錢票の割減額は毎月高員會議にて決定し支所分派所へは本所より時々指定す但此割減額高員會議に必要と認むる時は何時にても變更す可し
第二十八條、政府發行票の制限を輔、及公債、其他政府の保証する証券と典當し貸與する金額并に利息額は毎月高員會議して決議し餘事の承諾したる後度支部大臣の許可を受く可し
第二十九條、前二十八條の新與は銀行に於て資産確實と認むる者に限り且其期限は六個月を超過せざらしめ其貸與金之當月証券時價十分の八を超へず
負債主にして或期限に至り完済せざる時其典當物件を放賣し本銀（元利）を扣除し餘款あれば本人に返付し不足あれば追徴すべし但期限は至らざる証書と更改し（延期）と請ふ時は一回限り之と許す然れども銀行總金に於て別する許可を受けたる者之此限をあらす
第三十條、朝鮮銀行は公債証券並に政府發行票を買収し及放賣せざるを得ず其都合には高員會議にて決議し本會の承認したる後度支部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施行するを得ず且其許可を受たる日より三十日内に施行せざれば其許可は効力なし
第三十一條、朝鮮銀行は兌換銀行券と發行する事を得但政府より別規則を頒布したる後に實施す
第三十二條、朝鮮銀行は送金票と振出票と振替票と發行するを得
第三十三條、朝鮮銀行は政府代便宜に由り國庫金の出納に従事するを得
第三十四條、朝鮮銀行は與金需索に對して完済を要する時は貸債の所有する家屋田地其他財産と銀行に於て沒收することを得但此家屋田地、他の財産は償後一箇年内に放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仁川各居留民數 客年末現在の在仁川居留民數は左の如し
國籍人 一、四八八
日本 四、一四八
英國 一、四
支那 四、八二
朝鮮 一、七
合 計 四、六七九

我從東京轉歸公信商會三加盟我シ居
于鑒全商員實錄上全盟社群官歸仁仕

廣 告

近來一服不景氣ニ付キ吾々料理業者一同申合
御見下 御客様は都テ現金ニ頂戴仕且是迄月末

抑モ此ノ朝鮮鮫ハ肥後國ノ名産ニシテ其
味ノ美好ナル遠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
且ツ幾日テ經ルト雖モ腐敗ノ患無ク兼テ

라 음

小林立子製造所

猥

免轉住廣告

許
治療所

私達は、この「田原旅館」に「上宿生」を養ふ
今般都合で、左ノ處へ「多生士」を從前
通り不相變に治療仕候
泥見田原旅館の御手情老

久田安生堂

● 胃腸 ● 肺病 ● 肝臓 ● カウチマナス
● 瘧疾 ● 疝氣 ● 逆上 ● 痰癆 ● 二宮病
● 其他諸症ニ即効アリ

● 御反 江戸 親類 之 面 之 寸 ●

● 御 旅 京 城 ●

● 御 館 同 ●

● 御 館 東京 館 ●

● 御 館 同 ●

廣
告

二石油 大販賣
半穀弊店ニ多數荷賣相成五候間多少ニ限ラベ
知悉求人用區ヘニ奉頭上候也

各位
慶田組
慶田出張店

一石油廣告大販賣

各位
慶田組
慶田出張店

露披御着到荷新

東京 月
カル、ス煎餅
● 舶來ビスケツト
● 瓶入洋菓子數種
● 梨、桃、梅、杏、罐詰
● 堅魚でんふ
● 小鳥大和煮

●鮮魚佃煮
●海苔大和煮

經 宣 禮 重
 子 豆 豆 重
 子 子 子 重
 子 子 子 重

京邑記

龜屋

第六會正風集

兼題月

豐秋園瑞穗宗匠樂撰

●新聞一
九月二十二日 ● 選定全月
十九日 聖日 漢城新聞ニ
掲載詠草ニハ 聖處雅號
及ニ通稱ノ明記ナシ

投込所
正風會

眼鏡種各銀金 ● ト | レイバ
 賣販手 一 國鮮朝
 店支辻 岨泥 ● 店商辻 洞貞

廣
告

● ●
柳 ラ
行 ン
李 プ

十鏡
臺

針
見所
京
（平水人。肉入寸）

馬具一式

百八今校勘著仕、辰二説ナハ、持別重寶ナリ、
返受致シ、候間舊ニ監ニ知受ス、語ニ願ヒ、
京盛泥瓦、
鈴木大阪堂

發行所
漢城新報社

眞味五三品並高野紙落葉坂口竹十不入
ビーコック、金四錢
湖岸一三坂買 京盛泥見 盛 屋

[illegible]

西行長子人 在 林 恒 人
西 盛 人 島 田 繼 通

●外●部●大●臣●李●完●用●辭●疏●

宮內府寺監官未卒君卒

咸鏡北道觀察使南廷哲辭

비서관·민봉식·왕

郭御史專

말이올도다호표、

를바드미, 춘삼월만

동봉우가, 만너모이

모든 사람더러

여, 서로 하년말이, 지

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十九、二十、二十一、二十二、二十三、二十四、二十五、二十六、二十七、二十八、二十九、三十、三十一、三十二、三十三、三十四、三十五、三十六、三十七、三十八、三十九、四十、四十一、四十二、四十三、四十四、四十五、四十六、四十七、四十八、四十九、五十、五十一、五十二、五十三、五十四、五十五、五十六、五十七、五十八、五十九、六十、六十一、六十二、六十三、六十四、六十五、六十六、六十七、六十八、六十九、七十、七十一、七十二、七十三、七十四、七十五、七十六、七十七、七十八、七十九、八十、八十一、八十二、八十三、八十四、八十五、八十六、八十七、八十八、八十九、九十、九十一、九十二、九十三、九十四、九十五、九十六、九十七、九十八、九十九、一百。

날리발그미, 신낭신

이름: 성: 성별: 나이: 직업:

를하미 일향사름에게

의사로서 세우려 올린

봉양환마암아간절기

모르코프의 법칙은 물론

二、升學考試科目及答題

을 줄 알라. 여니, 서가튼한이로

달마다 일사하여 사(司)극히 사랑하여

고로 조정에 서, 다시 각하여 종윤

강즉고 그여려선한국정은바

그런데 하의요, 잇뒤조영이 살안하

속업직히 자못하고, 도적아, 손야의

한글로 옮기면 이렇다. **한글로 옮기면 이렇다.**

국민은 한 사람도 없고, 한낱 도읍고, 일

고려시대

옛자오티, 소산나나히어라와아

가 단 한 면 이 전 인 하 를 충 고 하

서위선도적을방비호응교치민

이 나 리 이 흥 복 후 리 나
페 후 리 오

의윤홍사, 백관을 다 조회하여 세

第 四 十 二 頁

免方貼額者
六兩七錢五分

로만식음

100

新開紙一張價
一兩圓 先給
三兩圓 先給
六兩圓 先給
地方貼額者
每月馬路役七錢五分

金銀器及國數 五錢五分
金銀器及國數 五錢五分
金銀器及國數 五錢五分

金銀器及國數 五錢五分
金銀器及國數 五錢五分
金銀器及國數 五錢五分

박자하고, 명세하야, 허락후의,
 다시 허균, 아전의, 모히로, 고촉하
 는 말을듯쎄, 그네사름을, 죽이라
 고, 병정을, 보디여서, 잡어다가, 되
 유하거늘, 박자하고, 그말을, 두
 우량하

●告發者罰せられんとするの噂あり
金春熙、劉世南の諸氏は告發して夫の疑獄を
暴露せしむる警務官李世賢、尹重炳の二氏は露

使の力を借り此の程任地に入らんとしけるに
人民之れを遂に拒み先づ申氏の冠を取り髻の
有無を檢せしに同氏は正尉なりし時斷髮を言

は度支部大臣に申報し又新聞紙に公告し下半季の實際報告并に損益計算に之を高員及幹事各々其の年度營業上の報告書と付し翌年

半季の實際報告并に損益計算に之商員及幹事各々其の年度營業上の報告書と付し翌年

出でたる内
りて本官を

第五章 行務の総理

十四條 銀行長、副長

主總會にて選舉す

三

務と見做す可からず

らんどの説あり



人居留地借入れの約成りし當時と比較すれば

廿四年 三二六 二、四六六

入しも本年分は、三月末の調査に依り、

夕調へ)

山しを見合せたる爲り米價は日々暴騰の姿を
とり月毎より中旬に至りては二等米にて龍山

出の目的が、現品と同等に轉賣せし爲め、

(京城商業會議所調査の要領) (承前)

(京城商業會議所調査の要領) (承前)

△ 商 販

と呈せり此の源因と舉れば先づ各地方の農

が二百十日の天候如何を氣遣ひ米穀類の賣

出しを見合せたる爲り米價は日々暴落の姿
なり用勿より中旬に至りては二等米にて

取引拾圓七拾錢の高價となり且つ各地方不

の報は躍を接し來往商人の杞憂益々高まると

地方轉客の入城を選擇せられしめたる等其重なるものとして之が爲め城内人民の活路

困じもの其の數擧げて數ふべからざるに三

事に至り本邦商人何爲を其影響と受けざるを得んや諸國の貨物二に於て歩合引

りたるを見ず尤も二十日頃に至りては本邦

地米價下落の報に接し仁川に於ける米商の

買取の下等して九割貳拾發となり城内人民

茲に漸く活路を得たるが如き國ありしも地

出回が商人は依然として足跡を止め入城せ

るを以て、而して不始に異いをせしむるの義

して地回商人の手を取引されたるもの多し

甲斐絹 本品は前月より望手更らに之れあり

は八錢方の露骨を現せり尤も其體類は重に

別に衰へず要するに本品の取引は石油と共に

出品

九月九日より一週間午後七時

より一週間午後七時

より一週間午後七時

實錄行

本日
本願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ollowing steps:

日本郵船株式會社 汽船仁川廣告

●豐島丸 九月十八日入港(十九日出)
●肥後丸 九月廿一日入港(廿二日出)
●玄海丸 九月廿三日入港(廿四日出)
●薩摩丸 九月廿五日入港(廿六日出)
●兵庫丸 九月廿七日入港(廿八日出)
●長門丸 九月廿九日入港(三十日出)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大坂 仁川 船名 仁川 廣告

廣告
村上唯吉
明治廿九年
泥
辻 商店
辻 支店

茶店 河村至誠堂
御玉露製 一斤金壹圓五拾錢
御旗茶 一斤金壹圓六錢
御海茶 一斤金壹圓七錢
此三種御茶入用ノ御中越シ次第早速
晚上テ御注文ニ應ジ申候
右新荷着仕ノ御間大方ノ諸君御愛求テ
御受テ

朝鮮物產依託販賣
并ニ諸雜貨買次業
右ハ萬寶子官トシ精々御便利ニ取扱
可申候間多少ニ拘ハラズ御用則アラ
ソナタ
大阪市西區北堀江通四丁目
加 庄野嘉久藏

御旅神戶屋
朝鮮仁川各國居留地
第貳拾六號地
弊館從來營業在仁川各居留地ノ御底班
蒙リ日ニ月ニ繁榮仕候故奉謝謝禮
今般客室其他百事改良ヲ施シ御待遇
申スニ及バズ御料理等モ衛生上注意ニ
注意テ加ヘ就中浴場ノ如キハ一層意ヲ
注シ又又宿泊料ニ至ツテハ精々低廉ヲ
旨トシ概テ左ノ三等ニ區分スト云ヘモ
尙ホ如何様トモ御相談仕候間何卒高ニ
倍シ御愛求テ御受テ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御室内御熱覽ノ上御相談ニ應ズ

廣告
京城料理業者一同
近來一般不景氣ニ付キ吾々料理業者一同由合
初見ノ御客様は都テ現銀ノ頂戴仕出且是迄月末
御拂無之御方ハ毎月集會ノ上取調ヘ以て後何
ニテモ御容儀ノ斷リ候様取極メ候間此段爲念
廣告仕候也

瑞西製
最新 子スルスミル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二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京城泥規
龜屋分店

一等 壹圓
二等 七十錢
三等 五十錢
外二等 三十五錢
京城泥規 三十八號
田原旅館

一等 壹圓
二等 七十錢
三等 五十錢
外二等 三十五錢
京城泥規 三十八號
田原旅館

一等 壹圓
二等 七十錢
三等 五十錢
外二等 三十五錢
京城泥規 三十八號
田原旅館

一等 壹圓
二等 七十錢
三等 五十錢
外二等 三十五錢
京城泥規 三十八號
田原旅館

石
今般客室
御求

石
今般客室
御求

石
今般客室
御求

石
今般客室
御求

石
今般客室
御求

고승도대리, 공심포등항요, 구비

다더라

단서무이후이금능예부기옹이
조난

卷之五

▲依願免本官 忠州府公立小學校教員黃漢東
▲任全羅北道觀察府主事 趙夏燮(升任六等)

의회를 이끄지 못하
니 하니 나고 각각
나의 심수를 위로하
자 한즉 그 노수
이 곧 아득치가 처
절 무신양한 노수
손심회와서 장을 이
루지 못하고 이
아기로 밤을 새우
라 하시오 어스갈
아디 심수를 평정
키야 노수가 회
파보나 노수응을
이온제 되었시
며 무
손일노수의 때
고 고상한 때
며 당
호한무어시
며 속속은
풍의 신나
나 그 노수의
알 속속은
과히 밝고
당호한일을
이 알코 중
된지 난
실필

산중으로 가면 절감의드러가쥬고

가나, 차차 염담하다니, 자연관한
고향부와, 고향부모성각도나며, 그조
차절마암도, 간절하며, 정양도진
상정성각도나서, 이리저리, 단니
고, 인심을잡지니후, 수령잘만난
소복성더런, 부령부죽하며, 안업을
고, 수령만나지못한복성더런, 남
여디하며, 도로에유리하니라
위불위가, 스람에게잇더라, 알
은과어스, 길일러, 산혈길노드러
니, 점점갈수록, 인간은, 드물고,
송취죽과, 귀암피석이, 참별루천
라, 점점드러가니, 어디서종경소
은스니들이거늘, 어스길은모로
일세난저들러난지라정이민망
여, 길닐을차차, 종경소리나난곳
로간즉, 조고마흔압자나니, 정
이잇서, 세상의살리울난것것은
이잇서, 반기어동구의드러가니, 상자
삼인이, 나와맛자드러가날, 드러
본복죽, 노승하니염주를두드리
손의불염을들고, 단정이안정다
이러나, 할장비례하니, 어스답
고, 안조리, 그노승이, 할철성이
되고, 다른슈장이, 여류하다니,
도, 정별라야, 모음유하리라,
성하던차, 잘먹고, 밤이드러
자자연신사살란하며, 잠을일루
웃고, 그노승다려, 말하되, 나가
자로나서, 말서팔구변이라, 자연

卷四

新開紙價票	新開紙一張價	一錢三分	每月郵國稅七錢五分
一期開	先給	一兩二錢五分	
三期開	先給	三兩五錢	
六期開	先給	一六兩七錢五分	
地方購者			
客價	호출물출반야전거시	三錢式	
	이요條設及國數品受村社		
	슬달 및 고北置自買五錢		
	로맛소음		

六と發して 港へては頗る信用ありたるにも拘はらず今更に其の更の結果支店出張所とも重要な地位に在るもの

●釜山港の我居留民 去月末日現在の釜山港居留本邦人の数は四千八百十二人、内男二千六百十七人、女二千二百九十五人にして之と前月に比すれば男九十九人、女六十人都合百五十九人を減せり又同月中に於ける出生数は十四人、死亡数は十三人あり

朝鮮銀行定款 (承前)

●銀行長副長 銀行長は高員集會銀行集會及幹事會の議長たることを得 銀行長は此等會議に於て決議せし事件を施行せしむるを許可す 銀行長は銀行百股の事務を總管し定款及内規等の諸則を遵守す可し 銀行營業に關する諸般の訟議は銀行長の署名にて施行す 第五十六條 銀行長は高員集會の決議を以て約定書及解約書其他百股の書類に署名押印す可し 毎日些少ある事件に關する書類を除く外は營業上の証文其他の書類には必ず文書課は署名副印すべし 銀行長は高員集會の決せし事件を不當ありと認むる時は速に銀行總會を開きて其意見と諮詢せることを得 各會議にて決定せし事件なりと雖も定款及諸規則に抵觸せし事は勿論政府より不利と認むるときは銀行長は即時停止す 第五十七條 銀行長事務は即時停止す 第五十八條 銀行長は毎日預金する事を選擇し其事件を定めて總務員に代辦せしむ 第三節 高員集會 第五十九條 高員集會は銀行百股の事務を決定す但其他集會に於て決議せし成規ある者は此限りよりなり此集會の証票の受何と政府發行票を内減せし金額及公債証書等に對して貸與する金額と公債証書の買收金額等と定むるものにして此等事件は幹事集會の承認を経し施行す 此集會を各所人員の通過及議決を要す其

月銀及保費金額を定むるものなり 支所及分派所人員中銀行代名目にて証票に署名押印することあるときは高員集會にて其の人員を選舉し委任状を授與するものなり 此集會にては幹事總會に提出せんとする一年間の營業報告書を整算す 第六十條 高員集會は半股以上の出席者より決議するを能はす 此集會の議事は多數にて決定す萬一可決者否決者相半ばする時は議長之と決定す 第六十一條 高員集會にては幹事集會と對し決議せし意思及事務要領を記載して發席員及文書課長署名捺印すべし 第四節 幹事集會 第六十二條 幹事は百股の事務を監視し又各理文等と検査す 幹事は實際報告損益計算及經費算等を調査し正當なりと認むる時は承諾す但此報告誤算等は高員集會にて調整し移付すべし高員集會にて証票内減多寡の變更と政府發行票を内減する金額と公債証書及其他政府の保証とる各証券に對して貸與する金額を増減し又公債証書を買收する件を議決する時は幹事集會の承認を受くればも事情急迫せし時は証票内減の多寡を高員集會の決議を以て増減することを得 但此決議に至れば是非五日内に幹事集會の承認を受くべし 第六十三條 幹事集會は毎月一回以上開會すれども萬一十二員以上の出席ある時は決議する能はす 議事は多數を以て決定すれども萬一可否相半ばするときは銀行總會にて決定すべし萬一十二員以上出席すれば決議せしむることを得 至急を要する事件は銀行總會にて決議するを得 第六十四條 第三十七條第三項に定めたる幹事分排金は半額と該員に均分し半額は各員員に預給すべし (未完)

●生牛の輸出(釜山) 客月中釜山港より本邦へ向け輸出したる生牛の数は百二十一頭の多きに達せしが本年は當路に於て例年の如く牛受の流行を見ざる事昨今に至り漸く一般に知れ渡り爲りて本邦商人の購買心を増したる事、本邦に於ける畜牛の價格に比し朝鮮牛の比較的に廉價なる事、本邦に於ける朝鮮牛の需用増加したる事等は其重なる原因あらんと云ふ而して其の買入地は重なる東萊、輸出先は星後、伊豫、對馬の三地にして輸出生牛の年給は一頭の最も多く二頭より三四頭のものの之に次ぎ及百頭中の九十六七は牛なり

●釜山港貿易の要計 客月中に於ける同港貿易の要計は左の如き 一 輸出入總計 (各港へ歸送廻漕共) 一 金四拾七萬九千貳拾參圓四錢 一 輸出入比較 一 輸出 金拾七萬五千七百六拾四圓貳拾錢 一 輸入 金拾六萬貳千參百七拾五圓八拾錢 一 六錢 一 輸入 金拾六萬九千參百九拾參圓五拾壹錢

●特別廣告 振り袖とはまの蔭や月半 名月や床しき夢の影 特別廣告 振り袖とはまの蔭や月半 名月や床しき夢の影

●特別廣告 振り袖とはまの蔭や月半 名月や床しき夢の影 特別廣告 振り袖とはまの蔭や月半 名月や床しき夢の影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瀧船仁川廣告

●豐島丸 九月二十日出帆 同十九日入港 釜山下ノ瀧船戶行

●肥後丸 九月十一日出帆 廿一日入港 釜山、對馬、長崎、神戶、保

●玄海丸 九月廿三日入港 廿四日出帆 芝罘、天津、行

●薩摩丸 十月五日入港 六日出帆 馬關、香港、行

●長門丸 十月八日出帆 廿一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兵庫丸 九月廿三日入港 廿四日出帆 釜山、元山、浦項、行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信濃川丸 九月廿二日出帆 同廿三日入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筑後川丸 九月廿二日出帆 同廿三日入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木曾川丸 九月廿二日出帆 同廿三日入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隅田川丸 九月廿二日出帆 同廿三日入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正重丸 九月廿二日出帆 同廿三日入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安來丸 九月廿二日出帆 同廿三日入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京城 莊司回漕店

●京仁間和船取扱所

●慶田組

●大林回漕店

●仁川本町

●龍山

●大坂商

●仁川荷客取扱所

●龍仁瀧船龍山出帆廣告

●正重丸

●安來丸

村上唯吉

右今般總朝為致候間自今當店ニ於テ一切關係無之候此段廣告候也

明治廿九年九月十日

●商店

●支店

●石丸鹿太郎

●セメント

●新茶

●河村至誠堂

●朝鮮物產依託販賣

●并ニ諸雜貨買次業

●加庄野嘉久藏

●御旅神戶屋

●中等

●下等

●下宿

●廣

●告

●京城料理業者一同

●在東京

●山際霜五郎

●京邸知諸賢

●仁川辱知諸賢

●小生

●明治廿九年九月

●在東京

●山際霜五郎

漢城新報

隔日發刊

雜報

●山陰縣 구월심판일 국니부
디신나 지순단 유즈복문, 적간봉
서소전후은 즉 후릉창봉김종진, 오
사공지후은미, 구위회단후오니, 위
선면관후고, 고죄상은, 영법부로,
조을임감후오며, 슈이본능영서현
보로, 언지라도, 공죄을, 의구부지
이, 막심막경지지의, 처차경송후오
니, 구이스데에, 불가인치오니, 위
선면관후고, 영법부로, 일테중, 관
후오며, 가능원묘지관지, 전불취죽
후고, 철출가관후의, 무페불성, 하야,
지차차공 지이극후오니, 역위신
측, 장례원후오미, 하역후을지, 근
상주후

지지관지, 무란공 지극위동, 위
소주, 양지관, 병영법부중판, 가관지
슈정첩혀, 디비스데, 당초허유지회
당, 불가무경시, 이견칙, 자금영가
신죽야음역팔월심판일묘사에,
충능상사지사서, 특진관정범조국
니부위신, 니지순, 장례원경, 민중
목, 영선사장, 강안, 전거후

●內閣官制
니각관제정후난것과, 만각본되
신종면후은일들, 이의전선사무에,
과후유엇거이와, 또전선을드르니,
전관제정다시, 총내의신은, 또참정
아라하야, 신관제을, 슈상일간하로
, 발포후되, 또회관제발포후난날,
도참정과참정지간의, 일나체남김,
조남, 또후가이아지못후니라

●外部大臣李完用辭職

●外部大臣李完用辭職
●外部大臣李完用辭職

●外部大臣李完用辭職

●外部大臣李完用辭職

●外部大臣李完用辭職

●外部大臣李完用辭職

귀후였다더니, 슈알후의, 할명부도
관찰시를하였다하니, 운명이찰치
후여, 후거후되나, 누가추천나
정을, 알이오후다라

●發烟吸

●發烟吸
본일은죽

●發烟吸
디일은

국후라 황당제일애라, 일본
공스관, 스명관이, 아을나다, 알은
보자아나고, 아에원공스, 가등영,
스아하, 양관후원더리, 이날청한
가설타가지고, 교자을타고, 양주북
후손성의을나가서귀경하리, 미상
의영군의나서, 황후의도라는난의,
잇씩추과가, 불심을천하고, 종식이
소해후여, 원연이그림것은지라, 슈
공지가, 아람다운싸을, 서로살고,
스과이후곳에이르고, 절남판두의
을나, 중을도록귀경하니, 연후표묘
호스아의, 그후을가이성각할나라
●星使回國 후이일은의駐日日本公使
全權公使나영씨가, 근일간의, 장차
회국한다하니, 그이하난모로가나
와, 친나당노디신을보시고, 조야정
스을고한다하니, 그진위난모로되
다라

●小學校位置(學部令第五號)

아부령, 지방공립소학교위치를, 좌
가치중후, 개심철일, 학부위신, 신
과서서

한성부, 경과관찰부 (슈원) (충
청북도관찰부 (충주) (충청남
도관찰부 (광주) (전나북도관
찰부 (전주) (전나남도관찰부 (
광주) (경상북도관찰부 (대구) (
경상남도관찰부 (진주) (황해
도관찰부 (하주) (평안남도관찰
부 (평양) (평안북도관찰부 (
중주) (강원도관찰부 (춘천) (
함경남도관찰부 (함흥) (함경
북도관찰부 (명성) (강성부, 강화

부인천한, 부산한, 원산한, 제주
목, 파주군, 홍주군, 남원군, 영광
군, 안동군, 의주군, 성천군, 강령
군, 평안남도관찰부, 청주군, 임천
군, 수원군, 평주군, 안악군, 강계
군, 원주군, 부천군

●外部大臣李完用辭職

●外部大臣李完用辭職

●外部大臣李完用辭職
인상을, 물기에, 미미
후지못후게후리, 송도에, 순검수심
명을, 후한양다, 은말은, 일전신문
에, 의지후았거니와, 시방該地에서
나온, 의별을보니, 재尹이, 도인
하야, 즉시, 인상購買후을, 임히,
금후았은일은, 도화스되, 그여파가
외국상고구商人에게밋어저, 도전
순검이나, 병정들이, 열명이며, 스
을명씩, 각처通路에, 要處々々에, 잇
다가, 물기에, 村家로, 止집하야, 그自
國人과, 타국인을, 물논하야, 暴威를
가지고, 그물화를, 양탈. 니, 그行爲
를, 마를후는, 사름이, 잇스면, 下屬은
그저, 上屬의, 명령이, 라고후며, 또그
上屬은, 그저, 정부의, 명령이, 이
일이, 國際條約에, 틀난지, 엇던지, 감
히, 알비아나, 라고후야, 도적남자후
이, 방후다나, 果然乎아

●內侍拿

●內侍拿
일전에, 북장등스, 는,
시들이, 슈천양사가, 지고, 노름후다
가, 경무청의, 서니시, 를잡아, 가고장
전은, 당차순금다, 러, 먹, 啖후였다
니, 자일에, 郊外동서, 노름군, 김규창
등, 철팔인을, 잡아가서, 근일잡가
가, 디, 단이, 生後후, 다후다라

●妖魔有

●妖魔有
이왕의, 창기의, 서방을,
이, 향손이, 읍사, 들며, 호와, 호식을,
후다나, 官되, 는, 창기의, 서방을,
도모지, 성활할, 도리가, 전현읍서서,
각자, 든, 몇원사, 구취후여, 미등스, 주
전골등지의, 요리집을, 비설후였다
디, 모든, 갈보와, 재반음식, 이, 가히
일, 이되, 한번, 구할, 평만, 후다다라

●狂風暴

●狂風暴
동소문안두다, 락목게,
호창너가, 잇서, 밤마다, 간부두를,
상관후다나, 작야에, 관부이, 인이,
병후야, 다그집에, 왔스면, 창도의
력세가, 극히, 민만, 후지라, 그계집이,
지아니

●依願免

●依願免
金鳳植,
閣下植,
軍院校書,
以上判,
厚陵參差,
尹定求

●牙山秋

●牙山秋
성들이,
소를치,
아동주,
철십이,
소을가,
도못후,
다라

한 제주 인후야, 몸을 피후후야, 두스름이, 관, 영광, 내가 먼저 왔노라, 내가 먼저 왔노라, 관, 강능, 고, 선후를 다투어, 분명히, 의심하, 관, 임천, 하여, 동리사람들이, 그집에, 들, 관, 강계, 입하야, 양인을, 다축출하였다, 다라

● 牙山秋信 충청도아산등지에, 비, 관공수집, 성들이, 모히여, 신들을, 다당에, 전 신문, 소를, 더미고, 승부를, 결단하는, 아, 동중종과, 노소업시, 유백명, 중, 에, 철십이, 세노인이, 우등이되야, 그, 소를, 가져가노니, 관광하는지, 할말, 도못하고, 금고에, 초음보노일이, 다라

● 叙任及辭令 ▲ 依願免本官 宗正院主事崔水運, 秘書院郎, 金鍾振, 惠陵參奉金泳, 免本官 厚陵參奉, 金鍾振, 任官內府特選官 從二品趙鼎九, 奎, 閣李植, 以上勅任官四等 ▲ 任秘書院郎 奎, 章院校書沈理燮, 任奎章院校書 九品閔鳳植, 以上勅任官等 ▲ 任宗正院主事 盧斗承, 任, 厚陵參奉 崔京植, 惠陵參奉 景襄參奉金宗, 添 ▲ 任景陵參奉 金炳範, 以上勅任八等 以, 上九月十八日 ▲ 命大臣署理事務 宮內府協辦, 尹定求九月十九日

● 郭御史傳 (續)

어스갈아티, 나도지극, 나이어리나, 여, 러히 작직하고로, 고성을만나하, 여, 남의불상을말을드르주, 남의일, 이라도, 나가당할일이나, 다름을난, 고로, 서로비회를위하리니, 조공도, 은회말고자셔나, 자초지종을말하, 소하니, 노승이, 관을세우고답하, 여갈아티, 소승의차난열을, 말하자, 하면, 자승이말하고, 청신니아두하, 나, 그처럼무루서나, 말승을이다, 하고, 자초의, 소승이기르던말과, 심서사귀하여, 초승이미워하던말, 과, 소승장자의장가드린말과, 소, 옥말이일변말과, 심서하고종하, 고다할관노빈말과, 노비천답다난, 위, 구교번죽주고나와서중된말을, 나, 낫치하니, 어스이말을듯고, 그, 노승압해업더지며, 늦게며를쳐날, 그, 노승이무산연고연치, 하지못하, 간만는, 노승역시, 보잡고우지를마, 그, 노승이먼저의라나

서, 어스갈위로하야, 갈아티, 소승, 은신제가갓치되야, 우난일이, 고이, 치아니하거와, 존귀은무삼일노, 나, 슬을말을듯고, 쳐다지우치난, 잇가, 파도의조려파시고, 그우치난, 소회를말승하시오, 한죽어소승기, 을다하고이러다시절하고, 살려안져, 엿자디, 귀신아위하고, 하날리도, 스, 우리조손을만나게하심이라, 소, 자파연소옥의, 소승이오나, 음당모, 로시을거시니, 자서이드르시옵소, 서하고, 정신을차리며, 유복으로나, 서사오제의, 모자후원의을나가서, 그, 모친이올며서, 신혼시지나던말, 그, 언던말이며, 심세의과거보려오다, 가, 공동손드러가, 스승만나던말이, 며, 칠년지난후, 다시명성으로가다, 가정양도의서, 진승상집의장가든, 말이며, 명성가서과거하야, 어스되, 여, 잘러은말을, 낫치다하니, 그, 노승이, 그제야참, 자거의손자로알, 고, 다시보듯고, 을기를, 마지아니하, 니, 어스위로하야, 갈아티, 하날리, 천들을가리스, 오날우연이, 조부를, 만나오니, 지금이야, 죽소은들, 무, 손한나잇소를잇가, 너머스려하시, 고, 짐으로도라가셔서, 말연복조를, 우리소셔하니, 그조부가, 갈아티, 아일이참뉘닌가청신가, 아죽제다, 지못하계시나, 여, 괴져늘주가, 여, 러, 비나라, 나, 한여러날무스이갈라니, 와, 나난어드로가셔, 어느덕의올라, 하나나, 어스갈아티, 소자난자연, 위의하야, 가올거시니, 염여마시옵, 소져하고, 열을의, 관자하야, 이회, 피호말노전하고, 열을의등히하야, 소, 경열도의, 지취분명하니, 그듯난스, 람더리, 어스그결승을불너, 빅비치, 하하야, 갈아티, 나의조부가, 귀사, 의오셔서, 사발위승하야, 십이, 을, 고, 독단신으로, 편니계시다가, 하, 날이지지하야, 불소손을, 만나보시, 고, 지금고향으로도라가시니, 이, 을, 은, 해난반골난망이라, 하고돈삼천을, 을, 그결의시주하야, 갈아티, 이거시, 악소하나, 귀스은해물, 만문지설이, 나, 갈이니, 존스더러, 주다말고결로, 로바드라하야, 그승도더리, 빅비중, 스하야, 갈아티, 존공이, 비스외오실, 지, 거연신구이오나, 종적올과이, 고, 불법을파히승상하스, 계승이불, 도워어들지, 아나호려시, 로, 존공, 의더티이온디, 또시주삼천을을하, 사니, 아갓은빈스자, 다시요부하페, 하야, 주치니, 함스무한하오나, 존, 공이, 고향으로, 도라가자면, 승도의, 절하하야, 암을, 웃지다충양을을잇, 가하고, 계승이, 그, 이, 은, 나, 큰, 장, 차, 을, 비설하고, 종일을거갈, 어스또하, 그조부를와시고, 날이맛도룩질기, 더라, 이, 은, 날, 어스, 그조부를, 치하하, 고, 어스도갈을저축하야, 떠날선, 그, 계승더리, 절동구박게나와, 전승하, 미, 서로그창연하야, 마암이, 비홀터옵, 더라, 어스다른골노, 차차염답하야, 가니, 자연세월이오리더라, 이저진, 승상집의서, 과당을보되, 다시소, 식도듯자못하야, 궁금하야, 승상부, 부, 그결을다리고, 댁말하야, 갈아티, 늦게여아을두어, 노리의자미를, 보고자하야, 더나, 과남이한번가마, 다시소식도옵시니, 장창초지하면, 조으리오, 하더라, 이저어스종인을, 다리고, 정양도로향하야, 그골자스, 어스, 온다난말을듯고, 오리박게나, 와맞드러니, 그위의을, 귀경호만, 하티, 어스그골의드러가, 상변을분, 명이고, 그골자스더러, 진승상집, 을무룬디, 자스디답하되, 웃자이골, 진승상을, 아나잇가하나, 어스갈아티, 니, 알만하디이다, 그진승상연죽, 나, 의, 처부이오라하니, 자스그말을, 듯고, 진승상잡으로, 관예을보되, 고, 열도의노론을노은죽, 진승상, 이, 이, 비, 별을듯고, 니, 당의드러가, 그부, 이, 을, 보고말하되, 과남이, 명성의가, 서과거하야, 지금어스로, 이골에와, 서, 지금우리집으로온다고, 노론이, 왔나이다하니, 부인과그말이, 이말, 을듯고, 여, 광여하하야, 미완

●俄國賈人獲特許

물·적·간·음

십여 명을 같이 하여 보기도 하여

고고(古高) 또 지를 한성파 안천에 두고 일년일반사(日半時)을 할양(行良)이라 일일이 있어서(該會)의 함으로(以) 방외(防外) 처분(處分)되니(不)한도선정부하(干道選正部下) 고(高)한을(有)나(有)배(倍)함
一 제약지스(制約地斯) 만악(萬惡) 여러는(非)날슬때(是) 때(是)로선(是)로선(是)문(文)은(은) 그(其)로(로)호(好)되(되)니(也) 호(好)우(友)로(로) 교(交)해(海)할(將)을(有)
무산은(無山은) 화평복도의(化平福都의) 속(屬)하였던(在) 저북이(北) 부합(符合)이(以) 판도의(版圖의) 으뜸(最)이라 두만강이(杜漫江) 그북의(其北) 흘러서(流而) 저물수(低物水)은(은) 하기가(可) 편리(利便)하라(也) 조고로(趙高路) 저목의(저木의) 마한(馬韓)자는(者) 반다시(反 다시) 무손군(無孫郡)을(有) 청하(淸河)라(也) 을(有)도(도) 강원도의(江原都의) 최(最)대(大)라(也) 그섬(島)음이(音) 큰데가(大) 소산인(小山人) 고로(故로) 의안(義安)이라(也) 후주(後周)라(也) 천하고(天하고) 그섬(島)음을(有) 예전(豫前)의(의) 간손군(杆孫郡)이라(也) 하였는지(有) 일도의(一日의) 인영(仁英)의(의) 읍(邑)이니(也) 중업(中業)(은)으로(以) 들어(入) 가서(去) 변민들(變民들)이(也) 차차(次次) 이(以) 주(主)야(야) 근(近) 일족(一域) 어장허스(魚莊許斯)(蜚蜚)(蜚蜚) (가) 포서(పో서) 시간(時間)의(의) 은(은) 사(沙)이(也) 있고(也) 또조훈(趙趙)은(은) 무가(無加) 을(有) 창(창)하(하)야(야) 참(參)하(하) 상의(上의) 아람(阿蘭)다운(다운) 구경(具景)일(一)나라(也) 압록(鴨綠) 흥안(興安) 일(一)지(地) 인죽(仁竹)유가(柳柳)가(也) 천(天) 나(나)아(아)요(요) 또무령(又無寧)이(也) 잇서(立서) 비록(比) 무손파(無孫波)을(有)이(以)판은(은) 못(沒)하(하)느(는) 또한조(또한趙) 선의(善의) 양립(兩立)한다(也) 라

가히 펴 누리오 만일 리쳐올 어기

外

을, 빙지
우려, 후
감부철
로의지
이, 약
인천간
이, 심
아, 앞
미, 국
천간, 철
설로, 아
지, 아니
아, 일
그, 아
갓가, 하
도, 미
이, 제
이, 평
이, 약
지, 못
을, 막
를, 막
슬, 막
지, 라
구, 실
성, 부
진, 정
에, 계
일, 간
로, 써
해, 아
디, 제
고, 과
가, 더
의, 주
가, 경
경, 성
오, 이
이, 제
조, 가
고, 것
스, 니
을, 외
리, 지

그 주은 부은을 듯만 왕회가, 곡을
며, 배를 주전이니, 사름마다, 충
천하나, 미의의, 유유자를 나
또를 마나하와, 양유의 아르라, 그
역로 부처의 시의, 남이 보고듯만
설, 형의 아니하고, 또경주아오, 암
자의 이르러, 사발하고, 종이 되야
엇더니, 또그후의, 다시양유, 남성
교서, 보덕암의, 이르러, 의제하고
엇시나, 나이제우, 나십내제라, 암자
의종이, 심의명이, 인단되고, 못지,
이궁변하나, 왕회가, 의복을가지고,
후서설리될가, 하여, 심심장지하
라, 전월의, 호면의, 백씨형, 손관찰
다하고, 또드르니, 그유복자가, 그
집부인의제, 길인단하니, 고고이
우난소리를, 생각하면, 창자가, 뎌어
지, 단간가, 다라, 오운명기종의, 진원
지, 일도의, 유여사지, 보코가, 그정
경이, 서로가, 지아나하더라
●元應大慈 황회도중전거하난, 김
모호사람이, 잇스니, 노리의다만
설을두어다가, 시집을, 삼십나히되
난뒤로, 보닛더니, 김모가, 소하
을과아, 소갈반향을지고도라을길
의, 그들의집을차드러가니, 설의
니외카, 문밖게나와, 반갑게마자드
리거날, 김모가드러가미, 전역반을
너거날, 전역을먹고, 곤음을이그지
못하와, 즉시자다가, 밤오아이리미,
그설의의가, 불을들고, 김모자난방
의, 드러가보니, 참곤나자거날, 이의
식도를, 가져다가, 목을질니, 급피그
신태을가져다가, 그담뒤술을술들
밋히, 모고그도를취하여시미, 그덕
참곤하, 스람인죽에살먹은아하
나별이라, 그후의그김모의처이, 그
늘곤난편니, 소을팔니간지가, 여
날되야도, 오지아나하거날, 그처가
어인일인지물나, 차져나서, 그들의
집으로가서, 김모가소팔나가더니,
오지아나하난, 곡절을, 부루니, 그
설의의가, 창황하여, 더다물하난가
은의, 몇회그대살먹은아하하하

다카, 만하하하하하, 저의의조부
지금동산만하하, 담알리이다하나,
그노회가, 즉시동산으로가서, 담
철파론주, 파연선대가안단다, 목을
질너가나, 그노회, 그선례을브를고
의성을공하하하, 하난말이, 천지의아
런면이, 어대잇사며, 이런가상아어
디잇스리오하하, 급피판가와고하
니, 판가의서, 그판집과사나의를
자바다가, 허리를버이고, 그사세아
하난, 원방으로보되다하나, 만고의
웃지, 이가튼일잇사리오, 하난사
들도그분하을, 이가지못하더라

詞藻

이, 평
이, 약
지, 못
을, 막
를, 막
슬, 막
지, 라
구, 실
성, 부
진, 정
에, 계
일, 간
로, 써
해, 아
디, 제
고, 과
가, 더
의, 주
가, 경
경, 성
오, 이
이, 제
조, 가
고, 것
스, 니
을, 외
리, 지

그 주은 부은을 듯만 왕회가, 곡을
며, 배를 주전이니, 사름마다, 충
천하나, 미의의, 유유자를 나
또를 마나하와, 양유의 아르라, 그
역로 부처의 시의, 남이 보고듯만
설, 형의 아니하고, 또경주아오, 암
자의 이르러, 사발하고, 종이 되야
엇더니, 또그후의, 다시양유, 남성
교서, 보덕암의, 이르러, 의제하고
엇시나, 나이제우, 나십내제라, 암자
의종이, 심의명이, 인단되고, 못지,
이궁변하나, 왕회가, 의복을가지고,
후서설리될가, 하여, 심심장지하
라, 전월의, 호면의, 백씨형, 손관찰
다하고, 또드르니, 그유복자가, 그
집부인의제, 길인단하니, 고고이
우난소리를, 생각하면, 창자가, 뎌어
지, 단간가, 다라, 오운명기종의, 진원
지, 일도의, 유여사지, 보코가, 그정
경이, 서로가, 지아나하더라
●元應大慈 황회도중전거하난, 김
모호사람이, 잇스니, 노리의다만
설을두어다가, 시집을, 삼십나히되
난뒤로, 보닛더니, 김모가, 소하
을과아, 소갈반향을지고도라을길
의, 그들의집을차드러가니, 설의
니외카, 문밖게나와, 반갑게마자드
리거날, 김모가드러가미, 전역반을
너거날, 전역을먹고, 곤음을이그지
못하와, 즉시자다가, 밤오아이리미,
그설의의가, 불을들고, 김모자난방
의, 드러가보니, 참곤나자거날, 이의
식도를, 가져다가, 목을질니, 급피그
신태을가져다가, 그담뒤술을술들
밋히, 모고그도를취하여시미, 그덕
참곤하, 스람인죽에살먹은아하
나별이라, 그후의그김모의처이, 그
늘곤난편니, 소을팔니간지가, 여
날되야도, 오지아나하거날, 그처가
어인일인지물나, 차져나서, 그들의
집으로가서, 김모가소팔나가더니,
오지아나하난, 곡절을, 부루니, 그
설의의가, 창황하여, 더다물하난가
은의, 몇회그대살먹은아하하하

다카, 만하하하하하, 저의의조부
지금동산만하하, 담알리이다하나,
그노회가, 즉시동산으로가서, 담
철파론주, 파연선대가안단다, 목을
질너가나, 그노회, 그선례을브를고
의성을공하하하, 하난말이, 천지의아
런면이, 어대잇사며, 이런가상아어
디잇스리오하하, 급피판가와고하
니, 판가의서, 그판집과사나의를
자바다가, 허리를버이고, 그사세아
하난, 원방으로보되다하나, 만고의
웃지, 이가튼일잇사리오, 하난사
들도그분하을, 이가지못하더라

懸賞募詩

이, 평
이, 약
지, 못
을, 막
를, 막
슬, 막
지, 라
구, 실
성, 부
진, 정
에, 계
일, 간
로, 써
해, 아
디, 제
고, 과
가, 더
의, 주
가, 경
경, 성
오, 이
이, 제
조, 가
고, 것
스, 니
을, 외
리, 지

그 주은 부은을 듯만 왕회가, 곡을
며, 배를 주전이니, 사름마다, 충
천하나, 미의의, 유유자를 나
또를 마나하와, 양유의 아르라, 그
역로 부처의 시의, 남이 보고듯만
설, 형의 아니하고, 또경주아오, 암
자의 이르러, 사발하고, 종이 되야
엇더니, 또그후의, 다시양유, 남성
교서, 보덕암의, 이르러, 의제하고
엇시나, 나이제우, 나십내제라, 암자
의종이, 심의명이, 인단되고, 못지,
이궁변하나, 왕회가, 의복을가지고,
후서설리될가, 하여, 심심장지하
라, 전월의, 호면의, 백씨형, 손관찰
다하고, 또드르니, 그유복자가, 그
집부인의제, 길인단하니, 고고이
우난소리를, 생각하면, 창자가, 뎌어
지, 단간가, 다라, 오운명기종의, 진원
지, 일도의, 유여사지, 보코가, 그정
경이, 서로가, 지아나하더라
●元應大慈 황회도중전거하난, 김
모호사람이, 잇스니, 노리의다만
설을두어다가, 시집을, 삼십나히되
난뒤로, 보닛더니, 김모가, 소하
을과아, 소갈반향을지고도라을길
의, 그들의집을차드러가니, 설의
니외카, 문밖게나와, 반갑게마자드
리거날, 김모가드러가미, 전역반을
너거날, 전역을먹고, 곤음을이그지
못하와, 즉시자다가, 밤오아이리미,
그설의의가, 불을들고, 김모자난방
의, 드러가보니, 참곤나자거날, 이의
식도를, 가져다가, 목을질니, 급피그
신태을가져다가, 그담뒤술을술들
밋히, 모고그도를취하여시미, 그덕
참곤하, 스람인죽에살먹은아하
나별이라, 그후의그김모의처이, 그
늘곤난편니, 소을팔니간지가, 여
날되야도, 오지아나하거날, 그처가
어인일인지물나, 차져나서, 그들의
집으로가서, 김모가소팔나가더니,
오지아나하난, 곡절을, 부루니, 그
설의의가, 창황하여, 더다물하난가
은의, 몇회그대살먹은아하하하

다카, 만하하하하하, 저의의조부
지금동산만하하, 담알리이다하나,
그노회가, 즉시동산으로가서, 담
철파론주, 파연선대가안단다, 목을
질너가나, 그노회, 그선례을브를고
의성을공하하하, 하난말이, 천지의아
런면이, 어대잇사며, 이런가상아어
디잇스리오하하, 급피판가와고하
니, 판가의서, 그판집과사나의를
자바다가, 허리를버이고, 그사세아
하난, 원방으로보되다하나, 만고의
웃지, 이가튼일잇사리오, 하난사
들도그분하을, 이가지못하더라

●為さしり
●消息
●夫は仕舞ふしなりとて見えて
●ユリ手取り足取り其尻を戸外へ持ち出し
●五時半頃
●時此事を知るも代ては現に斯る大愚事を行
●ひし夫婦の外には謂つて無き強ひて有りとせ
●ば唯だ其場に附き従ひ居りし四歳の幼兒ある
●のみなりし
●(未完)

●此山道山にて同地
●方の壯年輩相集り牛を屠して角力を爲せしが
●此時頭髪雪の如くある一人の老翁は山の如く
●に群がる見物人の中を潜りて土俵の上に跳り
●出で最も勇力ありと人々許し已れり誇り居た
●る一人の壯年を名指し力角せんことを挑み
●ければ該壯年は小癪する老翁と云はれはか
●りば癪みあかしで序々土俵へ上り來り
●て取組みたりしが此老翁中々の強力にて造作
●がまし該壯年を挽け付け海狗が如くする指
●手喝采の中を其時得たる牛に誇り悠々とし
●て立ち去りたりと後にて聞けば此老翁は本年
●七十二歳なる由近頃の珍話と云ふべし

●地震と事變
●當國にては地震は極めて珍
●らしきことなるが一昨夜三更過ぎに微震あり
●たり愚昧なる輸入中では之を以て事變の神
●兆と云々喧々々々恐怖し居るものありと云ふ止千
●萬あり

●輸入輸入額
●本邦より當國に輸入する額
●の數量は年々地方販路の擴張に伴い増加し
●つゝあるが之が主産地たる大阪、神戸の二港
●より當國に輸入したる最近三ヶ年間の額と比
●較すれば左の如し

●年別 數量 價額
廿五年 二二〇、六五三 四八、〇八二
廿六年 二二四、二九〇 五九、五五〇
廿七年 二六八、一三六 七六、一七〇

●而して本品には安全製、黃燐製の二種あり黃
●燐製は本邦に於て去る廿三年より始めて輸出
●を許されたものにして爾來當業者は汲々として販路の擴張に力め其結果年々著しく輸入
●の額を増じ又平安、黃燐二種の如きは却て黃
●燐製を喜ぶの傾きを生じ來たりたるものと安全
●製に比すれば輸入開始以來年々開すること遠
●く未だ一般の信用を得ざるを以て其額遙に僅
●少なりと今右の輸入額を兩程に區別すれば
●左の如し

●年別 數量 價額
廿五年 二二〇、六五三 四八、〇八二
廿六年 二二四、二九〇 五九、五五〇
廿七年 二六八、一三六 七六、一七〇

●廿五年 二二〇、六五三 四八、〇八二
●廿六年 二二四、二九〇 五九、五五〇
●廿七年 二六八、一三六 七六、一七〇

●廿五年 二二〇、六五三 四八、〇八二
●廿六年 二二四、二九〇 五九、五五〇
●廿七年 二六八、一三六 七六、一七〇

●廿五年 二二〇、六五三 四八、〇八二
●廿六年 二二四、二九〇 五九、五五〇
●廿七年 二六八、一三六 七六、一七〇

●廿九年 京城輸出入月報
(京城商業會議所調査の資料) 永原

廿九年
八月

中

京城輸出・入月報

(京城商業會議所調査の基礎) 永原

▲八月中輸出・入貨物價格表

種別 月別 上半期 下半期

三ニス 四圓五拾錢 四圓七拾錢

井 四圓五拾錢 四圓七拾錢

前開ニ全ア

前開ニ全ア

抄 約

煙草葉	四圓五拾六錢	全
求已圖	四圓五拾錢	全
黑人形	四圓	全
寒冷紗仙人	壹圓參錢	全
白紙仙人	參圓拾六錢	全
紅金市五半	貳圓七拾錢	全

三	馬	四圓五拾六錢	四圓五拾八錢
赤	鷄	四圓九拾錢	五圓
赤	人形	參圓八拾錢	前期二全ヲ
寒冷紗紺織		壹圓八錢	全
白絹	花活	參圓參拾貳錢	參圓參拾錢
黑	絹	參圓四拾錢	前期二全ヲ

甲斐絹	上	八圓	全
甲斐絹	並	四圓七拾錢	全
河内	木綿	壹圓拾五錢	全
丁絹	大形	貳拾九圓	全
丸荒	絹	貳拾六圓	全
折	錫	四拾貳圓	全
其餘	板	壹拾五圓	全

明治

●特別廣告
●九月十八日
●本願寺別院

●特別廣告
●九月十八日
●本願寺別院

●特別廣告
●九月十八日
●本願寺別院

●特別廣告
●九月十八日
●本願寺別院

●特別廣告
●九月十八日
●本願寺別院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廣告

●**玄海丸** 九月廿三日入港廿四日出帆
芝罘天津行 船長 茂木 彌之
八百七十四噸

●**薩摩丸** 十月五日入港 六日出帆
馬關 香港行 船長 ソノヤ
千五百五十七噸

●**長門丸** 十月八日入港即日日出帆
長崎 釜山 元山 浦項行 船長 ウィルソン
千四百四十九噸

●**兵庫丸** 九月 日出帆前日入港
長崎 釜山 元山 浦項行 船長 アナル
八百八十一噸

●**豐島丸** 九月 日出帆同日
入港釜山 下關 神戶行 船長 井上 猪三郎
六百八十九噸

●**肥後丸** 九月 日出帆 日入港
釜山 對馬 長崎 神戶 保 船長 村井
八百七十一噸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坂商 瀛船仁川廣告

●**信濃川丸** 九月廿二日入港 同廿三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行

●**筑後川丸** 九月 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行

●**木曾川丸** 九月 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行

●**隅田川丸** 九月 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行

●**仁川荷客取扱所**
大坂商 龍仁瀛船龍山出帆廣告

●**正重丸** 九月廿二日 午前六時出帆

●**安來丸** 九月廿三日 午前六時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京仁間和船取扱所**

●**慶田組**

●**大林回漕店**

●**村上唯吉**

●**村上唯吉**

●**明治廿九年**

●**明治廿九年**

●**明治廿九年**

●**明治廿九年**



御旅館
朝鮮仁川各國居留地
第貳拾六號地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旅 東京館**

●**夜着布團**

●**小袖綿肩**

●**首環卷絹手巾**

●**高帽子**

●**ゴム靴**

●**柳行**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馬具**

布團 手巾 靴類 革判 種々

京城料理業者一同
近來一般不景氣、付キ吾々料理業者一同申合
初見ノ御客様は都々現金ニ頂戴仕且是迄月末
御拂無之御方ハ毎月榮會ノ上取調へ以後何方
ニテモ御登帳ヲ斷リ候様取極メ候間此致爲念
廣告仕候也
二十九年九月十二日
鶴田權六

阪堂

朝鮮物產依託販賣
并ニ諸雜貨買次業
右ハ萬實チ旨トシ精々御便利ニ取致
可申候間多少ニ拘ハラズ御用向アラ
ソナチナ
大阪市西區北堀江通四丁目

井出商店
京都 門通 南大 大坂 京町 通

加庄野嘉久藏
藥局方和漢洋藥廣賣
各位ノ御愛顧ニ依テ増ニ盛商幸厚謝
一務勉強仕候間不相變多少ニ不限御注文
御用ノ程快ナ希望仕候
日本大坂
東區道修
町壹丁目
成尾安五郎

五郎 仕候散具

免轉住廣告
鍼術灸治療所
私儀是レ迄田原旅館ニ止宿罷仕候處
今致部合ニ據テ左ノ邊へ移住仕リ從前
通り不相變治療仕候
泥規田原旅館向高平借宅
久田安生堂

張店 賣

瑞西製
最新子スルスミル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京城泥規
龜屋分店

張店 賣

瑞西製
最新子スルスミル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京城泥規
龜屋分店

朝鮮國一販賣
洞貞 店商辻 覬泥 店支辻
●パイレット煙草ノ幾今般東京輸入元本
村商店ト特約ヲ結ビ朝鮮國ニ於テハ一手
販賣ヲ相登メ非常ノ盛衰ヲ以テ賣弘メ
候間横々御注文ノ程幸甚望候
向ホ此他弊店販賣ノ煙草
●フレンドレス・ソフ・ナ・モ・シ・ド・ス・リ・カ・ス・メ・マ
●ト・レ・イ・ト・カ・ン・ト・ハ・チ・デ・ニ・カ・ノ・オ・カ・レ・ワ
●ナ・ル・キ・ア・ン・イ・ン・ブ・レ・ス・カ・ロ・リ・ナ・ビ・ン・ハ・フ
●ド・ス・キ・ト・カ・ボ・ラ・キ・ン・グ・フ・フ・ン・ヤ
●金銀各種ノ眼鏡ハ河レモ精巧ノ品ニシテ
今般新荷來着仕リ候ニ付御愛求ノ程幸甚望候
上候
●此他弊店本業ノ雜貨澤山新荷仕リ候ニ付
併セテ御購求奉願候

第六會正風集
兼題 月 正風
豐秋園瑞穂宗匠樂撰
●寄限
九月廿五日●撰定全月
廿六日翌日漢城新報ニ
掲載詠草ニハ居處雅號
及ビ通稱ノ明記ナク
●入花堂組(拾句)金六錢
●八重組四錢詠草ニ添ユ
●天位漢城新報ニヶ月分
●地位全一ヶ月分人位貳
●組五墨堂組拾壹半組
●各大會無入花堂句高ニ
●依リ増資
●漢城新報
●社理備設
●正風會
●投込所

新到荷蘭
●東京カル、ス煎餅
●舶來ビスケツト
●瓶入洋菓子數種
●梨、桃、梅、杏、罐詰
●堅魚でんぶ
●小鳥大和煮
●鮮魚佃煮
●海苔大和煮
●外ニ
●竹の子 豆 椎茸
●福神漬 加羅子
●紫芽菜 羊子漬
●京城泥規
●龜屋

新茶
●一斤金壹圓五拾錢
●五圓迄
●御煎茶 一斤金拾六錢
●御薄茶 極細。廣葉。上別選。
●此三種御入用ノ節ハ御申越シ次第早送
●挽上ノ御注文ニ應テ申候
●右新荷仕リ候間大方ノ諸産皆御用御愛求テ
●買フ
●茶 店 京城泥規
●河村至誠堂
●朝鮮餡
●一名肥產
●御モ此ノ朝鮮餡ハ肥後國ノ名産ニシテ其
●味ノ美好ナル邊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
●且ノ幾日ナク遠ク運メ腐敗ノ患無ク兼テ
●一箱ヲ置ケバ坐右ノ茶菓子トシ最上
●ノ好品ナリ大方之諸産一箱ヲ購テ試用シ
●五ハハコトヲ冀フ
●朝鮮國
●京城泥規
●小林菓子製造所
●發行所 漢城新報社

漢城新報

中華民國九年九月十四日

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에
백제나
의마
자드리
니어
스함
마함
여승
장을
뒀시
고집
으로
드러
가니

(附)

나 의, 마 자 드 리 니, 어 스 곱 마 곱
상 을 뒀 고, 집 으 로 드 러 가 니

조성이, 벼슬을 단여, 남군은 섬기켜
의와, 집혀 남지, 솟금 팔구연이라, 의

말인고, 반신반회하여, 비보익을

雜報

日本外務大臣更調

大隈重信 西園寺公望

任外務大臣

依願免本官

同諸大臣更調

任內務大臣

樺山資紀 高島綱之助

兼任陸軍大臣

任司法大臣

大山 巖 板垣退助 芳川顯正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加藤高明 板垣退助 芳川顯正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日本外務大臣更調... 大隈重信 西園寺公望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依願免本官

[illegible]

六辨證
地方轉讓者
賣告價
壹拾壹元
一拾貳元
一拾參元

々拂還すべしと云ふ

たる他國人との賣買を嚴禁せしより國主の禁

朝鮮銀行定款
(承重)

300

●朝鮮銀行定款
(承造)

出を減ずる。織物も日本本織にすべし。

(水前)

れより参拜者一同鑾前に禮拜し是れにて式を卒へたり此の日我居留地にては早朝より戸毎に國旗を揚げ球燈を吊らし式鑾の周圍には懸幕と雲り中に旗、吹抜等數十座を建て流じ鑾前よりは式の初め供物を捧げ饗宴として相誘ふ。大月、競馬等の盛況しかり頗ぶる盛況なり。

● 中九年
八月 中
京 城 輸 出 入 月 報
(京城商業會議所調査の要領) 承前
▲ 八月中營業種別并増減比較表
月別 別
七月中 八月中 營業(差引) 増減
貳〇

（京商會調查所調查の要領）承前
 ▲八月中營業額別并増減比較表

別	七月	八月	營業額	差引	増減
行	二	二	〇		

伴 道 正風會寄稿續
 ○五 聖
 霜の音も添て床しき名の夜哉 路崎岡月
 名月や松に見ゆぬも一ト風情 仁川牛馬
 薄雲の有るも木たよし 路崎岡月
 起て見つ寝て見つ月の今宵哉 仁川南陽
 旅せせし果報上須磨の月今宵 義月
 ○三 才
 欠るべき物と悟れよ今日の月 仁川加遊
 心さる新く磨けよ今日の月 義月
 名月や片雲よて安き御代の徳 仁川御心
 追 加
 幾千里此の蟬より上月金響 判者 瑞穂
 賞與披露
 特別正風集の成績はより賞與せる左の如し
 ●本紙三ヶ月 初心伯●全一ヶ月及び貳風
 無入花 加遊伯●三組無入花 南陽伯、牛
 水伯●貳組無入花 牛馬伯●壹組無入花
 柳南伯

彼岸會執行
死亡者遺囑
九月十八日

● 類聚は衛生と冒とす ●

朝鮮一手販賣 京城泥規 龜屋

慶田組

10

1

組

發行兼印刷人 在八林 恒人
編撰人 島田 龜雄
朝鮮國京城南區會賢路四〇號

심호디니, 네가 이렸듯 귀이 되며, 조부를 되셔 오고, 무수히 집으로 도라오니, 옷지반갑지아니호요, 민들지

아니 할리오, 이제 난 죽어야 할지 모르나

도다하니, 어스름이 소자가 모친
실상을 떠나, 그스이 모친께, 근심을

다시 되서, 싱겁힌 혼을 풀어 스오니, 주부를 웃지 다함. 차야니 흥을 잇가, 그러나

부친은 슈을 갑하여, 평성 혼을 풀지
스온디, 오지하면 조으을 잇가, 그 조
부와, 그 모친이셔 료글스디, 한의말

리오, 도시나, 의 집은 슈라, 누를 할

리, 오, 분홍을참마, 복을누리자
라이싸향당제족과, 일향사롭더

송충, 난말을 웃지과룩하리오, 어스
를 일은 큰 잔치를 벌설하고, 노소읍

다 모이여, 여러 날 절기 더러, 할로
만그 모친니, 어스더러 말하되, 지금
과서, 다른 성밖은, 별 노읍시나, 다

진 씨가 떠나리, 보랴는 마암이 간
을 하니, 네 날을 위하야, 속히 다려 오
하니, 어스고 모천 베했자와 말하

남의 자식이 되여, 웃지 부모의 마음
조곰이나, 좇자야 나 할리 오,
속되다 하고, 이나 할고, 큰

나를 사서, 너의 신분, 명이 중하
각 각 침소를 마련하니 노비 등속

조유의 호위하여, 그 사냥법결이
일향의 으뜸이라, 일々は, 어스
지를 닦아, 진승상집으로 보나와,

부인을 권귀하랴 하니, 지송상이,
편지를 보고, 즉시 혁일하니, 송상
그들을 다리고, 눈썹으로써 갈서

위의을 빼풀어, 여러 박리를 가나,
로 의보 산사름다 리, 누아 나 중찬
리오, 길일이 당하 며 오만, 한 부

구교에 제외오니 그모친나 그화
월터올보고 일변으로 갓가 하며

라, 진승상과, 광부응과, 장씨의
사름이, 술을진취투록먹고, 서로

기울마지아니하니, 보난채를
리, 흠섬이 하나여 귀난죄을더라
러날만의, 진승상이, 도라카미울

시축을 거날, 어스부득이 하여, 할
을가 초와, 진소장을 돌며 보, 뵈더
미완

(實)

을, 조곰이나, 좇자야 나하리오,
 스담이 속히 다려오리 다하고, 곤집
 을 나을사서, 너의를 분, 명히 잡하
 , 각각 침소를 마련하니 노비 등속
 , 죄우의 호위하여, 그사 난법절이
 할향의 으뜸이더라, 일々は, 어스
 지을다가, 진승상집으로 보나니,
 부인을 권귀라 하니, 진승상이,
 편지를 보고, 즉시 편일하여, 승상

建武元年九月三十四日

內閣總理大臣 尹容善

新官制는 아직 반포되지 아니함으로
자세히 아진슈업스나 지방그대
장들의 말을 諮問을 주위의 정부는 議政院
에서 各一人 贊政十二人을 가지고組織하니
참정은 내부대신을 들을고 議政中
에서 여러 官廳은 內閣外의 각부대신을
兼하니 그대신을 兼한 贊政은 贊政
政務廳의 臣이라 칭함. 아진작업에 죄
의 조처를느리사 새로 의정과
찬정을 인명하시더니 죄의

及議官調任

及議官調任

閔泳駿

從一品	正二品	正二品	正二品	從一品
尹宰衡	李致顯	申獻文	金世榮	任中樞
一等議官	叙勅任官二等			

金炳始

經筵院卿

金太壽

特命全權公使

尹用求
南廷哲

臣

尹容善

致

詔勅

陰曆八月二十日朔莫朝上食祭文官視禮以下
陰曆八月二十日晝祭禮祭文東宮官製下美
陰曆八月十八日十九日二十日各祭莫百官入
陰曆八月二十日別莫文陸武會經三品以上人
無資職入參哭班

懲戒免官(尹李二氏)

감춘회, 류세남등의 제씨를告發하야
 한부로 難職을 配쳤든, 情 무관운니
 병, 니 세진두세는, 실업슨일을 告
 하얏든거시라고, 一面에 올너든대로
 관리종계령을 發하야 면판되얏더
 라, 그리후고 그두세는, 그일이, 결
 아치못하

[illegible]

나쁜대로
관되었다

아침묵하니, 엿지홀리요, 주인의

티 일전의 그 동촌사반들근니하
이 그설이 죽으밋, 볼일이 잇셔,
을라고, 그동티을가니, 날아쳐를

이요 係數及回數도 弄차서
슬릴 밝고 此實舍價도 션금
로 밝스음

五言律體
一辨章評定甲乙以次錄顯云本新報其得甲者
者署以本新報一朔
一投稿者須及期想不採
一稿本必以楷字寫之
一投稿者必須明歐氏名別號寄港於錄報或置
記別號者不採
九月十八日

漢城新報社編輯部

新開紙一張價	一錢三分	一兩二錢五分	三兩五錢	六兩七錢五分	每月郵遞稅七錢五分	三錢五分
一朔間 先給						
三朔間 先給						
六朔間 先給						
地方驛讀者						
寄告價						

하늘을 알지 못하여서 三錢五分
이로 인하여 及回數로 인하여서 가
슬은 낮고 此賣書價도 선금으로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薩摩丸
十月五日由神戶(六日入港)
千五百九十七噸 船長 山本 一

肥後丸
十月八日由神戶(七日入港)
千五百七十七噸 船長 山本 一

長門丸
十月八日由神戶(七日入港)
千五百七十七噸 船長 山本 一

立海丸
九月廿九日由神戶(三十日入港)
千五百七十七噸 船長 山本 一

兵庫丸
九月廿九日由神戶(三十日入港)
千五百七十七噸 船長 山本 一

豐島丸
九月廿九日由神戶(三十日入港)
千五百七十七噸 船長 山本 一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坂 船會社 仁川 廣告

信濃丸
九月廿九日由神戶(三十日入港)
千五百七十七噸 船長 山本 一

筑後丸
九月廿九日由神戶(三十日入港)
千五百七十七噸 船長 山本 一

木曾丸
九月廿九日由神戶(三十日入港)
千五百七十七噸 船長 山本 一

隅田丸
九月廿九日由神戶(三十日入港)
千五百七十七噸 船長 山本 一

仁川荷客取扱所
龍仁瀛船龍山出帆廣告

正重丸
九月廿六日 午前七時半出帆

安來丸
九月廿七日 午前七時半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一等 壹圓
二等 七十錢
三等 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東京館

館

館

館

館

館

館



御旅神戶屋
第貳拾六號地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拾圓

和漢洋藥廣告

成尾安五郎

井出清造

鈴木錠藏

岡澤傑吉

村上唯吉

辻商店

辻支店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金四錢

廣告
本月廿五日ヲ以テ國
立銀行ノ營業滿期ニ付大
臣ノ認可ヲ得テ翌廿六日ヨリ株
式會社第一銀行ト改稱
シ資本金ヲ四百五十拾萬
圓ニ増加シ營業繼續仕候間此段廣告
致候也
明治二十九年九月

第一國立銀行

新荷到着

夜着布團座布團

小袖綿肩掛

首環卷絹手巾

高帽子シヤツ類

ゴム靴半靴

柳行李支那革判

馬具其他種々

鈴木大阪堂

業次貨雜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賣販托依并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廣告

日改稱 五拾萬 立銀行

前特別國分法ニヨリ明治三十年一月一日ヨリ株式會社第五十八銀行ト改稱シ資本金...

布手 靴類 他種 大阪堂

正貨 切手 紙幣 金貨 銀貨 銅貨...

井出商店 大阪堂

紙幣 金貨 銀貨 銅貨...

田組 出張店

紙幣 金貨 銀貨 銅貨...

田組 出張店

紙幣 金貨 銀貨 銅貨...

新到御披露 東京カル、ス煎餅 船來ビスケット 瓶入洋菓子數種...

第六會正風集 兼題月 豐秋園瑞穂宗匠樂撰...

朝鮮館 鏡眼種各銀金 ト | レイパ 賣販手一國鮮朝...

新茶 小林菓子製造所 河村至誠堂 發行所 漢城新報社...

漢城新報

隔日發刊

議政府官制

第一編 議政府官制

제일편 직원

의정부는 의정원 의원으로

의정원 의원은 헌법 제 61조의 규정에

신라 제후의 신 군부대신 법

신 찬정원인 찬찬원인

의정과 찬정원인 찬찬원인

각부대신은 그 직권상으로 찬정

을 예감의 찬찬원 찬임이나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을의청을 찬찬원

제팔조

각부대신은 그 직권상으로 찬정

을 예감의 찬찬원 찬임이나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삼품이상관으로 의정이 찬주

[illegible]

[illegible]

되문서를, 부정하면 하향은
서든지, 부분으로, 양중하실
성지가 유흥사나든, 탑전에 부정
함이라

저스조 회와에 열정호의안을,
다군주페호게서, 저가호실
생지가유사면, 가라호를다소를
불구코, 저가호시호 군원

아, 유혹시고, 억혹히의안에
타향야, 토론함이,
성자에, 불합하시면, 척표

한사(漢書)의 공(公) 지형(地形)으로 케(可)
심어라
오조(五朝) 의안(義安)은 여(여) 한(韓)정(正)에,
적(積)가 할(할) 실(實),

수의말, 의정에 제 측교사면, 히
의안에, 관혼법율과, 규주 등
을, 수장하여, 회안간에, 어

이봉 축서명호후애. 추명
을승. 야. 하안거을. 의정부
에. 화부. 하. 관보세. 반포

세육초 반포후난관보에난, 작기
훈포의로훈이라

일 여호한수항예 판행법을구
추증언예 조한
이글쥬예 주강을심을비호과
이형글창창예 서병도판과

삼 번을 기록 등안 제조와
사 산재 호안 현을 현안야, 여하
한, 댕을 기록 등안, 기명, 후페

오
안
금
삼
관

영원년 구월 니십사 일
니각 총니 타신 윤용선
의부 타신 니완용

宗臣錄南自有其額而現無感名實爲欠矣今此官制釐正之日宜其有變通者矣依前宗親府例以詩書禮樂序付宗正院

勅 宮内府大臣 李 穀 題
●觀光私記
병마영의 두령을 불러와서 하고, 또 순검의
사면의 하술을 아제관과 관과

는 사람울 면치아, 적간후며, 병은
궁삼눈을 닳고, 혈문으로, 제관일이
씩, 숨고하야, 되리며, 의곡반은,

삼문밖에서 그 밤 초월은 하여서
궁녀의 해를 반절만 하여도 후곡
비하고 된 후니 잊시며 비록 원

임의신이라도 종인하는도 못다라
고 들어가고 민씨들인즉 다 무예
정의로써 부익하고 벽제하면 서들

閔奎二氏 民영준씨는 그부친을 韓

직도, 거기 계시다 놓고도 김병사 씨
도, 그날入京하야, 송동집에 오셨다 하
기라, 그날로, 지방에 퍼하야 잇든

● 趙氏 家一族은, 물론 하야文苑남들이
퍼뜨려와다다라

○ 趙氏 家一族은, 물론 하야文苑남들이
퍼뜨려와다다라

閔泳煥氏
 近時들을으니, 겉노되사
 얏다는소문이 남지하더라
 閔영환씨가 아라스, 무관, 일인으

러란 俄國土音이라 하고 육군명령소지

의 바가 [고]고, 열을 내 명을 다라 고,
지나간 거심사알에, 인천으로 와서
[京]양다

矯制收斂 (平壤函告)
 이산각전에 전국 각처에서 徵收하여
 이은 雜稅는, 지난날 초월알에 徵收

로, 쓸을, 이 밖의 것을 한글로 썼다니
白亭律, 李秉世이란, 두 사람이, 屈彌浦
稅所_{세소}에 왔고 칭송하여, 한글로 일언이치

로 드려와서 그 義安縣을 떠나갈
되, 이 때 彼等의 말에, 서울산 龍池臺九
關 사람들, 돈일만 남하하마, 兪貞元의
諫言을, 국사부로 받치고, 화하도
龍川, 慶萊, 安岳, 鳳山四郡에 나 達克薩收

게, 돈을 배어 더쳐 황폐로, 나 왓스므로,
白, 추두사름이, 돈유빌랴(염전)
을배여서, 留寓館에서, 밧은 過分稅將

敎諭을 지술구하되셔, 돈주고, 사어
덜스니, 그책을대라 하니, 일인 賸居戶
돈, 궁의부에서, 그잡세 바도말
조는, 앞은 일과, 외국인은, 컸다 할

돈외도, 허삼외(許三外)의 외도, 허삼
돈이라도, 세를내느법이 없다. 事
를, 지유하고, 또동서각, 관두라도

내명석으로 綸庭호면米穀을 더 하여
과파세를 안팎과 左記호의 표증을
바닷다더라
丙申七月十一日

日人玄米過分稅勿辱標日人去後主人處勿受
大
窟頭浦分監 李秉俊、白亨律署名押印
而사야 이 일은, 그저窟頭浦만, 그러

다그려하니 그 몫分額에 관한는告示
公吏을 얻었스니, 좌에, 등지흙
建陽元年七月 日草望 分稅節目

右節目爲成令事卽到觀察使訓令內奉准宮內
府訓令則貴府管內戴寧草尾溝處在信川戴寧
安岳鳳山四郡交界而該溝收稅項已付屬於春

坊與經理營催例收時積有成所矣至甲午成此
清收稅萬八千凡他處庫儲稅遂至革罷自落比
往依前例收奉之意蓋官池舞九另定派還苦痛
訓令罰至節日一知照於該清民人處確覓規

例章說師曰量宜成給如有望望沮毀之漢自鄧
祠托靈輿接道之飛輿亦爲有實夾訓今成師曰
以給爲主平津說事師曰考諸目後餘無弊收津
是矣有欲言解者一幾多難通恐有脫舉一得望

宣嘗者

공
모
변
공

아니하면
잘아
장
게

記
字
잘
히
히

● 100 ●

어 집은

본한평에
이안보

음양오행론

의사

자
가
다
바

심치 춘 아

$\frac{0}{0} = \frac{1}{1}$

날은
고오
지고

三十一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고, 온갖 물의 이름을, 文殊의 佛號, 妙吉祥, 妙吉祥을

[illegible]

●議政府官制

勅令第一號

天下萬物之統類

第一致、議員
議政府は左の職員を以て組織するものとす
議政、内務大臣、參政を兼ね、外務大臣、學
支那大臣、軍部大臣、法部大臣、學部大臣、
農商工部大臣、實政五人、參贊一人
議政と實政五人は勅任とし、各部大臣は其職權
上實政を兼ね、實政も亦勅任とし、三品以上の官
より議政を充て、實政は勅任とし、任命とし
内務大臣は參政を兼ね、議政の疾病或は其他の事
事故有る場合には會議に首席として爲り、必要の場
合には議政の事務を署理す
各部署長大臣も各部大臣と同じく實政たるもの
と爲るものとす

會議

第二條 許可證(問題)因該(の)權を有するは擬政
せしめ給ふ

職員に限るもの

一 法律、規則及び制度を新定とする事
二 現行法律、規則、制度を廢止し若くは之を修正し或る定款あるの協合に之を

聲明する事

三 外國と開發又は講和し或は條約を締結する事

四 内地に擾亂有るの際之が撲滅の爲り特別の方法を協定する事

人民の利益を計

六、收入出の設計豫算及決算の事
七、歳出豫算外に特別に支出する金額を辨
備する事

を要する場合には

九、富政年度、豫算中の職員俸給或は、其他の金額を改正する事

民有の土地

十一 大君主陛下より特命を以て會議に下
存せられたる事

十二 大君主陛下の裁可を経たる法律及び

豊産も頒布する

事項もらば該議案は賛賛を経て議政に提出
すべし

議會に付する議案多き時は毎週三回開議す
第七條 會議は賛政三分の二以上の出席を要
して開議すべし
第八條 各諮部大臣事故有りて會議に參席する
能はざる時は該部盛構をして參議せしむべ
きと決議の數に加はると得ず
參贊事故有りて參席する能はざる時は賛政

中の年少者を以て臨時代理せしむ

第九條 一部或は數部に特別の關係を有する事件と討論する場合には之に關係有る各部大臣親しく參席し預は必要あらば該部總長或は局長を同席し該事件に關する説明を爲さしむ此場合に該議員は參贊を列席すべし

第十條 一部にのみ關係を有せる事件を討論

する場合は該部大臣事故有りて出席する能はざる時は其旨期に至りて議政に通報すべし然る時は議政は該辦事を次會に譲る次會に於て之假令該大臣は出席する能はずとも之が討議を爲すべし

第十一條 會廳には會廳に必要ある職責ある者の一助として之の職を司る者あり

第十二條 大君主陛下の裁可を経たる事件と
 待命を以て會議に下付せられたる事件は開
 會の時衆議院設立して之を明決すべし
 第十三條 贊政の提出したる議案は參贊起立
 明瞭す此際之を謹聽すべきは勿論或は沮止
 し或は討論するを得べし

第十四條 議案を明發したる機之を提出したる賛政は提出の理由を説明すべし

第十五條 賛政にして該議案に詳かからざる所あらば再讀と再説明を請求するを得

第十六條 議政は議案の諸條に就き各賛政の意見を諮問すべし此場合に各賛政は筆政に向て之を答辯を爲すものとす

第十七條 賛政にして該議案を就き討論せんとする場合には強の起立して議政の許可を請ふべし議政以下都て發言の場合にば起立すべきものとす

議席に在りては議案事項に就きてのみ發言すべきものにして發言の際他員を談話する

第十八條 尋常の事件は一次期議の後賛政の多數決により決議す

第十九條 討論の事項に就き賛論支離する事各には罰款は便宜之を議會に譲り次會に於て引續き討論すべし

第二十條 議案に對し討論の末原案若くは改

正案と十分密着し、其意を以て參贊閣政の命と承け、各贊政の意見を收取し、可否の多少を即時に宣言すべし

(未完)

關詠誠氏は其父斗詠氏等と共に、再昨夜に於ける故 關后の小祥式に列せられたが爲め同日入京して、校洞する自邸に入り、今猶ほ同邸に在りて云ふ又金柄始氏も同日同じ

入京して承潤等の自邸に入りたりとの聲有
り其他當日には地方に退隱し居れる閥家の一
族は勿論文武兩挺の士の入京したるもの頗る
多し

○關泳氏 是國武官一名で同伴し已に
諸藩新地に到着し居ると噂さるものあり現
に齊藩八月中には當地に若すべしと決定ありと

●英國達爾大佐 スナシキ ビーキー 氏
從卒四名と共に去る廿四日の玄海丸にて長崎
より渡來し再昨口入京せり
●佛人ホテュとモ塞せんといふ 佛國人フ
リガなる者は自今數ヶ月間を關し皆佛國國
使館前面の空地に二つのホテュとモ塞す可
し云ふ氏は是れがて天津に在る佛國にもホテ

ニと所無し居れども
 魯閨内漢氏 は議政府参贊に任ぜられた
 この際わり
 魯内閣主事の罷免 従来の内閣總書以下各
 高参官は何れも前號託記の如く官を免職官が
 轉じたるが主事は此際或は議政府の主事に就
 くるものなるべし其多くは罷免するべき中

已に數日前時の内閣總務李商在兵部總の主宰
一同を官報課に集めて沙汰したると云ふ
●李伯我邦に上陸せし 李鴻章伯の米國と
對國の途次日本へ立寄り或は上陸する事も
あらんとぞのふぞは過日の報上に記せしが其勢
在米國の清國公使館より在本邦の清公使館へ

●山林伐採と支那強敵
遼東、奉天、吉林及び鴨綠江一帯の山林伐採權と

得たる露爾ブリノ氏が非常の巨利を擲すべし
の言ふまでも無きこととせしむるも其れ事業上發
分困難を感ずることあるべし其の次第と云へ
るは豆滿江上流茂山地方には茂州地方より入
込みし支那強賊數多徘徊し此れ等は向しも蒙
利なる銃を携へ其勇猛なる尋常一様の強賊
類にわらず就中該地朝鮮土民の「タイトム」

と稱する。一國の號の如きは萍蓬論に「韓」に入
て地方士民は虎兇の怖るべきより偏は教習師
の呼ぶものと爲し「タイノム」でその名を聞か
へ襲ひ侵入して今後林木茂草の時に必
此強賊の爲めに非常の妨害を受くべしこれ
に爲し盡くに他國の境界内に迄と入れし退治

此敷の爲めには該當業者も一時餘程の困窮計せんを欲しても到底底計すべしと云ふからず

夏期休暇の爲め久しく休業中

同學生は去る十日より授業を開始せり

仁川領事等の學校參觀

荻原仁川領事代

日語學校を參觀し萩原氏は各生徒に向つて
及び西勝仁川居留民長は来る二十四日同遊
の整正するをを稱揚し延び今後を獎勵す
の演説を爲し賞贈品給與の爲め金拾圓を寄
し西島氏よりも同じく五圓を寄附せしが仁
港監理にして同校校長と兼ねる李在正氏

正日右一民に對し下筆ある辭哉と極りたふと
 へに記す同校は李在正氏の贅言宜しとて痛
 ると教誨岩殿氏の標點とにす近來校務は
 長し大に衰へたるものなりと云ふ
 仇を以て恩に酬め 吾侪一老嫗あり一
 日暮晚餐炊し畢はりて東里の家に住み談話を
 刻其家に歸れば則ち何の處の少年か房中に

國民の如く... 少年の教育... 少年の教育に必要とせんことを感ずる。...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交通の關係... 交通の關係... 交通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浦鹽と北關との關係...

特別廣告... 京城... 京城... 京城...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廣告

●豐島丸 十月五日日出帆(四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玄海丸 十月六日出帆(四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薩摩丸 十月六日出帆(五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肥後丸 十月八日出帆(七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長門丸 十月八日出帆(七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兵庫丸 十月八日出帆(七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坂支店 瀛船仁川廣告

●筑後川丸 十月九日出帆(八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信濃川丸 十月九日出帆(八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木曾川丸 十月九日出帆(八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隅田川丸 十月九日出帆(八日入港)
釜山、下、神戶、大坂行

●龍仁瀛船龍山出帆廣告

●正重丸 九月廿八日 午前八時半出帆

●安來丸 九月廿九日 午前八時半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一等 壹圓

●二等 七角

●三等 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山原旅館

●東京旅館

●旅 館

●館 東京旅館

●館 東京旅館

●館 東京旅館

●館 東京旅館

●館 東京旅館

●館 東京旅館

御旅神戶屋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拾貳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拾貳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拾貳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拾貳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拾貳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拾貳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拾貳圓

廣告

●立銀行ノ營業滿期ニ付テ

●式會社第一銀行ト改稱

●シ資本金ヲ四百五十拾萬

●圓ニ増加シ營業繼續仕候此段廣告

●明治二十九年九月

●第一國立銀行

●新荷到着

●夜着布團座布團

●小袖綿肩掛

●首環卷絹手巾

●高帽子シヤツ類

●グム靴半靴

●柳行李支那革判

●馬具其他種々

●外ニ建築用布雜貨

●右ハ今般荷着仕候ニ就テハ特別廉價ヲ以テ

●販賣致シ候間諸君御愛求ノ程奉願上候

●京成泥泥

●鈴木大阪堂

●雜貨買次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前特別

●式會社

●第一銀行

●シ資本金

●圓ニ増加

●明治二十

●第一國立

●新荷到着

●夜着布團

●小袖綿肩

●首環卷絹

●高帽子シ

●グム靴半

●柳行李支

●馬具其他

●外ニ建築

●右ハ今般

●販賣致シ

●京成泥泥

●鈴木大阪

●雜貨買次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并依託賣

國

前特別分... 明治三十一年一月一日... 國庫券... 改稱株... 拾萬...

改稱株

紙幣消却... 五八五、〇二〇、三二〇... 九七八、三〇〇... 二四六...

銀行

紙幣消却... 五八五、〇二〇、三二〇... 九七八、三〇〇... 二四六...

種草判靴類巾掛團

紙幣消却... 五八五、〇二〇、三二〇... 九七八、三〇〇... 二四六...

阪堂

紙幣消却... 五八五、〇二〇、三二〇... 九七八、三〇〇... 二四六...

井出商

紙幣消却... 五八五、〇二〇、三二〇... 九七八、三〇〇... 二四六...

張店

紙幣消却... 五八五、〇二〇、三二〇... 九七八、三〇〇... 二四六...

張店

紙幣消却... 五八五、〇二〇、三二〇... 九七八、三〇〇... 二四六...

新荷到着御披露

東京カル、ス煎餅... 船來ビスケット... 瓶入洋菓子數種... 梨桃梅杏罐詰... 堅魚でんぶ... 小鳥大和煮...

第六會正風集

題菊夜寒

豐秋園瑞穂宗匠樂撰

投込所

鏡眼種各銀金

賣販手一國鮮朝

店支辻 岨泥 店商辻 洞貞

パール、パール、パール... 金銀各種ノ眼鏡... 今般新荷不著仕、候ニ付、即、愛求ノ程、參、上、候...

小林菓子製造所

新茶... 御茶、一斤、金、五、拾、錢、五、五、圓、迄...

新茶

御茶、一斤、金、五、拾、錢、五、五、圓、迄...

河村至誠堂

發行所 漢城新報社

漢城新報

隔日發刊

日本遞信大臣

更調

○日本遞信大臣一氏、前內務省長官、
 子爵野村浩太郎、그대 산을 앓았다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其任內、日本遞信大臣、其任內、

上海銀行員來函

○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其任內、上海銀行員來函、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其任內、인천경우서술금품、其任內、

장례원
궁니부
야 이
로이
상의스
별전서
유하기
모양은
관공에서
자난은심판일에

郭御史傳 (續)

이, 다시
말물너달
리라호고
을,가지
이라,그
구경군
김이,그
다머
을,일본
지차케하
일본은
청하야와
있어스,봉명호고,날여은지말서
쥬년이,남문지라,그조부와,모친
게,호중호고,경성으로,가라호시,
그모친니,갈아디,너의지금,경성
으로,가라호난거시,사비당연하나
니가평성에,먹은마암이잇난고로
말호노라호고,인 여 눈물을흘이
며갈아디,사름이,여자로,제상에
나미,첫지난부모호,돌지난가군이
라,니가빨자궁박호여,가군을하루
도못외셔보코,지금거지살기난,너
얼위호여,목숨을부지호엿더니,죄
금의셔난,너와가져리듯장성호고

郭御史傳

저금몸이 나랏에 막히여 다서 경성
으로 올나가서 임군게 죽고 고
향의 도라와서 자포와 조부를 호성
으로 섬기고 자하난마 암이 간절하
고 부귀난별노이 소원이 아니온
모친이 지금 망여에 말숨을 하지
나지 못하와 놀날자 아니하키스
을

자애 마암도 웃지 그러하니 소리
오마는 모친이 소자에 계한을 세
라하시키의 뒤두를 아지 못하긴
교로 발정을 못하여 소오니 모친
소자를 위하와 너그러이 성각하
서하고 명일 평조에 발정하라고
여 그묘침소애 드러가 호정을
고 그부인 방에 가서 그부인 다
라

을날날과싸기、이모양을보고자하
여、며음을이어더니、지금자식이
성하고、자부가저러듯한칠나、
무손한할비익스리오、천부난가
을일치말고、가군을공경하여자손
을만니길너、과씨종사를、선차말려
하라하고、인하여、약귀를들고마시
랴거날、어스그약귀을잡고、올머
글은더、소자가부친이옵시、모친을
향애자라서、다른형제도읍습고、또
임부에교훈도、뜻지못하고、지금나
해、슈십세되던차모을의지하야
제일을보느다가、모친의세후、소자
도늘거죽코자하여더니、지금모친

혈호정상은성가지아나흐셔로、
그러듯하시。라고、남군은빛비노라
와、모씨을지효로섬가다가、모씨박
세후、우리여년을보느자하고、아갓
치말흔다가자연밤의오리거날、침
을자다가、나리박난줄모르난지화、
놀녀새다르니、동방이、임의발가란
지라、놀녀여그모씨침소에、신경
라고간즉、아죽문을열쳐아니호르、
언적이코요거날、고여하여、활
드러가본즉、그모씨금침우에、자난
다시누어거날미완

陰曆八月二十日 (丙戌)

雜報

●因時錄

연운을 장차 서도 정한 후, 명년 나삼 월간의 로정하신다더라

●京師近事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京師의 민영을 세는

여, 최손이, 출물하여, 지신 할달아, 습시되, 도평할, 폐척이, 습고, 영병

아, 출정하느, 도리여, 야로, 되야서

을, 전량만, 취비하고, 성인이

도란의, 들었사나, 찰하리, 다시, 상

리, 국을, 비설하여서, 각지방의, 이

는, 부상과, 보상으로, 하야금, 각

출력하여서, 임방을, 광치하고, 회

소의, 기밀함을, 정탐하여서, 슈한

포착한, 부보상의, 부치느, 자이,

만, 출거시요, 또, 민년, 춘춘의, 호변

식, 과장을, 설치하여서, 스림을,

위로, 졸, 향국의, 잇느, 스민이, 초

사안돈하여, 다시, 장요할, 영녀가,

습갓다고, 하야, 다더라

●部議要覽 日本院議에 사

三郎이 란 사람의 妻는, 열일을, 살에

三郎집으로, 시집왔느니, 그 때 신

은, 刀劍을, 띠들며, 단, 일일을, 가

삼아서, 잘세간지니, 다, 을, 해년

터, 그날, 부가, 瘡癰을, 아라, 도모

거름도, 잘못된, 기고, 아, 주, 瘡癰

럼되야, 무인년에, 아, 주, 瘡癰

은, 瘡癰을, 삼았스되, 밋전, 이, 만

코, 또, 병신, 이, 밋, 그, 가, 계, 가,

럼, 계, 되, 야, 다, 라, 이, 러, 하, 님,

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인디, 잘못, 신, 기, 서, 아, 주, 瘡

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단,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노,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그, 근처, 사, 들을, 이, 그,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로, 瘡癰, 이, 瘡癰, 이, 瘡癰, 이,

모양이야 웃자일이 오르고, 제 판관과 서로 상
한하기를, 종일 하되, 무가 되나 인고
면(面)로, 그 점을, 돌보되, 그 점이
도라갈 때의, 말하되, 비록 참이라
도, 양반에 제집이라, 제 판소에 와 실
지라도, 상한에 제집보다, 다른 고로
을, 세에, 교군을 타고 왔신즉, 갈
색에 웃지 거라 가리 오하되, 교군을
드러다 타고, 뒤왕교군세를, 제 판관
드러를 나하고, 야로 무상하니, 요마
제집이, 국법을, 두러워 아니하고,
포악이 되신하되, 아한 거스르며, 그
서방을 음적하니, 뜻년 사름더리, 그
제집이, 의악이라 고하더라

● 男重新篇
남부성명방, 스는 김가
사, 본의, 잔인한 형을 스름으로, 그
소첩 평양니 씨를, 은둔 후에, 무단이
그 조강지처를, 바리니, 그 처가, 또
혼무가 무의하야, 갈 곳지 업서, 저
에, 단이며, 비러먹고, 그 절지를, 고
치 아니하고, 가부가, 한번 마음을
돌니여, 다시 원앙의 절거 오물, 일
우고 저하되, 모종되, 회과 하든 마음
이, 업스니, 그 처가 과한을, 이기지
못하야, 거 팔월 심오일에, 그 고향 스
름을, 싸러서, 함누체 읍하고, 돌아
가다 하니, 차등에 문이 무일무지라,
반다시, 다 실하 지 아니, 할가, 두려워
하나, 그러나, 종족이, 스의, 쇠하
다, 하더라

● 醜穢之行
중부경행방, 교동의,
호계집이, 잇스니 본의 허승위, 안의
서, 성장호, 거스르, 음순호, 형실을
이, 고지, 못하야, 그 본부를, 버리
고, 도망하야, 스를, 올와서,
숨사삭을, 류다 가, 작년 승월의,
한모의, 별실어, 되야서, 비년하로,
하기로, 금서 갖치, 상악 하되, 나,
금의 일의, 한씨가, 일본의, 들어간,
후의, 그 년이, 또 음욕이, 되발하
야, 그 압집의, 스는, 유가란, 차로
다 부러, 잘 통하야, 밤마다, 비발
을, 남지 않게, 설사하고, 오락하는,
고로, 본부 세간은, 탐내고, 소문
만, 더럽게 되었다 하니, 거사가 위
세상의 낙하는 거사 술과 식에 만이든
줄아는 모양이라

● 沙上題
작일에, 광주로부터
오난 손하니, 말하되, 송파강나로
건나 올때에, 비가 온히, 형인이 심어
평이, 을 남하되, 사공이 도척이 되단

하여, 선가를 미명하에, 열양식을
내 한즉, 형인등의, 어금하되, 후단
양도 주며, 후후 양도 주며, 만일 그
로 주지 아니한 자란, 권유 의무상
하니, 스공에, 형악이, 이 갖치려 심
하더라

● 男藝女傑 (未前)
잇네, 춘풍이, 물건을 사고, 평안도,
평양으로, 뒤러가, 뒤유에, 물건을
고, 슈삼일, 두루하며, 두루, 평안도
구경하고, 물정도, 탐지하더라, 스
시, 평양기성에, 추월이라, 하든
성이, 잇스니, 교외 무쌍하되, 또 가
가 절등하니, 진짓, 평안지척이라,
부상대고 들이, 한번 보되, 참혹하
지 산을 랑과, 안나하되, 업는 지라
춘풍이라 하든 스름이, 본의, 평성 스
름으로, 크게 장스하되, 물화를, 마
니 싣고, 왔다 하든, 말을 듣고, 추월이
춘풍을, 싣이라 하야, 춘풍, 거처
는, 집, 옛년 편집에, 방스하든, 스
쇄이, 만들고, 주야, 청가 모무와, 옥
가 봉성으로, 스름의, 회화를, 도
탕심을, 조아니니, 철석 간장인들, 언
지 요동치, 아니하리요, 춘풍 삼추원

의, 노리 소리와, 거문고, 화답하
소리를, 듣고, 심니에, 스스로 말하
네, 아모리, 나를 쟈어나, 나도, 링
세호, 마음이 잇스니, 엇지, 동녕하
니, 잇스리요 하고, 마음 구지 먹고,
날을 보되, 나, 일하든 추월이, 춘풍
에, 게, 주효를, 가지고와, 만반으로,
교리를 부리며, 술권하니, 남아 동
에, 엇지 구축하리요, 하든, 전일
주석에, 탕유하든 구습, 잇스미, 상
혼이, 표랑하되, 어린 듯 하든, 마
음을, 정호하되, 업스니, 심분어 제
며, 나, 려에, 초마, 그 처 쫓지, 못하
니, 술이나, 두어 잔, 먹고, 보되 리라
하고, 추월다려, 일내갈 오되, 나
니, 술을, 즐기 못하나, 네가, 특별
이, 가져온 술을, 그저 보되면, 역시,
살충병이라 하고, 강임이, 슈삼비,
의은후, 보되 하되, 그 후 추월이, 중
하와서, 향기로 은말과, 아리싸온 소
리로, 회회를, 위로하니, 날이 가고,
달이 오면, 조연, 연아 들어, 무간하
지라, 일하든 추월이, 춘풍 다려와,
소녀의 집이, 정해하고, 종용하되, 서
방님, 제시기에, 편을 만하고, 조석
광피도, 인점보다, 나을 듯 하오니

● 主인물, 소녀의 집으로, 음기 시며,
엇다 하오리 일가 하든, 춘풍이, 그
게 고를 모르고, 대답하되, 네가, 서
방이, 일술이 아니, 외인이, 주인하
고, 잇스면, 조연 주권이, 후, 불평하
일이, 잇슬가 하노라, 추월이, 뒤왕 소
네, 지금은, 서방이 업스오니, 그림
형의, 이슬 것 업스고, 또, 소녀의, 평
성일심이, 눈과, 마음에, 합호, 저술
양반을 만나, 비년하로 하기를, 원하
는 바기로, 지금가지, 서방을, 덩치
못하엿습더니, 우연이, 서방님을 뵈
오니, 소녀의, 원하든 바에, 후, 당
오나, 서방님, 조연에, 엇다 하오실
는지 모로와 같이, 심중 소회를, 말
치, 못하엿스오니, 의향이, 엇다 하
는지, 아모리, 창네 오나 이런 말하
극히 방조하옵고, 또, 소녀의, 저
어 누거 만일 오니, 그 난하면, 서방님
평성에, 한나을, 무구이, 하오시리니
바라건대, 일과 안여 조의, 평성
원을, 저버리지, 마음 소서하거늘

(未完)

懸賞募詩

本社茲出題募詩本欲以扶一教化之舉而廣之
萬一賢徒踴躍辭義才華之具云哉大方君子幸勿
吝投寄

一 中秋 秋 七言律體 投稿期限陽曆三十日

一 秋雨江樓 五言律體 投稿期限陽曆三十日

一 賦得明月照高樓 五言律體 投稿期限陽曆三十日

一 詩草評定甲乙以次錄載于本新報其得甲選
者贈以本新報一期

一 投稿者須及期登者不採

一 稿本必以楷字寫之

一 投稿者必須明寫氏名別號居地為要或單
不記別號者不採

九月十八日

漢城新報社編輯部

社告

新開紙價表

一 期開 先給 一兩二錢五分

三 期開 先給 三兩五錢

六 期開 先給 六兩七錢五分

地方販賣者 每月報額稅七錢五分

廣告價 刊登廣告價目表 刊登廣告價目表 刊登廣告價目表

雜報

●宗室待遇に關する 詔教
去る廿四日、政府官制發布と同時に、宗室待遇に關して左の詔教を公布せられた。

宗室の待遇は自から其の類あり而して現に職名を以て父系を以て今此の官制制定の日に宜しく其の待遇するところをさるべきものなり。前宗親の例に依り封君爵號の序を以て宗正院に付す。

建國元年九月廿四日奉

●選信大臣の更迭
教 宮内府大臣 李載堧

選信大臣日根一氏は頗る依り本官を免せられ、子爵野村靖氏其後を襲ぎ選信大臣に任せられた。由廿六日發の東京電報に見ゆ。

●金所始氏の辭表と復批
金所始氏の辭表と復批
金所始氏の辭表と復批

●批官、省疏具悉、朕之哀曲、既悉面諭、批亦當然心慰、朕方喜以爲滄海橫流、忽得舟楫、罪止此何至也、民國肇基之狀、端需之所共愛、其在卿體國之義、至深至念、外屬望、朕既出而極諍者、何如也、在急救、行路動心、常情然矣、卿今言辭、其可忍乎、卿雖日封十等、爲無難計之理、卿其之、更勿徒煩往復事、遺秘書鄭傳諭、其意、同氏今日の境遇は再三の、聖旨にも件ひて總理の任命を附けざりし前日は自ら其事、異にするもの有り、當分は京に留りて其職を盡さるを得ざるに至らんと姑く聞かざり、存案して後日に復せん。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議政府官制

(未完)

第二十一條 議決の命令は賛政の姓名を印刷せる紙一枚宛を各賛政に配付す各賛政は其姓名の下に數語を以て可否を附し同僚の意見に反對する時之特にて退て審査報告書と提出すべき旨記入すべし。

第二十二條 賛政にして同僚の意見に反對し特に審査報告書を追呈せんとするは意あらば該會に於て其旨を明言し提議せんとする意見の大体を説明すべし。

第二十三條 前條の審査報告書は一週日内に草して賛政に送致すべし然る時は大會に於て該事項を再大討議し第二十條の例により採決すべし。

第二十四條 議事を了らば議政或は賛政の命令を承け大會の期日と討議すべき議案を預め宣言すべし大會にて討議すべき議案の未定あるか若くは一週日以内の開議期日に開會するの見込なき時は上項の宣言を爲し難きとて此場合には大會の日及び討議すべき議案は賛政より議政の指揮を承け追て各賛政に通報すべし。

第二十五條 議會に提出せし議案の原案、討論筆記及び大君主陛下の裁可を経たる決定は簿冊に存録すべし。

第二十六條 大會には賛政として前會の議事筆記を朗讀せしめ議政及賛政署名すべし。

第二十七條 大會に於ては賛政議政の命令を承け前會は一次討議せし議案を再大朗讀し賛政中意見の合せざるものあらば再大朗讀し然らざれば議政は討論終決の旨を宣言し各賛政をして採決を行はしむ。

第二十八條 毎議案に對する採決を記簿する時該事項の討論に與かりし各賛政は大會に於て署名し賛政をして議政府の印を捺印せしむ。

第二十九條 議政府に於ける會議の順序は左の如し。

一 大君主陛下の裁可を経たる事件と特命を以て會議に下付せられたる事項は議政起立して朗讀する事。

(第二十九條參看)

二 賛政として前會の議事筆記を朗讀せしめ議政及賛政署名する事。

(第三十條參看)

三 會議に送致せし審査報告書と朗讀する事。(第二十九條第二十二條參看)

四 賛政議政の命令を承け前會に一次討議せし議案を再大朗讀し再大討議する事。

五 議案に對し各賛政署名し賛政として採決せしむる事。(第二十八條參看)

六 前會に議案送致せし事項を再大討議する事。(第二十九條參看)

七 新會會議に付し事件と討論する事。(第二十九條參看)

八 其他説明を要する事項あらば説明を爲す事。

第三十條 議案

第一條 會議に付せし議案の討論と採決は賛政議政の命令を承けて一週日以内に奏本を草し議政之。大君主陛下に呈呈す議政疾病の場合には參政之を呈呈すべし。

第二條 奏本は左の事項を記載すべし。

一 該議案を會議せし日

二 會議に出席せし議政、賛政其他同參政主官更等の姓名及び會議に不參政し官吏の姓名と其不參政の理由

三 議案に對する所の賛政、目的、討論の概要、議事の模様及び諸賛政の意見附一せざる場合は賛政署名の數並びに賛政中議案に反對の審査報告書と提出せし者あらば該報告書は奏本に添付すべし。

四 新定議案と現行法律との關係

五 議政及び賛政の署名

第三條 議政の奏本を呈呈する時 大君主陛下より諮詢有らば該議案に對し詳細に要し議案に關係ある文書と呈呈するの場合に必要は必ず副本を留り置き 聖旨有らば議前に呈呈すべし。

第四條 會議にて決議したる議案は 大君主陛下より裁可の聖旨下るを待つて確定し採決の多少に拘はらず裁可ありせらるる君權有り若し或は該議案の議論 聖旨を協はされば 勅教を以て再大討議せしめ給ふ。

第五條 議案は如何なる決議に裁可あらざらるるも議政は 聖意を奉ずる時は該議案に關する法律、規程等を修正して該案件に關押 御璽を鈐し之に副署して議政府に還付し官報にて頒布せしむ。

第六條 頒布の官報には左の事項を記載すべし。

一 大君主陛下より如何なる事項に關する法律規則等の案に付し裁可を経たる事

二 議政及賛政の署名欄

三 法律規則案の諸條

四 新定の案件に因り如何なる法律規則を改正若くは廢止する等の案件

五 該案件に 御押 御璽を鈐せらるる御押 御璽

建國元年九月二十四日 各大臣副署 (完了)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閣議院の辭表と復批

浦鹽と北關

との關係 (永野)

市次 達十

豆満江沿岸形勢略記

豆満江の沿岸は農産物の繁華力非常に盛にして夏季に至れば滿天滿地只翠碧を以て元々之れ之と望むに快極なり而して是れ單に朝鮮境上に止るらずして露領諸領皆然りとす露領は常に平野浩渺として快闊なりは露領には穀物には粟、稗、大豆、小豆、豌豆、蕎麥、耳米最も多く粟は土民の常食なり又海産水産牛馬を牧する所少からず

支那人の此土に侵入して土著するものあるが如く朝鮮人亦對岸清領の地に入りて村落を立て農事に従ふもの少なからず蓋し境上は兩國民雜居の形なり

朝鮮人の露領に入つて結成せる村落の著るものは「シヨタレキ」「フオダシ」「タイト」「チユラディ」「マリアサン」「フエンガ」「シニギウエ」「クンシニギウエ」「カ」「シニギウエ」「バグシニギウエ」「マミ」「シニギウエ」「バグシニギウエ」「マミ」「シニギウエ」「バグシニギウエ」「マミ」「シニギウエ」「バグシニギウエ」「マミ」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朝鮮は衣冠の制類る嚴重の國柄れ共地僻にして官令及ぼすとも云ふべきが北地には往々露帽露服を着用するものあり而かも我人共に之を怪むことなし又家屋に添へる煙突の高大なるが如き思ふに露國傳來の餘法あらん

特別廣告

明治二十九年九月廿六日

京城支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廣告

豐島丸 十月五日入港(四日入港)
釜山下ノ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玄海丸 十月六日出航(四日入港)
芝罘 茂木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薩摩丸 十月六日出航(五日入港)
馬關 香港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肥後丸 十月八日出航(七日入港)
芝罘 太清 牛莊行 船長 井上啓三郎

長門丸 十月八日出航(即日入港)
釜山 元山 浦里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兵庫丸 十月八日出航(即日入港)
釜山 元山 浦里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瀛船仁川廣告

筑後川丸 九月三十日入港 十月一日出港
釜山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明石丸 十月四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信濃川丸 十月四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木曾川丸 十月四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仁川荷客取扱所
龍仁瀛船龍山出帆廣告

正重丸 九月三十日 午前九時出帆
釜山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安來丸 十月一日 午前九時半出帆
釜山 瀛船行 船長 井上啓三郎

京城・莊司回漕店
京都御泊料之儀 庄司回漕店

一等 壹圓

二等 七十錢

三等 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京都泥殿三十八號

旅館
東京館

館
東京館

館
東京館

館
東京館

御旅神戶屋
朝鮮仁川各國居留者
第貳拾六號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五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五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五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五圓

金壹圓

金七拾錢

金五拾錢

金五圓

廣告
本月廿五日

立銀行ノ營業滿期

式會社第一銀行

資本金チ四百五拾萬

圓ニ増加

第一國立銀行

新荷到着

夜着布團

小袖綿肩

首環卷

高帽子

ゴム靴

柳行

馬具

鈴木大阪堂

雜貨

次買貨

賣販托依并

一石油

大販賣

慶田出張店

慶田組

大販賣

慶田出張店

慶田組

[illegible]

國債證券	二一、〇五〇、〇〇〇
他店へ貸	五六、六七六
雑勘定	四二、二四九、四一六
營業用	五、一一三、七五
地所建物	六五、八〇〇、〇〇〇
營業用什器	一、〇〇〇、〇〇〇
金銀有高	二二六、三〇五、七五二

種々 靴類

正貨 紙幣并金 兌換券 切手形 合計

紙幣流通高 定期預金 當座預金 振込手形 別段預金

負債 一、八六五、九八九、五七六 一、八二、〇八六、二〇〇 二、二、八三〇、〇八二 一、八二、〇八六、二〇〇 二、二、三八九、四七〇 一、八六五、九八九、五七六 八五、〇三四、〇〇〇 七四、一九五、八〇〇 四、八七、二七四、一八八 二、〇二〇、〇〇〇 五四、八七三、七三八

	仕	送金手形	他店ニテ借用金	株立金	別資立金	改堂
三四、一九二六四八			四十ケ所			以上候
五〇九七四八六二六			五四八六四、四八四	一五〇		
三三八七七六八			五〇九七四八六二六	五七三		

京大 烟通	井出商店	南大 門通	紙幣消却金 元資積立金 紙幣消却金 仕拂ヒ未済 割賦金 滯貨準備 繰越半季 常期純益金 合計	紙幣消却金 元資積立金 紙幣消却金 預メ金 貸附金證書 六十六通	三十四 三百四 五八五、〇二〇、三一〇 九七八、三〇〇
			一、八六五、九八九、五七六 二、八三六、一〇七 三、九七一、六九八 五、〇〇〇、〇〇〇 五五、四三七、七七三 五〇、九六六、二四六 二〇六、五〇〇		
			八九、四三七、七七三 二四六		

組	張店	買
地金銀	貨座預金	二限ヲズ
他店へ貸	越	
釋勘定	割引手形	
	荷爲替手形	
	預ケ金	
	國債證券	
	壹萬千	
	五拾圓	
	券面廿	
	三十六枚	
	三十ヶ所	
	三枚	
	百七十	
	三百八十	
	一百六十	
市街宅地	一四四、七一、七三〇	
一千三百	三八二、四〇五、四〇一	
	四、七三三、六六二	
	七、一二六、九三七	
	二一一、〇五〇、〇〇〇	
	五六、六七六	
	四二、二四九、四一四	
	五一、一三、三七五	

賣	營業用	六十四坪
地所建物	三合入勾	三合入勾
建物卅棟	建坪七百	建坪七百
七坪七合	八勾	八勾
卅四點	金匣外	一、〇〇〇、〇〇〇
二二六、三〇五、七五二	一、八六五、九八九、五七六	

●鮮魚佃煮
●海苔大和煮
●竹の子
●豆腐
●豆
●辛子
●京城泥鰍
●龜
●屋

題菊夜寒

豐秋園瑞穗宗匠樂撰

十月十日限●撰定全月
十一日翌日漢城新報ニ
掲載詠草ニハ居處雅號
及ヒ道稱ノ明記ヲ乞フ

投込所
漢城新報社
正風會

鏡眼種各銀金 ㊦ ト | レ イ バ
賣 販 手 一 國 鮮 朝
店支辻 岨泥 ㊦ 店商辻 洞貞

バイレート 捲煙草ノ儘今般東京輸入元木
 村商店ト等約ヲ結ビ朝鮮國ニ於ケル一手
 販賣ヲ相登ミ非常ノ勉強ヲ以テ賣込メ
 候間續々御注文ノ程奉冀望候
 尚ホ此他弊店販賣ノ捲煙草
 フレドレンス。ランナム。スリカスル。ス
 トレート。カント。ハチデユー。カノオ。カ
 ナ。ルキア。インブレス。カロリナ。ビ
 ド。スキトガ。エラ。キン。グ。フ。シヤ。

金銀各種ノ眼鏡ハ何レモ精巧ノ品ニ以テ
 今般新荷來着仕候ニ付御愛求ノ程奉
 上候

此他弊店本業ノ雜貨澤山新舊仕候ニ付
 併セテ御愛求奉願候

一 記 録
 名 産
 朝鮮 鮎
 紳モ此ノ朝鮮鮎ハ肥後國ノ名産ニシテ昔
 味ノ美好ナル遠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
 且ツ殺日チ極ニ速ク腐敗ノ患無ク箸チ
 一箱チ置ヘ置ケバ坐右ノ茶菓子トシ最上
 ノ好品ナリ大方之諸彦一箱チ購テ試用シ
 玉ハ品ナク又寶
 朝鮮 鮎
 京 城 泥 現
 小林菓子製造所

商品爲仕入日本一渡執仕候處京阪地方一熟テ
 廻求ノ御用多少ニ不限本月限御申込候爲要
 九月十日 京城力式 石丸鹿太郎
 旅館 大坂信濃橋吉詰西へ入 御用第三節
 セメント 著荷 良品 勉強大販賣

二山城
新茶
御玉製一斤金壹圓五拾錢キリ五圓迄
御煎茶一斤金拾六錢キリ壹圓迄
御薄茶極細廣寒上別處
此三種御入用ノ御申越シ次第早速
挽上ゲ御注文ニ應テ申候
新荷着仕リ候間大方ノ諸彦並舊ノ御愛求ナ
茶店 京城泥鰌
河村至誠堂

廣告料
鐵但し行數及回数により割増料
料金は悉皆前金にて可申受候事

三國月 七
六國月 壹
五國月 拾
四國月 拾
三國月 拾
二國月 拾
一國月 拾

發行所
漢城新報社

發行兼印刷人 莊林 田人
編輯人 島田 鐵

朝鮮京城漢南區會賢坊路通安